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三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1월 6일 수요일(주간) 제394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대선주자들의 불심잡기

10월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운융성 평화통일 기원 천도대재에 대선 후보와 당 대표 등이 참석, 대선을 앞두고 '불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10월 6일 열린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 봉사 고불식에도 정몽준, 권영길 후보가 참석했다.

10월 27일 대구 동화사 개산 1509주년 기념대법회에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고, 이회창 후보를 대신해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가 모습을 나타냈다. 같은 날 노무현 후보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의장 도원스님을 각각 예방했다.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 불자회가 한마음법회를 열면서 불교계 지도자를 대거 초청, 이회창 후보와 정겹게 환담을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자리에서 대권 주자들은 자신이 가장 친불교적이고 불교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뜻있는 불자들은 순수한 불교행사장이 대선 유세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떠나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자리를 축하하기 보다는, 단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자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대불교 공약을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상심(?)을 되찾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또한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대선 후보가 마련한 자리에 분별없이 참석하거나, 정당 사무실을 찾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사찰, 법회장 방문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의식해 찾는 것이라면 억지로 올 필요가 없다. 굳이 불교행사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더라도 불자들은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영(취재1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999
영주: 054)634-3429 일양: 055)353-1196

도난 · 도굴문화재 은닉자도 처벌

공소시효기간 수사기관이 발견때 부터 시작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통과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 처방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0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자기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도난 또는 도굴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문화재 도난 · 도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이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의한 결과, '도난 · 도굴 문화재를 은닉 · 보관한 사람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 절취 · 도굴행위 등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은닉 · 보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81조 4, 5항 및 82조 4, 5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문화재 도난 · 도굴범들은 훔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 시중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처음 훔친 사람이 누군지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면 도난 문화재인 줄 알고 산 사람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개정안은 문화재 도난과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도난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을 때의 문화재 회수, 발견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법사위 심의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법사위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소시효 문제는 도난범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소장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종단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정문화재에 한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 등의 후속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민간기구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공익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진각종 독자 군승파송 가능

군인사법 개정안 등 통과
편입대상 · 선발기준 심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에만 적용돼 온 군종장교 제도가 다른 종교단체에도 개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31일 회의를 열고 승려 목사 신부 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타 종교 성직자도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따르면, 군종사관후보생 자격은 '승려 목사 신부'로만 못박고 있던 조항을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대상은 '4년제 불교대학, 신학대학 등의 재학생'을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논란을 빚어온 진각종 정사의 군종장교 자격 시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물론 진각종의 독자적인 군승파송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조계종은 군인사법상 군종장교 자격 사항에 '정사'라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진각종이 요구한 군승파송 종단지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처리된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의 법률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국방부 산하 군종장교운영심의위원회에서 군종장교 편입대상 장교 지정 및 선발기준 등을 심의키로 했다.

김철우 기자



한중일 스님들, 세계 평화 기원 제5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가한 3국 불교계 지도자들은 10월 29일 강남 봉은사에서 '세계평화기원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 슈에청(釋成) 중국대표단 부단장, 고바야시 류우소(小林龍生) 일본대표단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3면 사진=고영배 기자

춘천불교방송 송출 시작

1일 개국법회, 난청 홍천에 중계소 추진

춘천불교방송이 1일 오전 10시 송출식을 갖고 개국했다. 호출부호 HLQM, 주파수 FM 100.1MHz로 방송을 시작한 춘천불교방송의 가청지역은 춘천, 인제, 홍천, 화천 지역과 경기도 가평, 양평 지역이다.

이날 개국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및 송출식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종수스님,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중스님,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법타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된 개국법회에서 오현스님은 "보통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 법음임을 알고 법음을 전하되 소음공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은 춘천불교방송 개국과 동시에 난청지역인 홍천 방면의 방송수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천중계소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10월 29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안동 포함 두 곳의 중계소 설립을 허가추천받음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보통신부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낼 예정이다. 주파수 및 출력을 확정받아 중계소 설립이 끝나는 내년 6월경에는 이들 중계소에서 방송 송신이 가능해진다.

춘천=강지연 기자



◇1일 열린 춘천불교방송 개국 행사에 참석한 불교계 인사들이 개국을 알리는 송출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춘천=고영배 기자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불교방송서 11~14일

불교방송, 불교TV, 불기협이 공동주최하는 '제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불교방송을 통해 저녁 7시20분부터 100분간 방송될 토론회는 △11일-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12일-민주당 노무현 후보 △13일-무소속 정몽준 후보 △14일-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정치분야-동국대 정용길 교수 △경제분야-동국대 장오현 교수 △사회분야-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 △문화, 종교분야-영담스님 등이 참여한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13대 종회의원 81명 선출

투표율 72.4% … 개원법회 9일 조계사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전국 교구별로 10월 31일 각 교구본사별로 일제히 실시돼 51명의 당선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27일 선출된 30명의 직능직 종회의원을 합해 모두 81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직할교구를 비롯해 동화사, 범어사 등 모두 15개 교구에서 투표가 실시됐으며, 해인사, 쌍계사 등 9개 교구본사는 2명의 후보자가 출마, 투표없이 당선됐다.

전국적으로는 유효선거인 3,229명 중 2339명이 투표에 참가, 72.4%의 평균투표율을 보였으며, 직선직에 입후보한 87명의 후보자 중 9명이 선거전 사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까지 선거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심의해 7일 최종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한편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는 9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갖는다.

<관련기사 3 · 4면, 종회의원 명단 6면>

한명우 기자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nhyo Studies
■일시 : 2002년 11월 12일(화) 오후 1:00 ~ 6:00 / 2002년 11월 13일(수) 오전 9:00 ~ 12:30 ■장소 :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및 다향관 세미나실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미와 번역상 문제점
English Translation of Complete Works of Wonhyo : Its Significance and Issues in the Global Era

국제원효학회는 원효사상의 세계화를 위하여 동국대학교와 미국 스토니 부룩 뉴욕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학술교류단체로서, 동아시아 자성사와 한국사상사,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범 불교권에서 원효를 어떻게 자리 매김할 것이며, 원효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원효학술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왔던 원효전서 영역사업의 회향을 앞에 두고, 주요 번역자들과 관련 학자들이 모여 그 동안의 번역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원효학회 공동의장
동 국 대 학 교 총장 송석구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교 총장 Shirley S. Kenny

첫번째날 11월 12일 (화) 동국대 예술극장
● 개회식 오후 1:00~2:00
사 회 | 김용표(동국대)
개회사 | Robert L. McGrath(Provost of SUNY at Stony Brook)
치 사 | 오록원(동국학원 이사장)
기조강연1 | 원효사상의 세계성과 현대성(한국본부 :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
기조강연2 | 원효전서 영역 : 한계와 공헌(미국본부 : 뉴욕주립대 전헌 교수)
원효전서 영역사업 보고 | 조성택(고려대)
● 주제발표 및 토론 오후 2:00~6:00
제1주제 | 대승기신론소에 나타난 원효의 신앙체계 | 오후 2:00~3:30
발 표 |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논 평 | 이평래(충남대) / 강건기(전북대) / 전해주(동국대) / 박태원(울산대) / 고영섭(동국대)
사 회 | 전헌(SUNY at Stony Brook)
제2주제 |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본 한국불교문헌의 '주석' 장르 | 오후 4:00~5:30
발 표 | Robert Buswell(UCLA)
논 평 | 서윤길(동국대) / 길희성(서강대) / 정병조(동국대) / 은정희(서울교육대)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사 회 | 심재룡(서울대)
총 평 | 오후 5:30~6:00 Lewis Lancaster(국제원효학회 고문)

두번째날 11월 13일 (수)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 원효전서 번역 Workshop |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 | 오전 9:00~10:30
Volume 1. 번역자 |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Volume 2. 번역자 | Robert Buswell(UCLA)
Volume 3. 번역자 | Cuong Nguyen(George Mason University) / 윤원철(서울대) / Charles Muller(Toyo Gakuen University)
Volume 4. 번역자 | 조성택(고려대) / Lewis Lancaster(UC at Berkeley) / 김용표(동국대) / John McRae(Indiana University) / Pokan Chou(National Taiwan University)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Volume 5. 번역자 | Robert Buswell(UCLA) / 조은수(University of Michigan) / Bernard Faure(Stanford University) / Richard McBride(University of Iowa) / John McRae(Indiana University) / Bruce Williams(UC at Berkeley)
● 원효전서 출판에 대하여 | 오전 10:30~11:00
사 회 | Robert Buswell(UCLA)
● 전체토론 | 원효학 연구의 미래 | 오전 11:15 ~ 오후 12:30
사 회 |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토 론 | Robert Buswell(UCLA) / Lewis Lancaster(UC at Berkeley) / Pokan Chou(National Taiwan University) / 권기종(동국대) / 서윤길(동국대) / 길희성(서강대) / 강건기(전북대) / 전헌(SUNY at Stony Brook) / 이병산(동국대) / 정병조(동국대) / 이평래(충남대) / 한보광(동국대) / 심재룡(서울대) / 은정희(서울교육대) / 김선근(동국대) / 김성환(동국대) / 허우성(경희대) / 전해주(동국대) / 김용표(동국대) / 윤원철(서울대) / 조성택(고려대) / 박경준(동국대) / 최유진(경남대)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 박태원(울산대) / 우제선(동국대) / 고영섭(동국대)

■주최 : 국제원효학회 동국대학교 본부 및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본부 ■후원 :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사 설

다시 타오르는 대불청 되길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회원이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 제대자 포교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10월 27일 제22대 대불청 중앙회장에 단선된 정상옥 회장의 당선소감이다.

대불청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주도로 1920년 결성된 청년불교운동 단체이다. 해방 이전에는 독립운동과 민족정신 고취에도 앞장섰다. 현재는 전국 16개 지부 250여개의 불교청년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재가 운동 단체이다. 만해스님을 비롯 김법린, 김판석, 김지견 등이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십수년 이래 대불청 활동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불자들의 가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의 조직도 동맥경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 되었다.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대불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 과제이다.

대불청 활동의 침체는 "초,중,고,대불교학생회의 감소, 재정부족, 조계종단의 불안정" 등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내지 종교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불청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를 위해 대불청의 활성화는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와 조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너나없이 대불청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지도자들의 임무이다. 종단협과 조계종도 대불청이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교정보화협' 창립에 부쳐

5일 불교정보화협의회가 창립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돌이켜 보면, 불교계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적지 않은 일을 해 왔다. 각 종단은 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찰들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통해 온라인 상의 전법과 신행 구도를 다져 왔다. 불자들 역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행의 폭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가 불교계의 정보화 현실을 잘 대변해 준 바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불교계 내부에 정보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지역과 농어촌 지역 사찰 단체의 PC 보유율과 인터넷 활용 실태에서 상당한 간격이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 우선 불교계의 정보화 기반을 효율적으로 다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가동, 농어촌 지역 사찰의 PC 보유 확산 운동 등에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교계 내부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범불교적인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실현 할 때 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불교계 정보화 불사의 성공은 각 종단과 단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단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서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진행 중인 각 종단의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공익사업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출범한 불교정보화협의회가 보다 진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거시적인 발전의 틀을 짜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운은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대중과 함께"…선학원 변혁 시도

중앙선리연구원 개원…연구지원·스님교육 강화

2004년 '선학원축제' 대사회 활동 적극 전개

선학원이 중앙선리연구원 개원 및 대중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의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이 같은 변화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전환이라는 점 외에 역할 확대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선학원은 변화는 크게 세 가지를 축에서 이뤄지며, 그 첫째는 교육불사다. 선학원은 10월25일 열린 전국분원회의에서 중앙선리연구원을 내년 3월 개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연구위원 위촉 및 상임연구원 선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중앙선리연구원은 구성원들에게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불교 인재를 배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각종 연구활동과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선학원의 뿌리를 찾고 근현대 불교사료 발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선학원은 불교사상, 불교사, 불교예술 분야의 학자 6명에게 연간 6천여만 원을 지급, 학계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 인재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현재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해놓은 상태다.

스님과 종무원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현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으며, 종무행정,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실천적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중과 함께 하는 선학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선학원은 재단설립 7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선학원 축제'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축제는 역경전시회나 큰 스님 유품전시회, 학술세미나, 문화 공연, 연인 맺기 등 불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 사회활동 강화다.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에서 복지활동을 위한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수 나옴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태고종진흥회' 구성

기금마련 5대사업 투자

원로회의 첫 회의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가 지난 6월 발족이후 첫 회의를 열고, '(가칭)태고종진흥회'를 구성하는 등 종단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로회의는 10월 31일 총무원 3층 회의실에서 종단 원로스님들을 주축으로 올 연말까지 '태고종진흥회'를 구성, 종단발전 기금을 조성해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 목적사업에 쓰기로 했다.

5대 종단 목적사업은 △총무원사 이전(신촌 봉원사 또는 사간동 법륜사) △종단 재정 확보 △사찰등록 갱신 및 승려 분한 신고 △종단 전산화 등이다. 김철우 기자

불교기아도움기구 네팔에 학교 건립

2천여평 부지선정, 교원보수 전액 지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NGO들이 인도 등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네팔에 학교를 세운다.

북한, 르완다 등을 지원해온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부처님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이 있는 네팔에 학교 건립을 결정, 최근 현장 답사를 마치고 부지 선정 및 지원 액수를 공개했다. 네팔 포카라(POKHARA) 지역 2천여 평에 1층 규모 6개 교실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부지구입 비용 1만 5천 달러, 공사비용 2만 달러 등 총 예상 소요액 3만 5천 달러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네팔 베그나스(BEGNAS) 지역에도 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포카라 지역 학교는 9학년제로 학년 당 2개 반으로 운영한다. 교사와 교장은 현지인으로 하고 보수도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특히 학교 한쪽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운영 불교 포교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2~3월 경에 시작하고 책임실무자도 파견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도굴범들, 이제 도망갈데 없을걸

봉암종정·법철총무원장 일붕선교종, 25일 취임식



◇종정 봉암스님



◇법철 총무원장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0월 25일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세 종정 봉암 대종사 추대 및 제7대 총무원장 법철 종사 취임법요식을 봉행했다.

종정 봉암 스님은 71년 제주 관음사 주지, 87년 제주 불교신문사 회장, 99년 일붕선교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 총무원장 법철 스님은 90년 총무부장, 96년 총무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이 '진각종 비하' 발언 이후 처음으로 10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과 만났다.

조계종·진각종 '불편' 해소될듯

정대스님·효암통리원장 만나 "대화로 해결"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과 관련, 대립됐던 양 종단 관계가 호전될 전망이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은 10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정대 스님과 만나 위덕대 군승 파견, 정대 스님 진각종 비하 발언 등 그동안 불거져 왔던 사안에 대해 양 종단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대 스님은 "진각종은 엄연한 불교종단"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말해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물러나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효암 통리원장도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 정대스님과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만남으로 두 종단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본사사령

류재희
㊎ 대전지사장

2002년 11월 1일

자연속 수행의 요람 경주 여래선원(비구니 선원)분양 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는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처 여래선원을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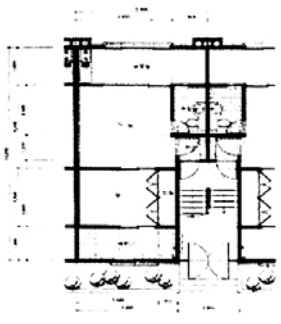
경주시내, 동국대 종합병원, 경부고속철도 신역사가 각 5분 거리인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건강을 위해 선도산 자연생수를 평생 무료제공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황리 분양 중

- 층면적 : 약 17평형 ● 입주 예정일 : 2003년 10일
- 분양 입주금 : 6,000만원(아침, 점심 공양 평생 무료제공)

※ 공양제공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입주금 : 5,500만원
금선사는 이미 금선선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누구보다 비구니스님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래선원 평면도



◁ 찾아오시는 길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 정 합장

초선의원 28명…지하스님 8선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



◇10월 31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 직할교구선거에서 스님들이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재선 31명(38%), 40대 의원 40명(49%)

"직능직 전문성 결여" 제도 개선 목소리

10월31일 치러진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전국 15개 본사에서 표 대결을 벌여, 10개 본사가 경합을 벌였던 98년 12대 선거 때와 비교해 한층 더 치열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72.4%로, 12대 때의 평균 투표율 57%보다 15% 이상 높아짐으로써 스님들의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교구본사는 봉선사로 90.5%를 기록했다.

초선의원들과 본사주지급 중진 스님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중 직선직 21명, 직능직 7명 등 모두 28명이 처음으로 중앙종회에 입성했으며, 보선 · 중원 · 법조 등 7명 가량의 중진 스님들도 13대 종회에 참여하게 됐다. 초선 및 다선의원 현황은 재선의원이 31명(38%)으로 가장 많고, 초선의원 28명(35%), 3선 15명(19%), 4선 3명(4%), 5선 2명(2%), 6선 1명(1%) 8선 1명(1%) 순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명(49.4%), 50대 30명(37%), 60대 9명(11.1%), 30대 2명(2.5%) 순으로 나타나, 30~40대가 55명이나 됐던 12대 종회와 비교해 연령층은 다소 높아졌다.

당선된 중앙종회의원 중 최고 득표율 당선자는 8교구 직지사 법등스님으로 49.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24교구 선운사의 법경스님은 3위와 1표차로 당선됐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지하스님은 5대를 제외하고 5대부터 13대까지 8선을 기록함으로써 이번 종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의 영광을 안았다.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꼽힌다. 우선 출마자들이 돈을 쓰며 투표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 함으로써 종회의원 선거가 '돈 잔치'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 것. 선거가 승가의 본분을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직능직 선출위원인 백양사 지선스님은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일인 10월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스님들에게 종권이 편중되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래 전부터 직능직 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12대 마지막 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됨으로써 이 문제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13대 종회의 의지 여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남게 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중앙승가대, 대학원 신설

정부 허가 정원 20명…내년 1학기부터 학생 모집

총장 종범스님 "2년후 박사 과정도 개설"

중앙승가대학이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대학원 설립을 허가받아 전문 승가교육 확충 및 승가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설립된 중앙승가대 일반대학원은 불교, 역경, 실천불교(포교사회)전공 학술(석사학위 수여과정으로, 20명 정원이며, 대학원 건물은 본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승가대 일반대학원은 2003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조계종 승려 및 조계종단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에 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6일부터 13일. 전형일은 21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 031) 980-7777.

중앙승가대에 일반 대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정규 종립대학으로서의 중앙승가대 위상이 높아지고,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교계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불교계 현안인 역경학과를 설립, 역경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승가대학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학원 설립에 따라 그동안 동결된 교수인력을 확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구소 설립을 통한 승단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교계일각에서는 중앙승가대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승가교육을 특성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후발주자로서 타 대학과 특화된 학과를 육성하는 노력과 동문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은 "대학원 과정에 수행과 포교 등 현대에 필요한 교육을 두루 반영하고, 2년 후에는 박사과정도 개설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중·일 3국 불교계의 우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8일부터 서울 봉은사와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려, 테러에 의한 인명살상과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3국 불교화경사진전시회 등을 갖고 29일 폐막했다.

이번 서울대회는 지난 9.11 뉴욕 테러, 10월 12일 발리섬 테러 사태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와 전쟁에 대해 세 나라 불교계 지도자들이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0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주최한 환영 오찬장에서 3국 불교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수행체험단 교환등 합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 폐막

국제 분쟁·테러 방지 3국 불교계 협력

황금유대 강화 위한 교류 확대…내년 대회 일본서

29일 강남 봉은사 미륵대불 광장에서 열린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에서 3국 대표들은 불교의 자비사상이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3개국어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한국대표측은 이에 앞서 28일 잠실 롯데호텔서 열린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서 2003년도 한중 불교수행체험단 교류사업을 내년도 9월경에 실시하는 것과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한일 대표단 성지순례, 환경 사진 일본 운송문제 등의 교류사업 등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3국 지도자들은 황금유대 강화를 위한 교류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했다.

3국 지도자들은 '인류 평화창조와 불법'이란 주제로 29일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 인류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대표 지하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은 기조강연에서 "테러와 전쟁 등으로 세계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교는 자비와 조화를 통해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는 만큼 3국의 불교가 더욱 협력해 온 인류가 평화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 성호이(聖輝) 스님도 "어떠한 형태의 암살 행위, 테러, 전쟁, 폭력, 국제분쟁이든 인류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부처님의 자비 평등, 양보, 관용의 사상으로 국제간의 전쟁과 분쟁해결에 3국 불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대표로 나선 야스다 에인(安田 暎彬) 스님도 보살행의 실천이 인류평화의 창조에 공헌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기조강연을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정대 종단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20개 종단 190여명이 참가하고, 중국은 성호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130명, 일본은 고바야시 류우소(小林 隆彰) 일중한국제불교협의회 이사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80명과 참관단 등 총 700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독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이버 포교사

1.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없다
2.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종단이 시험 후 자격증 발급 ③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출 ③자율 활동에 맡겨야

설문 참여: 11월 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5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신문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2003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 과정 및 학과

과 정	학 과	전 공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 -. 역경 -. 실천불교(포교사회)

2. 모집인원 : 불교학과 20명
—. 불교 전공 약간명
—. 역경 전공 약간명
—. 실천불교(포교사회) 전공 약간명

3.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단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4.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02. 11. 6(수) ~ 11. 13(수) 17:00까지 (대학원 교무과)
2) 원서 접수 : 2002. 11. 6(수) ~ 11. 13(수) 17:00까지 (대학원 교무과)
3) 전 형 일 : 2002. 11. 21(목) 14 : 00
4) 합격자 발표 : 2002. 12. 2(월) 11 : 00
5) 등록 기간 : 2002. 12. 11(수) ~ 12. 13(금)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대기실 - 김포학사 강의동(지혜관) 203호
면접 고사실 - 김포학사 강의동(지혜관) 205호
2) 시간 : 2002. 11. 21(목) 14 : 00 시행

6.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1부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 1부
4) 승적증명서 (3개월 이내) ——— 1부
5) 최종 수계증 사본 ———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후, 2003. 2. 28(금)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 무료 배부
2) 전형료 : 40,000원

8. 사정원칙 :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없이 전형 미응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에서 결정함.

9.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10.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무과
전화 : 031)980-7777(내선 : 7716) FAX : 031) 980-7778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교내·외 장학금 지급

공사현의 비구니스님 폭행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때 일어난 비구니 스님 폭행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비구니 스님을 폭행한 사건이 두차례나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차 폭행은 10월 29일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와 성북구 사암연합회(회장 정수), 미타사 신도회(회장 장소님) 등 1000여명이 미타사 앞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타사 총무 설봉스님이 31일 폭행당한 후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 간이침대에 누워있다.

미타사 스님에 물뿌리고 승복찢어, 머리·다리 구타

오전 8시 30분 경 스님과 신도들이 건설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시작하자 현장 인부들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과 총무 스님들이 호수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지 스님의 장삼과 총무 스님의 고의(바지)가 찢어졌다.

2차 폭행은 10월 31일 건설현장에 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전 9시 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명예회장 정세영)측이 건설현장 정문 우측 담을 헐고 건설 자재를 들여놓았다. 이를 목격한 스님 및 신도들이 공사 중지를 위해 건설 현장에 들어가자 현대건설측이 채증을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미타사 총무 설봉 스님과 정민 스님, 동묘 스님들이 현장 인부들에게 머리와 팔, 다리 등을 구타당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두 사건과 관련 "29일 사건은 스님들에게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공사장 먼지 제거를 위해 한 것"이며 "31일 사건은 스님들끼리 엉켜 넘어져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 설봉 스님은 현재 4주 진단을 받고 미타사 인근 새서울 중앙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설봉 스님을 비롯한 미타사 스님들은 31일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에 의해 공사방해로 고발을 당한 상태며, 미타사측도 폭행 당사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또한 미타사측은 31일 정세영 회장 집고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수 스님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승복을 찢으며 스님들을 폭행한 것은 불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타사 문제는 1997년 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이 대웅전 앞에 11층 까지만 건립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15층까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환경분쟁이 시작됐다. 미타사는 지난 9월부터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조합측과 시공사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결국 공사방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본지 389호 4면 기사참조)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지도법사단 구성 첫번째 목표"

대불청중앙회 정상옥 신임 회장



재정확충·회원 확대·조직활성화 주력

"대불청 10년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27일 대전불교회관에서 열린 대한불교청년회 제45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2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정상옥(44 사진) 회장. 정 회장은 전국 15개 지회를 거느린 대불청 활성화를 회장 임기 2년의 목표로 잡았다.

"법사가 없어서 지회에서 법회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스님과 교수 불자들, 대불청 선배들과 함께 지도법사단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불청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조직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기법회의 꾸준한 개최가 열쇠라는 것이다.

"대불청 회원이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 제대자 포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회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군인들에 대한 불교 포교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군 제대자에 대한 포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불청 재정확충 사업도 주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100인 1백만원 결사 등 기금 모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재정이 마련되어야 지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종단의 적극적인 후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유신 기자

'아프간난민돕기' 온정 줄이어

의류·현금 답지, 11월말 칸다하르지역 유민등 지원

수십년간의 내전과 외침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온정이 줄이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겨울철을 맞아 월동준비가 부족한 난민들을 위해 하이탑(대표 박석호)과 포메이트 무역(대표 박차한)에서 각각 15만점와 5만점의 의류를 한국JTS(이사장 법륜)에 기증했다. 또한 정토회(대표 유수) 전국 7개 지회에서도 5톤 탑차 2트럭분의 의류를 모아 1차 겨울나기 지원에 보탬이 됐다.

1차 겨울나기 지원 물품은 1일 부산에서 출발해 23일 파키스탄 카라치에 도착, 11월 말경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교에 5만점, 칸다하르 지역 자국내 유민 캠프에 15만점 등으로 분배한다.

박차한 대표는 "우연히 법륜 스님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발심을 했다"며 "마음에는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시하는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도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교의 파르자 지역 카산드라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10000달러(한화 1250만원 상당)를 한국JTS에 기증했다.

정우 스님은 "오랜 내전과 미군의 폭격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이 되살아나기 위해선 교육이 우선"이라며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기억이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박지나 JTS이사, 선주법사, 유정길 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실무자로 파견되어 있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총장 이사회서 선임"

동국학원이사회, 교수회에 입장전달

동국대 제 15대 총장선출과 관련 교수회가 4명의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학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녹원)가 25일 교수회에 "총장선출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할 방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국학원 법인이사회는 이 공문에서 "동국학원 정관 43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토록 돼 있는 만큼 총장을 선임할 방침"이라며 "교수들은 본연의 임무인 학생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교수회 박종훈 회장은 "법인이사회에서 보낸 공문에는 총장선거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며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총장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사찰 초청강연 러시

조계사, 현각스님 초청법회

도선사, 도올 김용옥 강연회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청담대종사 탄신100주년기념 도올 김용옥 초청 대강연회를 연다. '21세기와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7일 오후 1시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청담대종사의 사상이 한국불교에 미친영향과 일화, 21세기 한국불교의 역할등이 집중 조명된다. 문의 02) 993-3161.

조계사(주지 지홍)는 9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문의 02)720-1390 김원우기자

동산반야회 20주년 법회

기도 중심에서 교리 중심으로 신행활동을 이끌어 온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16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기념법회는 1부에서 '동산을 빛낸 108인'을 선정해 발표한다. 또 창립 20주년을 뒤돌아보며 '재가불교의 새로운 비전 제시'도 한다.

2부 친교의 시간에 이어 3부에서는 동산반야회 출신인 김흥국 씨 등 불자 연예인들이 나와 화합 한마당을 펼친다.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동산반야회 걸어온 길(20년사)'이란 책자도 발간된다.

남동우 기자



◇10월26일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관계자들이 부산시청앞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노선변경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정·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노선변경 대선공약채택 촉구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10월26일 부산시청앞에서 대선후보들이 노선변경을 공약 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종석 경실련 공동대표, 정여스님, 지율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시민종교대책위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아파트단지 지하를 지나는 등 안전과 환경영향평가 등이 미비한 현 노선이 변경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종교대책위는 같은 시각 26층에서 후원회 행사를 열고 있던 이회창 대통령 후보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경들의 과잉진압으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공동집행위원장 도관스님은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이처럼 과잉 진압을 하는것은 시님들과 종교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지율스님은 계속적인 집회와 행사에도 고속철 공사 강행 움직임이 보이자 3일 양산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자전거와 택시 거리 행진 시위를 벌이는 한편, 부산에 도착한 후, 연산동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천미희 기자

선거와 돈 / 목탁소리 / 주택조합의 거짓말

10월31일 낮 1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직할교구 선거를 위해 선거권자(투표인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선거권자만 860여명에 모두 4명의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출마자가 8명이나 됐고, 그런 만큼 적지 않은 자금(?)이 풀렸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한 스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더니, 그 스님은 "적게 쓴 스님은 2억원 정도, 많게는 6억원 정도를 쓴 스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스님은 "받기는 했는데 누굴 찍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다른 스님은 "종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권속들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또 자금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3당2락'이라는 해괴한 말도 흘러나왔다. '3억을 쓰면 당선되고, 2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것이다. 헛소문이라고 무시해 버리기에는 웬지 씁쓰레하다. 왜 이런 '돈소문'이 선거가 거듭될수록 자꾸 나오는 걸까.

물론 출마자들 모두가 선거자금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돈 봉투 따라 투표한 사람도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다른 한쪽에서 돈을 쓰면 이쪽에서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자의든 타의든 상당수의 출마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선거날 들은 세 스님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님들 선거에서 돈이 오간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돈얘기'가 근본적으로 나올수 없도록 종단에서 스님들의 의식과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 탑골승방 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가 한 주택재개발 조합측의 거짓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건은 1997년 9월 천년고찰인 미타사 앞 25m 전방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착공 당시 보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지원, 안암동 영암교회 장로)측은 미타사에 대웅전 전면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15층짜리(103동) 건물을 대웅전 조망라인 바깥에 배치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기존 계획을 변경, 7층이던 엘리베이터 허가가 나지 않아 11층 건물로 세우면 어떻겠냐고 주지 스님에게 의견을 물었다. 주지 스님은 노약자들이 7층까지 걸어서 오르내리기엔 너무 힘들것 같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는데 조망권이나 일조권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승낙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주지 스님에게 일언반구 없이 1998년 6월, 6번의 설계변경 끝에 15층짜리 건물을 미타사 정면으로 배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주지 스님은 그것도 모르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다. 공사관계자에게도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잘 지어달라며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은 103동이 13층까지 올라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세상물정 모르고 수행만 하던 스님들만 망연자실한 상태다. 현재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한 주지 스님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주지직 사퇴서를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했다.

현직 개신교 장로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 측의 거짓말로 스님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종교간 불신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

남동우 기자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화방동산' · '붓다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최근 잇달아 개원

"여생을 부처님품에서 편안하게"



◇외롭고 소외된 무의탁 노인을 위해 쌍계사 본 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경남 남해 화방동산이 10월 30일 개원했다. 개원식에서 기뻐하는 원장 효천스님과 노인불자들.



◇화방동산 개원식에서 풍물을 치며 즐거워하는 노인들.

화방복지원이 불교의 자비, 보시, 보은, 보살 정신을 실현코자 마련한 쉼터로 2만6천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820평 규모로 30일 1차 생활동 준공식을 가졌다. 총 32억원의 비용을 들여 건립된 화방동산은 법당을 비롯, 황토찜질방, 물리치료실, 영상스크린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146명 노인들에게 24시간 간호사 대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50여 노인이 입소해 있으며 효천스님을 비롯, 사회복지사 1급인 법수스님, 김옥점 간호조무사, 이성형 사무국장 등 20여명의 직원들이 아들 딸 노릇을 하고 있다. 특히 남해 지역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재가동'과 스님들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한다.

화방동산 개원과 함께 불교계 노인복지 참여와 관심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붓다의 집, 감로당, 울산노인요양원등 전문요양시설의 개원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노인복지 본궤도에 올라

10월 12일 대구 사회복지법인 감천(대표이사 오정)이 무료 전문노인요양기관인 '붓다의 집'을 개원해 현재 20 여명이 입소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 연면적 34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물리치료실, 의무실, 야외공연장, 장애편의시설 등을 갖춘 붓다의 집은 건강체조, 풍물 및 텃밭가꾸기 등으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10월 8일 안성에 70명의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감로당을 준공했다. 감로당은 단기보호시설, 명상실, 진료실, 이 · 미용시설 등 현대식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야외 잔디공원, 야외무대 등을 조성해 노인들의 휴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수원포교원이 서호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수원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회관은 연건평 960평에 물리치료실, 주간노인보호실, 수영장등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지역노인들의 휴양과 정서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

이처럼 불교노인전문요양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해)이 최근 사회복지법인 '좋은 인연'을 설립, 노인복지를 위주로 한 복지관 운영 계획을 밝혔다. 11월 3일 개원한 영남불교대학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4백평 규모로 노인휴게실, 탁아방,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게 된다.

휴양 · 정서 안정에 큰 역할

〈아함경〉에는 "의식을 제공함은 하품의 효양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은 상품의 효양"이라고 했다. 화방동산, 붓다의 집, 감로당 등 최근 문을 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음은 물론 많은 불제자들이 상품의 효양을 행할 수 있는 실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영남불교대 사회복지법인 '좋은인연'이 3일 대구에 개원한 불교복지관. 노인대상으로 각 복지활동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엔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불교계가 최근 '화방동산', '붓다의 집', '연꽃마을 감로당' '서호노인복지회관' 등 무료 요양및 복지시설들을 잇달아 개원하며 노인복지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전문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최근 개원된 노인전문요양시설들은 활발하게 운영돼 오고있는 불교계의 다른 노인시설들과 더불어 불교 자비사상을 근간으로 '효(孝)의 사회화' 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다.



◇대구 '붓다의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화방동산 생활동 준공…146명에게 의료서비스

붓다의 집 물리치료실·텃밭가꾸기등 취미기회

감로당 단기보호시설, 명상실·이 미용실 갖춰

"아들스님이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시끄러웠죠? '아들스님'이 이제부터 정말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10월 30일,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을 비롯 3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남해 화방동산의 개원식을 마친 원장 효천스님이 할머니들의 방을 찾았다. 개원식 행사로 분주했던 오전동안, 어르신들이 느꼈을 불편을 걱정한 것이다.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노인들을 보듬는 모습이 마치 친아들처럼 다정스럽다. "이제 아들스님은 물론, 많은 딸, 아들이 생겼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라"는 효천스님의 말에 고단하고 외로운 삶의 그늘을 떨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화방동산은 외롭고 소외된 무의탁 노인을 위해 쌍계사 본 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료 노인요양시설이다. 사회복지법인 효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11월부터 도시락 배달, 의류세탁 등의 재가 복지서비스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연차적으로 화방동산 인근에 지역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부산 내원정사 야생화 꽃밭과 농장에 가면, 잡초를 뽑고 농작물을 가꾸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늘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내원시니어클럽' 회원들이다. '시니어클럽'이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노인자활 후견기관으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노인복지 영역이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10월 8일 준공한 경기도 안성 감로당 전경.

노인 경제자립 지원...시니어클럽

50세이상에 일터 · 여가 · 봉사 기회 제공

농작물재배 · 떡방앗간 · 택배등 수익사업

불교계에서 부산의 내원시니어클럽, 금정지역시니어클럽, 대구의 햇빛시니어클럽 등이 노인복지의 특화 프로그램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노인복지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50대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에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일터이자 여가를 활용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니어클럽 회원들은 농작물을 재배해 법회 때 일일장터를 열어 그 수익으로 용돈을 벌수 있다. 또 떡방아간, 택배 및 용역사업 등 기존 업체와 연계한 취업도 가능하다. 수익형 사업 외에도 노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노인전용 전화상담실, 주말농장 학습장 운영, 중 노년층 동아리 활동 지원, 각종 안내 등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수 있는 활동영역은 무한대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곱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직선·직능)

직선직

제1교구 직할



동광(초선)
73년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도선사 주지,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효림(초선)
89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16안거 성만, 동해 삼화사.



지만(재선)
75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비구계, 강화 보문사 주지.



지현(재선)
75년 범어사서 소천스님 계사로 구족계, 경북 청량사 주지.

제2교구 용주사



성직(초선)
76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화성 만의사 주지.



성월(초선)
79년 봉선사에서 월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총무원 재무부장.

제3교구 신흥사



정휴(6선)
64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구미 해운사 주지.

제4교구 월정사



도완(재선)
79년 통도사서 청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영월 법흥사 주지.



정념(재선)
85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비구계, 오대산 상원사 주지.

제5교구 법주사



원담(재선)
78년 범어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청주불교방송 본부장.



진구(재선)
85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청주불교방송 사장, 영동 금성사 주지.

제6교구 마곡사



장곡(3선)
75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6안거 성만, 공주 갑사 주지.



탄우(재선)
79년 백양사서 서옹스님 계사로 구족계, 5안거 성만, 논산 관촉사 주지.

제7교구 수덕사



선광(재선)
72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서산 개심사 주지.



인행(3선)
80년 수덕사서 월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덕사 초림초당.

제8교구 직지사



법등(5선)
74년 직지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구미 도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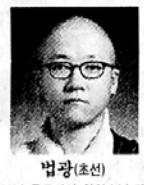


법보(재선)
78년 범어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5안거 성만, 서울 삼성암 주지.

제9교구 동화사



혜승(초선)
76년 쌍계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경주 길상사 주지.



법광(초선)
80년 통도사서 청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안동 법흥사 주지.

제10교구 은해사



장적(재선)
79년 해인사서 일타스님 계사로 구족계, 경산 안흥사 주지.

제11교구 불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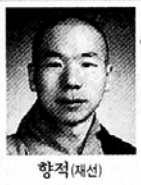


장주(재선)
70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오어사 주지.



종광(3선)
71년 해인사에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5안거 성만, 경주 기림사 주지.

제12교구 해인사



향적(재선)
71년 해인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5안거 성만,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현응(재선)
74년 해인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79년 해인강원 중강, 해인사 홍제암.



선각(재선)
94년 범어사서 일타스님 계사로 구족계, 17안거 성만.

제13교구 쌍계사



정인(3선)
75년 쌍계사서 고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중앙승가대 교수, 창원 봉지사 주지.

제14교구 범어사



상운(초선)
75년 범어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포교원 포교부장, 진해 정암사 주지.



원정(초선)
75년 범어사서 구족계, 창원 성주사 주지.

제15교구 통도사



지준(초선)
78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강사.



도문(초선)
97년 통도사서 구족계, 밀양 무봉사 주지.

제16교구 고운사



설송(3선)
78년 해인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경산 선본사 주지.



법조(재선)
63년 해인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고운사 주지, 경북경찰청 경승실장.

제17교구 금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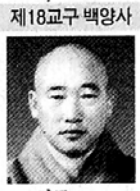


일화(초선)
80년 해인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총무원 사회부장.



원행(3선)
85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무주 안국사 주지.

제18교구 백양사



현공(초선)
84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해남 미황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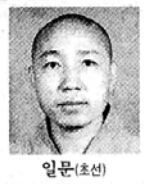


의연(초선)
85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무량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

제19교구 화엄사



진만(3선)
74년 부산 범어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고양 상운사 주지.



일문(초선)
88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파주 보광사 주지.

제21교구 송광사



무자(초선)
80년 송광사서 구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창원 길상사 주지.

제22교구 대흥사



보선(재선)
72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15안거 성만, 전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재선)
80년 해인사서 서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중앙승가대학 총무처장.

제23교구 관음사

중원(4선)
68년 범어사서 구족계, 전 제주 관음사 주지, 정토신문 발행인.

광조(재선)
75년 해인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상주 상락사 주지.

제24교구 선운사

법경(초선)
75년 백양사서 서옹스님 계사로 구족계, 8안거 성만, 성남 기원정사 주지.

제25교구 봉선사

혜림(초선)
86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5안거 성만, 동두천 자재암 주지.

초격(초선)
98년 통도사서 청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가평 현등사 주지.

성국(초선)
83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8안거 성만, 도솔암 주지.

혜원(재선)
74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5안거 성만, 통도사 주지.

원택(재선)
74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20안거 성만, 총무원 총무부장.

강원

학담(3선)
77년 범어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종훈(재선)
74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

지하(8선)
70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98년 중앙승가대 총장, 제12대 중앙종회 의장.

청화(3선)
72년 해인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춘천 청평사 주지.

율원

지욱(재선)
79년 쌍계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조계종 고시위원 및 극락사 주지.

정문(재선)
80년 쌍계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불국사 기획국장.

선원

포교

지홍(3선)
74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조계사 주지.

직능직

사회

도각(재선)
82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서울 사자암 주지.

정안(초선)
85년 범어사서 혜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경남 창녕 관룡사 주지.

복지

영담(4선)
73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불교신문 사장, 부천 석왕사 주지.

종삼(재선)
79년 범어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여수 향일암 주지.

문화

영배(3선)
71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동국학원 이사, 서울 약사사 주지.

토진(초선)
86년 해인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남양주 성관사 주지.

법제

장윤(5선)
70년 해인사서 일타스님 계사로 구족계, 학교법인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장.

법안(3선)
83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서울 금선사 주지.

행정

자승(3선)
74년 범어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4안거 성만, 관악산 연주암 주지.

도공(재선)
74년 법주사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 청주불교방송사장, 천암사 주지.

비구니

수현(3선)
66년 해인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군포매화복지관 관장.

정성(초선)
69년 선학원서 일타스님 계사로 구족계,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대성사 주지.

도문(재선)
61년 통도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20안거 성만, 울산 석남사.

운달(재선)
68년 청룡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2안거 성만, 공주 미타암 주지.

홍윤(재선)
69년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84년 성라암 주지, 청도 운문사 주지.

본각(3선)
77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중앙승가대 교수, 금장사 주지.

혜원(초선)
79년 송광사서 구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계호(재선)
78년 해인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10하안거 성만, 강원 횡성 보광사 주지

경륜(재선)
77년 통도사서 월하스님 계사로 구족계, 7안거 성만, 서울 석불사 주지.

혜원(초선)
87년 범어사서 자운스님 계사로 구족계, 한마음선원 주지.

天下名品

수정은 예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品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天下名品 名 品

天下一品 (19cm)
판 매 가 : 200만원
특별판매가 : 45만원
(용발침대 : 5만원 별도)

名 品 (10cm)
판 매 가 : 33만원
특별판매가 : 25만원

♣ 수정구 사용법
·명상수련 · 예언,예측수련
·氣건강수련 · 소원성취
·인사청통 · 복부풀기 · 명기풀기
·차크라수련

50억년 전에 생성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예언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 일찍부터 첨성가들은 수정구로 예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분 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수맥, 명당찾기전자로드, 피라미드, 파워봉

수맥, 온천,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 전자로드(1Set) : 350,000원
· 전자로드(1개) : 180,000원
· 허리요통대 : 80,000원
· 수정주 : 45,000원
· 순동L로드 : 40,000원
· 피라미드 : 350,000원
· 파워봉 : 80,000원

韓國氣研究院
☎ 02) 455-6944

- 참나무 목초 수액시트 -

발건강법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수험생, 산후조리
- 손, 발, 어깨, 무릎, 허리가 상쾌해집니다

지원납품처 경희한방 병원원목실, 광시한의원, 현대의원, 태웅한의원, 그랜드악국

배꼽다이어트 탄씰 ★수입완제품 ★일본大히트!!!

⊙일본에서 매월 6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이화박사 "사카이 미쯔루" 증언
⊙배변원활, 체중감소, 허리날씬, 냉증

정가 : 69,000원

간단히 배꼽에 부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배변이 원활합니다.

♣500분에 한하여
수액시트 2BOX(160,000원)를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별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 02) 453-5851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가 아닙니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

일주문



불교정보화협의회 창립법회

현성 불교정보화협의회장은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정보화협의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대구불교방송 6돌 행사

성타 대구불교방송 사장은 방송국 개국 6주년 기념 및 축하 행사를 11일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정인의 날 대통령 표창

성운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은 10월 28일 제1회 교정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미계 수계법회 봉행

혜정 일승종 총무원장은 10월 26일 구리시 삼봉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운문사 제14대 주지 취임

흥륜 前 운문승가대학 학감 스님은 5일 제14대 청도 운문사 주지에 취임했다. 전 주지 혜은 스님은 문수선원 선원장을 맡게 된다.



노천 지장보살상 봉안

영운 경주 복원사 주지는 10월 27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천 지장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14일 성보사 이전법회

영인 성남 성보사 주지는 14일 오전 10시 대승종 총무원장 일오스님을 초청하여 성보사 이전 개산 법회를 봉행한다.



'부부문제 세미나' 강연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7일 조계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부부문제 세미나' 주제강연회를 갖는다.



제7회 명원치문화상 수상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에서 수여하는 제7회 명원치문화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부 장관 표창패 받아

김윤세 월간 〈신도불이〉 발행인은 잡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일 잡지의 날을 맞아 문화부 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신입회원 이렇게 도와요

친구 대하듯 신행경험 등 나눠 성북승무사무소

기본교육…차근차근 자리잡게 전남도청불자회

합장주 선물 · 자긍심 갖게 배려 우리은행 불자회

전담 관리임원 두고 교육 철저 한전본사 반야회

3일,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 회원들은 9월 가입한 한 회원의 가정을 방문했다. 집들이를 겸한 이날 방문의 목적은 신행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아 어색함을 빨리 떨치는 것.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행경험을 들려주고 나이 고하를 떠나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했다. 신입회원의 가정방문을 돕고 있는 승만부인회의 신입회원 관리 비결이다.

법우회는 조그만 일에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자상함으로 신입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월도청불교단체협의회 연합행사 때에는 신입회원들이 반드시 참가하도록 1대1로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신입회원들에게 소속감과 불심을 심어주기 위한 직장단체들의 '관리 비결'은 다양하다. 사찰예절과 순례를 실시하는가 하면 불자소양교육, 불서 선물 등 물량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신입회원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어색함을 떨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편이다.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는 신입회원의 신심을 키워주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금요일 불교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은 60여명으로, 호응도가 높다. 강사진은 광주 향림사의 도움을 받아 구성했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도 와서 강의를 듣고 있다. 전남도청불교회는 신입 회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모은 책과 입문서를 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각 지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얼굴을 익히는 일이 쉽지 않은 우리은행 불자회는 한달에 한번 열리는 법회 때 새 법우에 대한 소개와 환영가를 부르는 가운데 지도법사가 합장주를 걸어주는 약식 환영회를 열고있다. 매년 한차례 열고 있는 수계식도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리다. 현동관 부회장은 "신입회원 스스로 불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정신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전본사 반야회는 신입회원들의 신행지도를 맡는 임원을 따로 두어 철저한 입문교육을 시킨다. 이순형 구도부장 주관으로 9~10월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3배하는 법, 불자예절, 사찰에 깃든 의미, 불교상식 등 초보회원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 참가했던 6명의 신입회원들은 10월 법회에 참석, "법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도 의식이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진실한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군 예비역 불자회 8일 창립

회장 이석복 장군, 군불교 총신도회와 연계 활동

전역한 직업군인들이 정기적인 법회를 열어 신행활동을 하고 현역 군인들을 지원할 예비역 불자회가 된다.

예비역 불자회 임원진은 회장에 이석복 장군(전 연합사 부참모장), 부회장에 조남진 장군(전 군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총무 서진수 박사(재향군인회 사업부장), 고문에 윤종화 장군(전 군수차관보) · 신말업 장군(전 3군사령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육 · 해 · 공군 하사관부터 장군까지 회원으로 하는 예비역 불자회는 전국 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전 군승단장인 자광스님을 지도법사로 한다. 또한 매월 정기법회 개최, 연말 전방부대 위문 방문 등 군불교총신도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석복 회장은 "불자들이 현역 시절에도 적극적인 신행 및 포교활동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며 "예비역 불자회 창립을 계기로 예비역 불자들의 신행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현역 불자들의 활동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법회는 8일 오후 6시 30분 국방부 법당인 호국 원광사에서 열리며, 불자회 사무실은 호국 원광사 1층에 마련된다.

남동우 기자

경남공무원불자련 보리암서 창립1돌 법회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는 9~10일 남해 보리암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법회와 신행간담회, 108예참기도, 새벽예불, 1보1배, 금산 산행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에는 전 쌍계사 주지 통광스님을 비롯해 경남도청 불자회와 20개 시 · 군 공무원불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창립한 경남공불련은 1년 동안 창원, 마산, 김해, 함안, 남해, 합천 등 9개 시 · 군청 불자회 창립을 주도, 경남지역 모든 시 · 군에 공무원불자회를 결성했다. 또 1천여 경남공무원불자들의 단결과 교류를 이끌었으며, 공무원불자회 결성바람을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단초가 됐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서울병원불자회가 창립 2주년과 10주년을 맞아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병불련 2돌 · 서울병원불자회 10돌 법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국립서울병원 대강당에서 2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10주년을 맞은 서울병원 불자회와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는 병원불자연합회 소속 국립의료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경찰병원, 한일병원, 경희의료원, 보훈병원 등 10개 병원 지도법사단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5개 병원 불자회가 참여해 99년 10월 창립한 병원불자연합회는 2년만에 19개 병원이 가담하는 전국조직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두차례 농촌 · 양로시설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자비인술을 펼쳐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불자회는요

현대석유화학 현불회

현불회는 충남 서산 대산단지내 LG화학, 사이쓰 대산코리아, 현대중공업 복합화력, 현대석유화학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현대석유화학 한 회사였는데, IMF 사태로 인해 분사와 매각을 거듭하면서 회원들도 소속을 달리하게 되었지요. 비록 회사는 나뉘었지만, 회원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 한 울타리내에서 함께 불심을 닦고 있습니다. 현불회라는 이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지요. 조흥은행 직원 2명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가족체육대회 때에는 비가 내리던 와중에도 아이들과 회원들의 부인들이 어찌나 열심히 축구경기를 하던지 참가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최근에는 좀 더 성숙한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들의 믿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요. 그래서 친목적인 성격이 강한 현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가



◇현대석유화학 현불회원들이 서산 해일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 · 성지순례 · 체육대회 회원가족 함께
믿음 깊고 넓게 하기위한 실천행에 주력

1995년 8월에 창립됐으니까 현불회는 이제 7살이 되었네요. 빠르게 변하는 회사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단결된 모습으로 법회와 모임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회원이 69명으로 늘어난 것도 매주 법회를 여는 등 창립 회원들의 꾸준한 신행과 포교활동으로 얻은 결과지요. 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신행활동이나 회원들간 단합,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불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에 가족이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 있는 점입니다. 가족이 직장법회에 가담함으로써 직장내 불교활동으로 인한 오해도 줄일 수 있고, 분위기도 더욱 활기를 띠게 족에서 이웃으로' 신행의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니까요.

다음에는 회원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큰스님 초청법회를 준비하고 있지요. 부처님 4대명절에는 1080배를 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큰스님 초청법회는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비용이나 회원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성사되지 않아 회원들이 많이 아쉬워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은 장소 마련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큰스님 초청법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천광호 총무(공무관리팀)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동산불교 창립 20주년 기념

불교교육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하여 한국 재가불교의 외길을 걸어온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이 동산창립 20주년을 맞아 교계 사부대중을 초청하여 그 뜻을 기리고, 향후 재가불교운동의 비전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 행사
▶일 시- 2002년 11월 16일(토) 오후6시
▶장 소-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중구 소공동)
▶내 용- 1부:20주년 기념행사
2부:다과 및 저녁공양
3부:축하연
▶문 의-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합장
동산불교대학 법주 무진장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목어

테러와 똑같은 진압



테러는 잘못된 인간집단의 공업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한다. 이번 러시아에서 일어난 인질테러 사건도 그 극한적인 대치 상황과 러시아 정부의 강경진압에 이르기까지, 어떤 비극 영화보다도 더 진하게 온 세계를 당혹과 경악, 그리고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어떤 목적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테러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일단 어떤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비극의 참상을 목도한 여론은 테러에 대한 비난에 한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용인되고 지지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된다. 이번 테러사건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진압방식에도 비난이 쏟아지기는 하는 편이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테러 방지나 진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테러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러한 방식을 용인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고방식에 따른 수많은 테러들을 낳게 되지 않을까?

테러는 어떤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나 사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느끼는 집단들이 동원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그 구조나 사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힘이 너무도 강하며, 또 자신들이 놓인 부당한 처지에 대한 호소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절망이 낳는 단말마적인 몸부림인 경우가 많다. 단지 죄없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요구하는 비참한 결과만 보고 또다시 그 몸부림을 외면하면 그들은 더더욱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되지 않을까?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 사태는 오랜 기간 쌓여와 얽히고 설킨 근본적인 모순이 바닥에 깔려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선뜻 어떤 편도 들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테러밖에 동원할 수단이 없다고 느끼는 절망적인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우선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느낌이야말로 극단적이고 단말마적인 몸부림으로 치달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선의 방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최성렬
조선대 교수
철학과

언어구사 기성세대부터 제대로

"하루 평균 6시간59분 공부, 4시간24분 여가 활동, 일주일에 10시간30분 인터넷 접속,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3만1천4백원, 79%가 가출 충동 경험 …."

10월 23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청소년 보호 백서〉에 나타난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이다. 언뜻 봐서는 그리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 · 학교 · 사회, 모두가 그들을 제대로 이끌기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교감이 부족하고, 선생님과의 신뢰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사회환경도 음주와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PC방(95%), 전자오락실(91%), 노래방(89%) 등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학교 폭력, 왕따, 교실 붕괴현상, 각종 비행 등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여간 머리 무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이다. 고교생의 22%는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하루에 1분도 안 된다. 그렇다고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고작 1분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이 11%나 된다. 또, 열 명의 중학생 가운데 한 명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사의 불신(70%), 지나친 꾸지람(80%), 불필요한 체벌(75%), 수업능력 부족(81%) 등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희망이라는 우리의 청소년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입시지옥 때문이라고 하든 대화문화의 빈곤이라고 하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거시적 안목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희망과 절망은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인 것은 정말 다행이다.

고교생의 89%는 "사회가 불만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노력에 따라 장래에 성공할 수 있다"(90%)거나, "한국인이란 사실이 만족스럽다"(67%)는 등 정신적 건강함을 잃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나서서 제대로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장래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여왕벌의 알은 따로 없어도 여왕벌로 키우기로 작정하고 큰집에서 로얄제리를 계속 공급해주면 여왕벌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애정과 관심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성적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 하고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간을 호모 로퀜스(Homo loquens : 언어적 인간)라고 한다. 이제 그 위력을 확신해 볼 때가 된 듯 싶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족간이나 사제간의 대화 태도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자식이요 제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언어의 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7%에 불과한데도 우리들은 말의 내용을 너무 고집했던 것은 아닐까? 말의 내용을 언어적 기법이라고 한다면 말투나 억양, 몸짓이나 표정, 자세나 분위기 등은 비언어적 기법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비언어적 기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신행상품



불자들은 '디지털 불경이나 전자목탁 등 신행관련 상품들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4명이 동참한 붓다뉴스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신행관련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78명(68%)이 '편리하므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36명(32%)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행상품들을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1명(71%)가 있다, 33명(29%)이 '없다'고 응답했다.

"널리 보급할 필요 있다" 68%

김두식 기자

독자투고

'아름다움과 깨달음展'을 보고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주최로 서울 가나아트센터(10월 17~28일)에 이어 경주 선재미술관(11월 1~11일)서 열리고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는 여러모로 의의가 크다. 근 현대 미술과 불교와의 관련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 같은 불교미술 전시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다. 이번 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작고작가의 작품 발굴이란 점이다. 근대기에 활동했던 작고 작가의 불교작품을 발굴하여 미술계에 소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계 정종여의 괘불이라든가 오지호의 후불탱화 같은 작품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필자를 강하게 이끈 작품은 바로 정관(井觀) 김복진(1901~1940)선생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1939년)이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시장에서 정관선생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다니, 이는 커다란 안복이 아닐 수 없다.

정관선생은 일제하 활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각가인 것은 물론 미술비평가요, 언론인, 사상운동가다. 현재 미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라는 점만 가지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선구자라 생각한다. 정관선생은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을 비롯 속리산 법주사의 미륵대불 등 다수의 불상을 제작했다. 일반작품이 현존하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의 불상작품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도 불상제작에 임하면서 정관선생의 작가정신을 되새김질한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 예산 수덕사에서 산적이 있다. 당시 원담 큰스님의 옥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하루는 스님께서 정혜사 관음상의 작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관음상의 작가는 바로 김복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성 당시 만공스님의 분부로 거든 일화를 비롯 시주자인 김수곤 일가라든가, 후불탱화의 불모인 보응스님 등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후 필자는 수시로 정혜사에 올라가 김복진의 관음상을 참배하면서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속리산 법주사에서 지내게 되었다. 당시 선방에는 월남큰스님이 계셨다. 스님께서는 청주 용화사 주지로 계실 때 불상조성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바로 김복진에 대한 증언이었다. 1930년대 후반 김복진은 용화사에서 다수의 불상을 제작했다. 1986년 법주사에서 월남스님으로부터 수덕사 산내 암자인 정혜사 관음전의 관음상은 바로 정관선생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정관선생은 법주사 대불 제작 중 짬을 내 만공큰스님의 부탁을 받고 정혜사 보살상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주사 대불의 미완은 이 정혜사 불상을 정관선생의 최후의 완성작으로 남게 했다.

옥중에서도 불상을 깎았던 선생은 출옥 후에도 여러 군데서 불상작품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의 원작은 파괴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이번 정관선생의 정혜사 관음상을 서울 전시장에서 친견할 수 있었으니, 그 감회는 이루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정관선생의 불상작품이 전시된 이번 미전은 불교계는 물론 미술계에서도 획기적인 일이다.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시는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김익홍 (만다라불교미술연구소장)

현대불교를 읽고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기사 '경전 만화' 꿈꾸는 내게 용기

불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원했던 참에 현대불교신문 389호 1면에 보도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이란 기사는 내게 자신감을 주었다. 오계를 범해서 교도소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참불자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불교공부와 신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불보살님들의 일대기, 〈전등록〉 등과 같은 경전을 만화로 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도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만화야 말로 내가 부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믿고, 현재 관련 기사들을 일일이 스크랩 하고 있다. 바깥세상과 차단된 이곳 생활은 좀 더 많은 자료와 그림을 구하기 힘든데다가 내가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부족하다보니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현대불교의 불교콘텐츠 개발 관련 기사는 내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물론 나의 발원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박봉주(원주교도소 수감 중)

이렇게 들었다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 관심을

소외계층 보고서

최저생계비(1인 가구 월 35만원, 4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서울에만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0월 30일 발표한 '서울시 소외계층의 삶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도 약 8만 가구, 17만명이며, 실제로는 이 숫자의 2배 정도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0만명 정도로 이들의 80%이상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건설업이나 영세제조업,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20만원 정도로 한 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올겨울, 이들의 생활이 더욱 힘겨울 것임은 물론이다. 이럴 때 일수록 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대승에 이르러면 네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 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므로 보리(菩提)는 중생에게 딸린 것이다. 화엄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숫타니파타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시고!
신도 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시방세계가 불국정토를 이루옵길 발원하옵니다.
무릉산 일도사에서는 신도님들의 크신 원력으로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일본 신도님들의 정성과 한국 신도 님들의 정성과 한국신도님들의 원력으로 복지도량을 위한 1차 45평 극락보전 상량식과 12m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신도 님들의 가정에 평안하심과 소원 성취를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 아 래 –
◆일 시 : 2002년 11월 16일 토요일 (음력 10월 12일)
◆시 간 : 오전 10 : 00
◆장 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진리 무릉산 일도사
◆연락처 : 영덕 일도사 054)733-8786
서울 자비정사 02)475-8600
부산 팔성관광 051)518-8614
당일 서울 조계사 앞 06:00 출발합니다.

무릉산 일도사(세계 불교 박물관) 합장
협찬 만덕불상 054)241-2402

정통 기문둔갑사주학강의
(사주, 작명, 택일, 단시, 양택풍수학)

정확한 사주명리의 해석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수를 받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 교육방법
원장 민강 손혜림선생 직강
(현)경희대학교사회교육원교수

◎ 개인지도 : 개인의 특성과 시간에 맞춘 속성특수지도
◎ 그룹지도 : 해당요일 오후 7시30부터 9시까지 (수시접수)
● 월요일 – 초급반(기문조식법과 사주원리론)
● 화요일 – 중급반(사주, 연운, 월운해단법)
● 수요일 – 고급반(작명, 택일, 단시, 양택풍수, 병방)
◎ 출장지도 : 방문직강

문의 : 민강기문역학원 02)3476-3433
서초구 잠원동 69의 20호 반포쇼핑 7동 415호
강남고속터미널건너편 뉴코아본관 옆
http://www.gimu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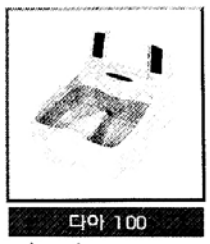
건강마사지 손발 온욕기



수족 온욕이란 수족온욕은 더운물을 용기에 담아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놋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인진(약쑥)명반을 풀어 손과 발을 담그고 넓은 천으로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덮어 두리고 발한을 시켜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감기 몸살을 예방 치료하였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에 증진하였습니다.

다아 200 98,000 → 660,000
선착순 100명에게 게르마늄 광전수 20리터 무료로 드립니다

손발온욕이 꼭 필요하신 분들
■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수술 후 빠른회복과 전이 방지를 원하시는 분
■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피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냉 · 대하로 고생하시는 분
■ 산후조리 중이신 분
■ 심한 스트레스로 고생 하시는 분



다아 100 55,000 → 330,000

■ 실용신안등록증 제 0281998호
■ 의장등록증 제 0250258호 제 0250259호

제조원 : (주)림호산업 LIM HO INDUSTRIAL
판매원 : GE – 코리아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호 502호
전화 : (대) 02)475-6669 팩스 : 02)475-4356
http://www.onyok.com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의사(한의사) 박동관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부종,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주)반도제약수산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위치 : 경기가평	• 위치 : 서울
• 법 당 : 12평	• 법 당 : 15평	• 법 당 : 45평
• 요 사 : 27평	• 요 사 : 4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250평	• 부 지 : 2,000평	• 부 지 : 129평
• 가 액 : 6천	• 가 액 : 13억	• 가 액 : 5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건평 37평(2001년 신축)
- 대지: 400평 , 전 1300평
- 임야: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칠갑산 줄기에 최첨풍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1억 5천

011)434-7209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1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목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삼단 법단 특급시설일체
- 큰방 2개 별채 방 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심야전기 온돌

▶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환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 부지 : 약 만평(임야)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양산 물금
- 부지 : 300평
- 법당 : 18평
- 요사 : 54평
- 가액 : 5억 1천

- 위치 : 부산 중심지
- 부지 : 42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가액 : 15억(평당 350만)

※ 산중턱에 위치 차량진입가능 ※ 양산신도시가 내려다 보임 ※ 양호한 자연석굴 있음
※ 뒤는 소나무로 쌓인 아산 ※ 호포 지하철 종점에서 10분 ※ 신도시 예정지 부근
※ 대단위아파트 입구에 있음 ※ 2차선 도로 접함 전망 양호 ※ 복지시설 포교시설 부지 적지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설팅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방6개)
- 기타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산청, 황매산 서편
- 부지: 약2천평, 군유지 밤산 약 5정보
- 건물 : 신축법당 30평 요사체 2동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최고명당 비구니스님 선원자리 최적
- 가액 : 2억 7천만원

016)836-1329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사찰 운영권 맡겨 주십시오.

011)9859-7425

구운 마늘환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포교당

- 위치 : 일산지하철역 100m
- 법당 : 160평, 요사 방4개
- 보증금 : 전세 1억 8천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도심포교당으로 최고의 위치, 최고의 시설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 대지 : 80평, 법당 40평(3층)
- 요사 30평(1,2층)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오래된 역사의 좋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2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 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포교당안내

- 위치 : 북구 주례1동 첨근콘크리트
- 슬라브조 3층 건물의 2층 35평 삼불 및 지장보살 산신 용왕불 모심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1000만원 월 45만원

051)327-0477
016)594-6959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 723-7449/011) 9638-8229

포교당, 선방, 암자 - 가장 싼 가격에 매각

- 양평 지게 대지 : 330평 건물 : 90평
- 용인 백암 대지 : 180평 건물 : 60평
- 가평 외서 대지 100평 건물 : 48평
- 안양시안양동 18층건물내 2층 40평
- 고양 성사동 7층건물내 5층 430평
- 대지 120평 대지 : 120평 건물 : 30평

여직원 구함, 부동산 경험有, 연령제한 없음

大田이북에 걸쳐 물건을 다량 확보 하였으며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스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대교물산 050)2224-3333

사찰안내

- 경남 함안근교 국도에서 300m에 위치한 사찰로 주지 노병으로 부득이 인수자 구합니다
- 대지 200평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주지실 : 4평, 주차시설완비
- 가액 : 8000만원

※ 성실한 30~40대 보살 가운데 철학을 배워 제자가 될분 구합니다

011)553-3758

포교원 안내

- 위치: 청주(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 평수: 실평 60평, 법당 30평, 큰방 3개, 주방, 샤워실 시설A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43)272-5658

포교당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833-359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 부지 : 160평(종교용지)
- 법당 : 20평(2층)
- 요사 : 30평(1층)
- 가액 : 3억원
- 특징 : 뒤는 신이며 광안리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도심사찰로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 임.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소재
- 부지 : 약 10,000평(전, 대지)
- 법당 : 30평(한옥)
- 가액 : 3억원
- 특징 : 토목공사비만 3억이 소요된 이주 좋은 절터이며 남골당, 십버타운 또는 대작불사를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 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 220평
- 요사채 : 30평 이상
- 법당 : 23평
- 산신각 : 5평
- 공양간 25평,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1)226-2880

사찰(급)안내

- 외치 : 심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흰히 보이고 죄청룡 우백호가 두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 존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골짜기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 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 대지 : 100평,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30만원
- 모두일체 인수인계

011)9233-19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소재(극도변) • 부지 : 대지 1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9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5평(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산신각 및 용왕당, 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외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가능

※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임

- 매가 : 2억5천단원(감정가 1억 5천만원에급)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건물 및 부지 안내

- 위치 : 도봉산 19번 종점에서 도보로 25분거리, 차량 운행시 5분거리
- 대지 : 임야포함 1502평(개인사유지)
- 건물 : 건축물대장 2필지(1필지 28평, 1필지 17평)
  - 현재 식당 25년 운영중임(영업하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찰로 운영할 경우는 재건축 요망
  - 식당으로 운영하실 경우 인수 후 즉시 영업가능
- 가액 : 상담 후 가격 후 절충

연락처 02)955-4785 / 011)399-478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춘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임야 : 2000평
- 대지 : 350평, 법당: 대웅전 14평 요사채 : 30평, 창고 10평 산신각, 용왕각(각 2평)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54)337-5181
011-811-5466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동면
- 건물 : 슬라브 양옥
- 법당(20평) 요사채(30평)
- 대지 : 151평
- 가액 : 1억(절충가능)

054)337-5181
011-811-5466

사찰안내

- 위 치 서울
- 대 지 170평
- 법 당 50평
- 요 사 9평
- 가 액 9억
- 위 치 경북
- 부 지 150평
- 법 당 12평
- 요 사 25평
- 가 액 6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대동(김해시청, 부산구포 15분거리)
- 부지 : 종교용지 526평, 임야 13,350평
- 건물 : 요사체겸(복지관) 스라브 72평, 주택(주지실) 35평
- 법당 목조 10평(큰 법당신축가능) (4년전 증축 총공사비 건물, 옹벽, 도로포장, 심야전기, 위성시설 7억 5천)
- 특징 : 100년된 소나무 고불상 앞 뒤 산 소나무 수려
- 사용 : 기도도량, 실버타운, 침애원, 복지관, 고시원, 독서실, 납골당등 다목적 사용가능
- 시가 : 5억 절충가능(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55)335-6574, 011-704-3338 주인직접 매도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 옥산
- 대지 120평 법당, 요사채,
- 부처님 다섯분 모셔져 있음
- 내부수리 완료, 10년된 사찰, 뒤에 텃밭있음, 조용한 시골동네 입구
- 가액: 4300만원

019)9756-696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등 265-38 덕성빌라 101호 지하철역에서 2분거리, 좌 앞도로 6m접, 주차 10대이상가능
- 평수 : 40평, 즉시법회가능
-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임
- 가액 : 1억 2천만원

051)512-0437
016)574-043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3층건물중 1층 30평)
- 도시가스난방, 주지실, 주방, 샤워실, 완비, 최신시설 주차장완비
- 관세음 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900만원

011)9360-8253

포교당(급)안내

- 위치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5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055)336-5691

♣ 보리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찰 정보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 법당 : 15평
- 요사채 : 50평
- 건평 : 300평
- 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 위치 : 충남 연기군
- 법당 : 20평
- 요사채 : 50평
- 건평 : 종중땅(500평 사용)
- 금강 강변 위치(건물 등기 필)
- 가액 : 4800만원

※ 사찰, 암자, 포교당, 인수할 분 애매하실 분 성실이 도와 드립니다
※ 조용한 사찰에 서 가족적 휴가 보내실 분(기도, 요양, 휴양, 기타 등) 상담 하실 분 성실이 도와드립니다

서울 02)432-5529 충남 041)864-9143 핸드폰 011)99454-9062

사찰 및 별장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옆 원묵계리
- 전: 557평(쾌적한 청정지역)
- 차 진입, 전기해결 사찰이나 별장으로 적합
- 가액: 평당 9만원

017-635-3111
061)2132-3122

사찰터 최상급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 맞은편)
- 대지 : 662평 (건축허가 바로 신축됨)
- 가액: 6억 6천만원

011-805-5934
011-502-4583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20평
- 주차공간 넓고 조경수 심어져 있음,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조정가능)

052)269-4952

사찰안내

- 위치 : 안양시내
- 대지 268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가액 7억 7천(융자가능)
- 안양시내를 관망할 수 있으며 대웅전 불사할 대지터 있음

011)530-197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학동 761 강북 중심상가 신동아A.P.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 건평 4층건물에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 원 80만원
- 시설 삼존불 신중, 지장, 탱화 모심 특 3급 스님해외법명

02)955-6411
011)289-0476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화정동
- 건물 2층건물에 2층 50평
- 미타삼존불 500나한 지장 신중탱화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599-9978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참)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인수원 0543855-6461 021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ch57kr@yahoo.co.kr

포교당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전통 한옥 5칸
- 접집, 고가집
- 대지 78평, 건평 65평
- 큰방 3개, 별채 방3개, 전체수리
- 가액 1억2천7백(융자가능)
-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또는 보살님 답사요망

063)287-848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 건물 : 3층 건물중 2층(40평)
- 석가모니불, 소불108불, 지장, 신중탱화
- 가액: 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 시설비(권리금) 1천700만원

053)636-9306 보광사
011)9598-4193

토굴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용계동
- 대지 : 150평
- 법당 : 30평 방6개
- 지장보살님 봉안
- 가액 : 전세3000만원 연 500만원
- 매월 지장기도 영가천도 법회 위폐 월 500위

053)962-0503
016-502-152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시설 녹지) 2500평
- 가건물 3동
- 신도가구수 5천세대
- 가액 : 10억

011)597-445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200평 이상)
- 건물 : 임법당 10평, 요사 15평
- 특징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8천만원

055)852-4130
011)879-4791

포교당안내

- 위치 : 종로구 종로 5가 182-7번지
- 평수 : 45평,
- 삼존불, 방2개, 법당, 주방

016)207-5610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가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 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청림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영장산 극락도량 **성 보 사**
사찰이전 개산법회
2002년 11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7-149
031)753-3360
주지 영인스님 합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영장산 극락도량 성보사 개산 법회
2002년 11월 14일(음 10월10일)오전10시
성남 수정구 태평2동 3307-149
02)3673-3886 / 011-732-6933
주지 영인 합장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산전리 **무릉산 일도사**
2002년 11월 16일(음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자비정사) 02)475-8600 / 부산 051)518-8614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아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북원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031)641-6311www.wonkyungsa.com

영 가 천 도
영가천도 말이 필요없습니다. 양평 정토사로 오세요.
http://myhome.naver.com/jto3390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 1리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031)771-022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신작법과
우리말이라이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부제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이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작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조용한 산사에서 수행정진
기도하실 스님과 행자
각 1명을 구합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5747
011-722-3418

부전스님 구합니다
▷ 조계종 스님
055)552-5111

사찰운영하실 스님 구함
▷ 경남 창령군 남지읍
011-9801-34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남 천안 광덕면 도인사
041)567-5539

공양주 보살님 구함.(충주)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비구니스님 1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실 분 구합니다
043)855-7127
011-711-7127

공양주 하실분이나 조용한곳에서 기도하실 스님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1-459-328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등명면 구덕리 91-6
054)976-8116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017)260-3310

공양주보살님 및 처사님 모십니다
033)436-6611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평생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살습니다
011)814-6677(운경)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송리산 명상문화센터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명상에
관심있는 분으로
처사 1분 보살님 1분을
모십니다
054)535-0378



사람을 찾습니다
성함 · 범옥균 성별 · 남 나이 56세 키 : 165cm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017-653-1077/011-9723-1043

공양주 보살님 구함
(충주)
▷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043)855-7127
011-711-712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정릉
02)914-6187

직 원 모 집
불교성지순례전문 (주)실크로드 여행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조 건: 여행을 좋아하며 신심있는 불자 남 0명, 여 0명
(주)실크로드 여행사 02)720-9600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참마음 수련 심전 대광사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033)435-3166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명학역 앞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해인서림
www.hoedang.or.kr
02)942-0127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 안내
첫째주 수요일 : 불교교리 및 경전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정토선 염불 정진
셋째주 수요일 : 절수행 강좌 / 청견스님
문의 02)722-1050

감 사 의 말 씀
2002년 10월 27일 영원 **마음의 쉼터 창건 2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해 주시거나 축하를 보내주신모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쉼터 리선행 합장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033)3456-008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갤러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40석) 연중개방
02)737-5586/5568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국제포교사고시 11월 10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류전형, 필기고사와
면접, 종합 연수
접수기한은 11월 1일까지.
02)720-7060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국청회 '천수경 강좌'
동국대 불교대학원교수 정각스님
초청강좌 - 매주 수요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
02)730-1249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
중앙승가대 법연스님 초청강좌
매주 수요일 1시~4시
장소 서울 수서동 회관
02)733-5467



윤 진 공 예
대 표 최윤구
053)954-2410
011-504-8845
701-806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96-1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합장
011)703-9130

조 양 향 단
대 표 박규점
031)571-3091
017-226-6462
471-080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82-6

성 일 양 초
대 표 박정하
053)851-7024
016-568-8000
성일양초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초를 만듭니다.

청동불상 제작 전문
성화불교전시관
02)2209-0080-1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오래된 해소 천식에
효과좋은 토종약초 있습니다
▷ 약사여래포교원
043)645-7604
011-748-7604
011-485-7604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회복,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낙화 (만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승복 · 한복
유 마
서울 종로구 수송동 25-2
02)730-9994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연 지 플 라 워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불자님께 최신형핸드폰을
최고 25%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016-838-1787

현 대 자 동 차
자동차의 모든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011)284-3361



특별합니다!! body wash cream 울 파 소
(천연알소금+1000℃ 약용소금)+키토산(고분자) + α = 합성크림
강력한 살균작용 (비너 독소제거, 노폐물제거, 피부세포재생)
이런분께 권합니다
★ 각질제거, 미백효과
★ 여드름이나 피부트러블로 고생하는 분
★ 주부습진 무좀 아토피성피부염
★ 출산후 부기나 부인병으로 고민하시는 분 탁월한 효과
★ 부부가 같이 쓰시면 부부금슬이 더욱좋아집니다
★ 건성 중성, 지성피부에 다 좋습니다
50g 6개(1set)=25,000원
(고가의 외제품과 비교해 주십시오)
(주)울파소 특판사업부 02)942-5470~1 소장 임현택
사업자등록번호 209-05-88613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49 벤처타운B/D 202호

한국목탄연구소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325-0300

삼환식물성양초
특 징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동성불교사
개금 천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031)575-2532
FAX: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靑雲易學院
02)723-7449

중증의 뇌성마비 딛고 아·태장애인경기 2관왕

소쩍새마을 안명훈군, "부처님이 도왔어요"



◇금메달 2관왕에 오른 안명훈 선수(왼쪽)가 보조자인 소쩍새마을 권철현 교사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훈련 때는 가장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나 봅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한 동생들과 함께 단체전 메달을 따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귀를 기울여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어눌하고 느린 말투로 안명훈(24) 보치아 국가대표팀 선수가 전한 금메달 2관왕에 오른 소감이다.

강원도 원주의 소쩍새마을 가족인 안 선수는 1일 폐막된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소쩍새마을은 또 한번 잔치집같은 기쁨이 넘쳐났다.

뇌성마비 장애인 9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보치아 대표선수 중 가장 신참내기인데다 장애가 심했던 안선수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부위는 머리뿐. 머리에 헬멧을 착용하고 보조기구인 홈통을 사용하는 BC3 종목에 출전했다. 게다가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어 보조자인 권철현(30. 소쩍새마을 생활재활교사)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만 했다. '선수의 또 다른 몸'인 보조자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BC3종목에서 권 코치는

5년 동안 뼈를 깎는 자기와의 싸움

경기통해 세상사는 법 터득 더 기뻐

안 선수의 손과 발이 되어 경기를 함께 했고 일상에선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폈다.

6년 전 소쩍새마을 식구가 된 안 선수는 5년 전 보치아를 시작해, 뱃뱃해진 몸을 가누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지난 여름, 2개월 동안의 합숙훈련 후 근육강직 증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형제 같은 동료들과 권철현 코치, 또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안 선수의 힘겨운 고개짓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권철현 코치는 "메달을 딴 결과보다는 명훈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다는 것이 더욱 기쁘다"며 "소쩍새 마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명훈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아·태장애인경기 지원

불교 서포터즈 '금메달'

11월 1일 폐막된 2002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를 중심으로 보여준 불교계 시민서포터즈 활동이 금메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0일 인도네시아 선수단 35명을 초청, 그랜드호텔에서 만찬과 축하 공연을 펼친 용호복지관을 비롯, 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소속 복지관은 경기 응원, 초청 만찬 등으로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의지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용호복지관에서 베푼 만찬에 참석한 흰다르토 단장을 비롯한 선수들은 한국 전통무용, 가곡 등의 공연을 감상한 후 선수단 전원이 인도네시아 노래로 화답해 정겨운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삼광사(주지 도원)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주목 받았으며 11월 2일 캄보디아와 미얀마 선수단을 삼광사로 초청, 환송법회를 열고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개금복지관은 스리랑카, 공창복지관은 라오스, 금정복지관은 파키스탄, 두송복지관은 마카오, 몰운대복지관은 캄보디아, 불교TV염불공양회는 싱가포르 등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를 불심으로 치루는 주역이 되었다. 천미희기자

日 천태종 와사다 승정 '백제불교 초전지 법성포' 방문

"성역화 불사 동참 1000일 기도 중"

일본 천태종 와사다 에슈 대승정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와 백양사 초청으로 10월 26~27일 장성 백양사와 영광 법성포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 현장 등지를 방문했다.



◇일본 천태종 와사다 대승정 일행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법성포 방문차 10월 26일 백양사를 방문, 백양사 스님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한 일본 천태종을 대표해 내한한 와사다 에슈 대승정은 10월 26일 환영만찬회, 27일 백양사에서 열린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법회, 영광 법성포 성역화사업 현장을 돌아봤다.

와사다 대승정은 "오늘날 일본불교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은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은 은혜가 크다"며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지금 1000일 기도중"이라고 말했다. 와사다 대승정 일행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능엄경·월인석보·장수경언해 등

희귀 고서적 9종 영인본 발행

경북대 출판부(부장 이호철교수)는 10월 30일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월인석보(月印釋譜), 장수경언해(長壽經諺解) 등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한 국내 희귀본 고서적 9종을 영인본으로 펴내 학계와 불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능엄경언해 권1~권5는 세조7년에 부처님 분신사리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간행된 것으로 훈민정음 초기 한국어의 표기법과 어휘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월인석보 권4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한 부처님의 전기로 월인석보 시리즈 중 아직 미발견으로 남아있던 것을 이번에 발굴하여 학계에 처음 공개되며, 능엄경언해 권4와 함께 국보급 자료로 알려져 있다.

장수경언해는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임란전 간행된 희귀본의 언해본으로서 국어학적, 불교학적, 서지학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보인다.

특히 숙종 8년(1682)에 제작된 동여비고(東輿備考)는 대동여지도보다 170여년이나 빨리 제작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전국지형과 일본도까지 포함해 더욱 세밀하게 묘사된 희귀본이다. 박원구기자

'강원랜드' 국민관광지로

스님·신부 등 1백인 선언

강원도 정선지역 불교 가톨릭 개신교계가 강원랜드 개장 2주년을 맞아 도박통제위원회 설립 등 도박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암사 정광스님, 고한천주교회 이우갑 신부, 고한중앙교회 박병선 목사 등 지역주민 100인은 10월 28일 카지노 개장 2주년을 맞아 "강원랜드 카지노는 도박시설이 아닌 국민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원우기자

관음 보살 점안 연등제

휴휴암, 8천명 동참

강릉 휴휴암(주지 홍법)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바닷가 연화법당에서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점안연등제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등제에서 홍법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도량인 만큼 언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도량을 사부대중과 함께 이루자"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동화사 백고좌 대법회 회향

호국영령천도·만등불사·국악한마당도

대구 동화사는 10월 27일 1509주년 개산대재 및 백고좌 회향 대법회를 통일대불전에서 개최했다.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창건주 극달화상의 영정 이운식을 시작으로 통일대불 앞에서 백고좌 회향 법회를 겸한 기념 법요식으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은 회향사에서 "개산 1509주년을 맞아 선사, 조사스님들의 유지를 더욱 여법하게 전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은 백고좌법회 회향 법어에서 "오매불망 내몸이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는 화두를 들고 씨름을 하면 마음의 갈등은 봄바람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동시에 지혜가 갖춰진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이어 호국영령천도 및 교통안전기원제, 우리전통 차문화 소개와 국악한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탑돌이와 함께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대구=박원구기자

대승종, 아미타괘불 점안법회

대승종(총무원장 일오)은 10월 25일 서울 강북구민회관에서 조국통일 염원 아미타불괘불 점안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정 도암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법효, 종회의장 법정 스님 등 1600여명이 참가했다. 총무원장 일오 스님은 "남북이 하나가 돼 조국통일을 이뤄야 할 때"라며 "불자들 모두가 보살행의 삶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일연스님 귀환·금산사 개산대재

금산사(주지 평상)는 10월 25일 조선 선조의 맏손자로 일본에 끌려가 법화종 18세 법주가 됐다고 알려진 일연스님(1589~1665)의 귀환과 금산사 개산 1403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월주(금산사 회주),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스님과 신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일연스님의 얼굴상, 서간문등 유품이 공개됐다.



현대불교 신행수기 모음집 출판기념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모음집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출판 기념회가 10월 26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신수회 이영자 회장을 비롯한 당선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에는 95년~2001년까지 총 7회 47편의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들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군부대와 구치소 등에 법보시 될 예정이다.

법당청소서 소식지 발행까지

서울 불광포교원 신도회 오효훈 재무



◇매주 수요일 주지 마정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있는 오효훈 신도회 재무(왼쪽에서 두번째).

우리 절 우리 신도

신행상담·봉사단체 십선회 꾸려 앞장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절을 찾는 분들을 맞으려고 노력해요. 눈빛만 봐서 무얼 원하지 열추 알 수 있을 정도죠. 불교교리를 묻는 것부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털어놓을 때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지요."

불광포교원의 '대표 포교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오효훈 보살(법명 법계성, 40). 포교원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법. 언제나 싫은 내색 한 번 안하고 신행상담을 하는 오 보살이 나름대로 터득한 포교방법이다.

불교기초교리 책을 집어든 오 보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많이 알아야 설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도회 재무를 맡고 있는 오 보살이 이렇게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1997년. 경북 지장사 대구포교당 기초교리를 강의했던 마정 스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된다. '나 자신부터 참회해야 내 주위가 편해진다'는 마정스님의 법문에 본격적으로 발심한 오 보살은 3년 전 남편 백석수 씨(법명 각현 43)가 서울로 전근을 오게 되면서 불광포교원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오 보살이 불광포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정기 법회, 사찰 행사 준비는 물론 신입 신도 상담, 회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소사는 어김없이 오 보살의 손을 거친다.

"법당 청소도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걸레 끝에 훔쳐진 먼지를 볼 때면, 더러워졌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 눈에도 깨끗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상쾌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뿐만 아니다. 오 보살은 지난 1998년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들을 해보자'는 취지로 결성된 자원봉사 단체 '십선회(十善會)'에서 간사 소임까지 맡았다. 포교원 신도 20여명이 뜻을 모아 구성된 십선회 회원들은 인근 복지관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집을 일일이 방문해 쌀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불광포교원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찰운영위원회를 꾸렸다. 원장 마정 스님은 그야말로 안건만 내고, 운영위원회 신도들이 포교원의 중요 사업과 계획 등을 결정한다. 보시·지계 인욕 등 3개 분회를 두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는 기초교리 공부모임, 자원봉사 활동, 소식지 발간 등 사중 일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물론 사찰에 들어오는 보시금의 투명한 사용은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은 절을 '자기 집'처럼 여길 정도다. 특히 오 보살은 꼼꼼한 돈 관리와 깔끔한 일 처리로 운영위원회를 더욱 알차게 챙기고 있어 신도들 신임이 두텁다.

12일에 있을 사찰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준비에 바쁜 오효훈 보살은 불교공부에 눈 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불자로서 살고 있는 요즘만큼 신명나는 일이 없다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철우 기자

추천의 말

마정스님 불광포교원장



오효훈 보살은 총무 김필자, 공양주 이춘희 보살과 함께 걸레로 법당바닥을 훔쳐내는 것부터 소식지 발간, 행정 보조일, 공양간 일까지, 불광포교원의 '살림꾼 3인방'입니다. 없어선 안 될 선재보살들이지요. 매일 절에 나와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해내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오효훈 보살은 사찰의 대소사를 손수 챙기고, 대중의 화합을 이끄는 등 다른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포교원은 신도들이 직접 사찰운영위원회를 조직,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절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소임을 맡고 있는 오 보살은 워낙 일처리가 깔끔해 '똑순이 보살'로 불리울 정도입니다.

스님·신부·목사 한무대서 노래

울산 내원암서 산사음악회 열려

10월 27일 지장전 봉불식을 기념해 열린 '하나됨을 위한 음악회'에 내원암 주지 종선스님과의 인연으로 김동규 신부, 송영웅 목사 등이 찬조 출연해 음악회에 참석한 3백여 불자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밖에도 도국스님, 세등스님, 성조스님의 법고로 막을 올린 이날 음악회에는 동국대 국악관현악단, 도신스님등의 노래와 강화자 한국무용협회 울산지부장의 태평무, 김영임씨의 회심곡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져 늦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천미희기자

신부, 목사, 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산사음악회가 울산 내원암(주지 종선)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다.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 북한산 중흥사·태고사

원융불교 탯자리 귀화식물 77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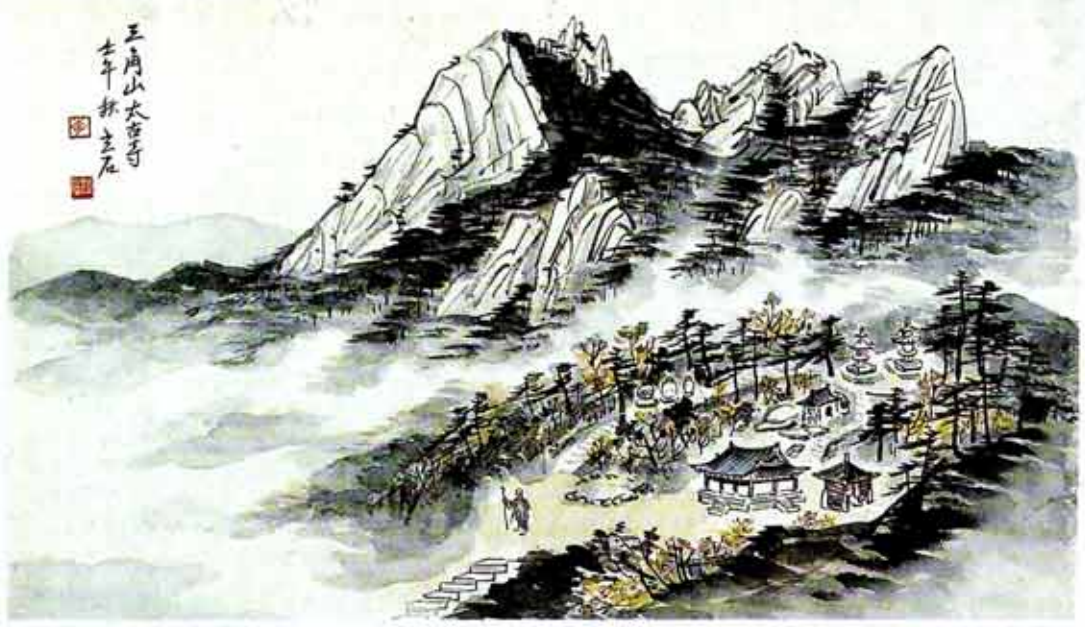
다람쥐등 포유류 20종 최근 노루서식 밝혀져

중흥사~태고사~행궁지 산갈나무등 활엽수숲

남방엔 드문 산사나무 꽃향유 제철만나 군락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10월 3~4일, 중흥사 절터와 태고사가 자리한 북한산 산성계곡으로 자연의 법문을 들으러 떠났다. 한북정맥은 백두대간 철령에서 서해로 내쳐달려온 산줄기다. 북으로는 임진강을 만들고 남으로는 한강을 만들었다. 한북정맥은 이렇다 할 명산을 만들지 못한 채 내려오다가 끝자락에 와서야 비로소 돌꽃 한 송이를 피워놓았다. 그게 북한산이다. 산성계곡 들머리에 서면 원효봉과 의상봉이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두 봉우리는 신라불교사에 우뚝한 두 사람의 사상과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둥글고 원만하게 생긴 원효봉은 원융무애한 삶을 살았던 원효를 닮아있고, 가파르게 치솟은 의상봉은 학승으로서 빈틈 없이 살았던 의상을 닮았다. 옛 사람들은 산이름 하나 짓는데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호신作 '삼각산 태고사(2002년)', 46×74cm

계곡 옆 풀섶과 풀밭에 달맞이꽃, 서양등골나물, 망초, 개망초, 유홍초 등이 보인다.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지역에는 77종의 귀화식물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사람들 발걸음이 그만큼 환경용량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등산로 옆 무궁화 꽃에 긴꼬리제비나비 한 마리가 앉아 열심히 꿀을 빨고 있다. 제비나비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멋치도 좋다. 날개와 꼬리가 길어서 다른 제비나비류와 쉽게 구별된다. 대개 봄 가을로 두 차례 나타나는데, 주로 햇볕 많은 산기슭에서 눈에 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북한산에서 그 화려한 꼬리를 감출 것이다.

풀섶에선 곤충들의 가을노래가 한창이다. 곱게 타오르면 꽃들도, 탐스레 익은 열매들도 한줄기 작은 풀벌레 소리로 변해버린다. 발골에서 포장도로를 버리고 자연탐방로를 따라 걷다보면 리기다소나무, 은수원사시나무, 아까시나무, 물오리나무 등 여러 종류의 외래 수종이 눈에 띈다. 6 · 25 전쟁 이후 황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들이다.

북한산은 중생대말에 형성된 거대한 화강암지대에 속해서 어딜 가나 화강암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백운대와 보현봉을 잇는 서북사면의 화강암 계곡은 흙이 깨끗하고 투수성이 높아서 수질을 깨끗이 정화시켜준다. 계곡을 끼고 옛 수문터를 지나면 서암사 옛 터를 만난다. 산성 축조 당시 승군 주둔을 목적으로 지은 11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석축만 남은 폐허에 사위질빵이 나무 줄기에 올라가 하얗게 꽃을 피웠다. 꽃잎은 본래 퇴화해 없어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흰 꽃은 단지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꽃받침일 뿐이다.

원효봉 쪽으로 북한산성의 성벽들이 그림 좋게 이어져 있다. 산성은 임진 · 병자 양대 전란 후 숙종 때 서울을 방위할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스님들과 3군문의 군사들이 약 6개월 걸려 쌓았다고 한다. 국녕사로 가는 길목 바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귀를 쫑긋 세운 채 지나가는 탐방객들의 말소리를 엿듣고 있다. 대서문을 지나서 30분만에서야 처음 보는 다람쥐다. 현재 북한산에는 20여종의 포유류가 보고되어 있으나, 가출한 들고양이가 늘어나면서 다람쥐와 청솔모들이 겁을 먹고 있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최근에 북한산에 노루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성문 앞에 산사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달렸다. 가을에 사과맛 나는 열매를 단다고 해서 산사나무라 지었다. 산사나무는 늦봄에 작고 흰 꽃이 피는 아교목이다. 북방계 식물이라서 남도지방에서는 보기드문 나무다. 열매는 산새들의 겨울 양식이다. 암문 앞 양지바른 곳에 벌개미취, 산국, 쑥부쟁이들이 엉켜 피었다.

중흥사는 고려말 태고 보우국사가 머물며 5교 9산을 하나로 통합한 원융불교의 탯자리이다. 조선 숙종 때는 136칸으로 증축해 산성을 지키기 위한 승영(僧營)으로 삼았다. 한때는 산성 내 11개의 사찰을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일제 때 방화로 소실된 후 폐허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지난 봄에 국사 탄신 7백주년을 맞아 서암 큰스님을 모시고 중창 불사의 삽을 들었다. 4칸짜리 대웅전의 뒷마무리가 한창이다. 중흥사 돌계단을 올라서면 풀더미에 묻힌 석축 위에 여러 그루의 산수유가 줄지어 심어져 있다. 줄기가 꽤 굵은 걸 보니 그 옛날 중흥사 대중 스님들이 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수유는 중국의 산동 처녀가 신라로 시집 올 때 갖고 들어왔다는 전설이 있으나, 아무래도 신라 유학승들이 약재나 다재(茶材)로 쓰기 위해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산수유는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陽樹)로, 한강 이북에서는 생육이 왕성치 않지만, 이곳 산수유는 올가을에도 열매를 엄청나게 달았다. 늦싸리꽃이 시나브로 떨어지고 있다. 휘장처럼 드리워진 줄기에 꽃가루를 뿌린 듯 화사하게 붙어있던 작은 진분홍 꽃들이다.



◇젖신나물



◇제비나비

중흥사 주변은 활엽수들이 군단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흥사-태고사-행궁지에 이르는 지역은 북한산에서도 활엽수숲이 건실한 곳으로 꼽힌다. 북한산의 대표적 참나무인 신갈나무를 비롯하여 딱총나무, 땅비싸리, 만주고로쇠, 버드나무, 병꽃나무, 보리수, 붉나무, 산딸기, 생강나무, 쥐똥나무, 개벚나무, 개옻나무, 고욤나무, 굴참나무, 귀룽나무, 누리장나무, 느티나무, 당단풍, 덜꿩나무, 산딸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싸리나무, 아광나무, 좀참나무, 쪽동백, 참개암나무, 참빗살나무, 철쭉, 팥배나무, 함박꽃나무 등이 대화엄을 이루고 있다. 개울을 건너 태고사 텃밭들이 묵밭처럼 풀더미에 묻혀 있다. 보우국사의 은둔처였던 태고사는 부도탑과 석비 말고는 옛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난 세기에 화마가 지나간 후 현재 가람배치도 많이 뒤틀려 있고, 입손 부족으로 조경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태고종에서 부지 4천여평을 매입하여 태고사를 성역화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중성문-중흥사-태고사 일대는 초지와 묵밭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가을꽃들을 볼 수 있다. 지난 여름 한철 봄을 내던 참나리, 맙나리, 현호색, 각시붓꽃을 북한산에서 들국화류만큼이나 흔하다. 한해살이 풀로, 키는 60cm 안팎이다. 네모난 줄기 끝에 자주색 작은 꽃들이 방망이처럼 엉켜붙어서 난다. 향기가 좋아서 이름값을 하는 꽃이다. 노란꽃이 피는 잡신나물은 여러해살이풀로, 줄기와 가지에 부드러운 잔털을 갖고 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노란 꽃이 총상차례로 피는데, 들판이나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눈에 익은 꽃이다. 봄날이면 산중절에서는 보살님들이 이것을 뜯어다 나물로 내놓기도 하고, 약방에서는 말려두었다가 지혈제로도 썼다.



◇장지뱀

눈괴불주머니는 습기가 많은 계곡 주변에서 이따금 눈에 띄는 두해살이풀이다. 키는 크지만, 줄기와 가지가 연약하다. 초가을에 무리지어 길이 2cm 가량의 노란꽃을 피운다. 꽃도 매우 연약해보인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연약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독을 갖고 있다.



◇꽃향유

태고사 주변의 당단풍이 조금씩 홍조를 띄기 시작했다. 시간도 저마다 자리가 있다. 10월 중순의 단풍은 설악이 제 자리이고, 10월 하순의 단풍은 북한산 기슭이 제 자리이다. 당단풍은 다른 단풍잎보다 큰 편이다. 열편도 11개까지 갈라진다. 한강유역의 산에서 보는 단풍은 거의 당단풍이다. 북한산 당단풍은 신갈나무의 우점도가 높은 350미터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숲이 그윽한 곳에서 관찰되는 산팔나무는 나무 재질이 매끈하고 단단해서 쓸모가 많다.

태고사 아래 바위틈에 장지뱀 한 마리가 나와 가을햇살을 쪼고 있다. 가을햇살에 몸 데우기가 끝나면 동면에 들어간다. 도마뱀은 몸통 중앙에 28줄의 비늘줄이 있는 데 비해 장지뱀은 8~10줄 이다. 도마뱀에 비해 머리와 주둥이가 길며, 주둥이 끝이 뾰족하다. 도마뱀에 비해 덩지가 조금 크고 꼬리도 긴 편이다. 곤충 등을 잡아먹고 산다.

한 무리의 탐방객들이 등 뒤에서 왁자지껄 올라온다. 어디로들 가는 걸음인가, 마치 활치산들처럼 숨도 쉬지 않고 급한 걸음들이다. 등산로의 흙과 바위들이 망가지고 나무들의 뿌리가 드러나는 새플로라이트도 모두 저 급한 걸음 때문일 것이다. 급한 걸음일수록 산은 더 망가진다. 자연을 생각하면, 산길도 징검다리 건너듯 할 일이다. 행궁지를 지나면 이윽고 대동문이다. 능선에 오르면 지나온 숲이 내려다보인다. 산은 대개 위쪽은 건조하고 척박한 반면 아래쪽은 토양층이 깊고 기름지다. 따라서 경사면, 능선, 계곡 등등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살고 있는 나무들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능선 주변에는 올라오면서 만났던 계곡의 나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등을 돌려 발아래를 굽어보면 온통 회색빛인 서울 도심이 보인다. 자연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인간의 문명이란 자연에게 있어서 한낱 암적인 환경일 뿐이다. 문명세계란 결국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한 흔적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명이 지나간 자리는 자연생태가 하나같이 초토(焦土)로 변해있다. 오늘날 세계 10대 도시문명을 자랑하는 서울의 운명도 그런 역사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겨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이다.

양초냄새와 그을음에서 해방시켜 드립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③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④ 식물성 6각호 – 지름 7.5cm x 30cm
⑤ 식물성 복(福)초 – 지름 6cm x 24cm

제조방법 – 식물성왁스(팜유에서 추출한 왁스) + 파라핀왁스(공업용왁스) 혼합특수공법으로 제조 (팜유란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용기름이며 국내에서는 라면외 튀김용으로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모든요리에 사용하는 식품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방울(용이미주보고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⑥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연두, 전사지-연화반야심경,무지개)
⑦ 금대(방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⑧ 돈타레 양초
지름 5.6cm x 45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35-16 전화 : 031-766-0242 / 팩스 : 031-766-0233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 하 몰 – 특판기획상품

사천왕 등(燈)



통일신라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나원리 5층 석탑(국보 제 39호)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의 뒷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늬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원목과의 어우러짐 속에 은은한 멋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통 등 입니다.

※ 사천왕은?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수미산에서 동方(지국천왕), 서(광목천왕), 남(증장천왕), 북方(毘沙門天王)의 네 방위를 지키며 불법수호와 사대부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재 료 : 오동나무 규 격 : 12Cm×12Cm×22.5Cm

※ 전통문양등 시리즈 – 반야심경등, 사신도등, 팔정, 사군자등, 사찰풍경등(판매가 35,000원)

정상가 ~~59,000~~원 → 할인가 39,900원

회담석 방석



살아 숨쉬는 회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이 일상 생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직장인나 수행생 또는 스님들이나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방석이 될 것이며, 앉아 있기만 해도 원기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소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회담석 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방석 사이즈 (395mm X 355mm)
· 색상 종류 :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 판매가 : 198,000원

※ 회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디지털 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 시판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불경 역시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는 언제 어디서나 불경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 속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최초로(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게독경시 스님의 쉼 고르는 부분을 끊어짐 없이 녹음하여 불자님 들이 따라 하기가 편합니다. (테이프와 CD에한함)

사이즈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경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안내멘트가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선택한 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크 기 : 담배갑 크기(8.6 × 5.2 × 2.0Cm)
이어폰 증정
경전종류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게, 금강경, 법성게



정상가 ~~58,000~~원 → 할인가 35,000원

히트 한정상품 용무늬 풍경세트

침실출입문 천장에 달아 놓으면 풍경의 맑은 소리가 공간기운을 살리게 된다.



· 판매가 : 30,000원(2개 1set)
· 규 격 : 높이 83mm × 지름 57mm
· 재 질 : 황동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1,600여종의 불교용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732-1520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고객과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해암 역장. 그는 자랑스런 불자이자 아름다운 '삶의 프로'다.

"내가 서있는 곳이 바로 '극락' 만나는 사람 모두가 '부처'죠"

최 해 암

(안강역장)



경주에서 포항을 오가는 동해남부선의 길목에 위치한 시골역. 풍요로우면서도 허허로운 가을 들판을 배경으로, 안강역에 노을이 물든다.

오후 6시경, 통일호 열차의 기적 소리가 정겹다. 풍채 좋은 중년의 역장이 깃발을 흔들며 열차를 맞이한다. 내리는 승객들과 일일이 함박 웃음으로 인사를 나눈다. 허리 굽은 한 할아버지는 역장과 몇 년만에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는 총총히 사라진다.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에 만났는데도 더없이 반가운 사람들. 안강역에서의 만남과 이별은 늘 이렇다.

영화에서나 본듯한 이런 모습을 날마다 연출하는 주인공은 최해암(54) 안강역장.

시인, 카루나의모임 회장, '경주 YMCA 10대의 전화' 상담실장, 인터넷 동호회 '안강 소식'(my.netian.com/~cham333)과 '삶이야기'(club.sayclub.com/@salm3040)의 시숍. 그리고 남편이자 네 자녀의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이자 건강한 생활인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프로'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새마을호와 통일호 등 상하 30회의 여객열차가 머물렀다 떠나는, 하루 평균 기차를 타는 인원이 7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역. 어린이 자연학습장과 꽃밭, 문화사랑방 등을 갖춘 소공원화된 안강역. 화장실에 낙서판을 설치하고 손님에게는 아무 기록도 없이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역. 친절한 역무원들의 미소가 있는 안강역에서 '아름다운 프로'인 그를 만난다.

최 역장은 1973년 철도청에 입사했다. 부산역을 거쳐 모량역, 건천역, 포항 효자역, 울산 호계역 역장을 맡으면서 가는 곳마다 창의적인 경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97년 최고 친절인' 상 등 그동안 받은 표창과 봉사상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안강역의 전체 직원은 10명. 5명씩 번갈아 가며 야근을 한다. 철야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는 날 자투리 시간을 아껴 자원봉사도 하고 포교도 한다. 부처님마을과 카루나의모임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30여년간 해온 돈 쓰는 '부업'이다.

최 역장은 〈카루나의모임〉 회보, 〈안강소식〉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도 전한다. 'Say Club'에서 인터넷 방송도 한다. 이런 매체를 통해 통해 삶, 불교, 효도 이야기를 나누고 첨도 정보도 전한다.

이웃사랑 실어 나르는 동행가 작은 역
주민 위한 문화 공간 마련 웃음으로 봉사

이런 최 역장의 모습에 역무원들도 뭅이 들었다. 직원들은 매달 1만원씩을 모아 소년소녀 가장들의 살림을 돕는다. 인근 지역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40여 가구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보고, 나머지 1500여 후원자들은 물심 양면으로 간접 지원을 한다.

최 역장은 '소 젓 먹고 자라 송아지 짓만 하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가성세대의 책임을 절감한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역에서 발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일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 자신 6.25 한국동란을 겪은 유복자로 어렵게 자랐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입고 입던 옷까지 벗어주시던 할머니 故 윤보련화 보살과 어머니 故 김보성화 보살의 말없는 가르침. 그것이 오늘의 최 역장을 만들었다.

최 역장이 불교에 눈을 뜬 것은 중학교 때, 경주 분황사 불교학생회에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겁 지내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 법(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이라는 경전을 여는 첫 구절을 듣고부터다. 이제 그는 "지금 서 있는 곳이 극락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부처"라고 확신하는 자랑스런 불자다.

최 역장은 요즘 슬럼프에 빠져 있다. 어머니 김봉학 여사가 2년전 유명을 달리한 후 계속된 우울증이다. 그러나 최 역장은 전국에서 답지하는 후원자들의 정성을 생각할 때 주저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매달 3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오는 충주 임봉수 명성한의원장, 연말에 떡국을 몇 자루씩 보내오는 대구 옥황사 스님, 매달 2만원씩 입금해주는 기관사 등등 숨은 선행자들을 생각할 때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최 역장은 오늘도 고객을 위해 책장에 책을 꽂고, 수족관을 청소하며, 화분에 물을 뿌린다. 거창한 법문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에게서 '삶의 진실'을 본다.

글=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soo@buddhapia.com

"1000원이면 영양식 1주일분"

정토회 청년회원들 북한어린이돕기 거리 탁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명성(45) 씨. 토요일인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해 명동 거리로 나선다. 체감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진 쌀쌀한 날씨 탓인지 서울 시민들은 옷깃을 세우고 부지런히 귀가 길을 서두른다.

10월 26일 명동성당 앞. 약속 시간보다 30분이 이른 시각이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우선 멘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150원이면 북한 어린이에게 한끼의 영양식을 줄 수 있고, 1000원이면 1주일의 영양식을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죠."

이들은 1천일 통일정진 운동을 하는 정토회원들로, 몇 년째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거리 탁발에 나선 이들.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은 2000년 3월 1일부터 불행했던 민족사를 참회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철야정진, 통일돼지 모금,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거리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정토회에서는 1천일 통일정진 회향일인 11월 26일로부터 49일 전인 10월 5일부터 '동포돕기 49일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북한 돕기를 위한 거리 모금에 나서자는 것이다. 청년정토회 회원들이 이런 마음을 낸 것은 일반인들이 평소 쉽지 않은 통일운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기 위해서다.



◇"엄마랑 아기가 북한 어린이를 도와요". 청년정토회원들이 서울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거리모금을 하고 있다.

49일 릴레이캠페인…정토가꾸기 십시일반

직장인인 박해연(31) 씨가 정토회에서 준비한 팜플렛을 나누어주며 이야기를 건넨다. 그러나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은 몇 초의 여유도 안 준 채 급히 사라진다. "150원이면 북한 어린이…." 지나면 행인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바쁘게 자리를 떠버린다.

"예상외로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하지만 모금 해주고 안 해주는 것에 일희일비 안 하는 일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수행인 거죠. 모금을 안 해주는 사람도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해요."

이날 청년 정토회원들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모금한 액수는 57만원. 13명이 나서서 2시간 동안 모은 것으로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100여 명의 북한 어린이가 한달 동안 먹을 영양식을 보낼 수 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정성으로 수많은 생명이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정토회원들은 마냥 기쁘다.

청년정토회 류희원(33) 간사는 말한다. "자그마한 정성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10초 동안 마음을 내어 북한 어린이를 돕자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100원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정토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요."

강유신 기자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

강주수외 38명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409쪽/값12,000원

신행을 통해 난관을 극복한 공모 당선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한 불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밤이나 낮이나 자각정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법을 공부해야 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정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우리가 비록 오탁악세(五濁惡世)에 살고 있어 바른 마음, 바른 법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불법에 귀의한 불자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업장(業障)이 두텁다 하더라도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깊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진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운여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수상작들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피로 역경을 극복했다는 기복적인 내용보다는 이웃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행복한 신행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불교, 생활불교로 정착되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법과 좋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역경을 그저 한탄하고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심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읽을 수록 그내용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불자들도 그렇게 철저한 신앙심을 갖고, 평상심에서 보람을 찾아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하기를 바랍니다.
남정 스님(총화종 총무원장)

다양한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를 오르지 불심 하나로 극복해 낸 불자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구입문의 :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릴레이 수행일기

차봉기 <下>
경주 동산한의원장



열심히 독경하고 정진하는 것만이 공부라고 생각 했는데 이것은 참공부를 위한 기초체력훈련이자 겉공부이며, "내면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여 실생활속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참공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올해 세계사 법회에 다녀온 뒤, 김 선생님께서 100일 기도 공부 결정을 해주시면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공경심으로 여쭈어 보듯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물어보라"는 숙제를 내 주신 뒤부터다.

무심코 "예"하였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우선 물어볼 말 자체가 생각나지 않고 어쩌다 한 두 마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 물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이 숙제를 통해 내면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늘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이 앞서 시비하고 분별하고 살았나 하는 마음이 불현듯 올라왔다. 동시에 늘 나와 남을 구분지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쉬면서 '아!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데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구나'를 깨치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허탈해지면서 막 웃음이 나왔다. 나이 마흔이

어느날 불현듯 "왜 남·나를 분별했나?"

"참고 견디고 자제하고…"법문 가슴깊이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라"는 가르침이 절실하게 와 닿았고, 정말로 자기 내면의 실체를 똑똑히 보는 것이 중요하고 느껴졌다.

그러나 이렇게 깨치기는 해도 실생활에서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기는 정말 어려웠다. 억지로라도 해 보려면 오히려 거부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서 괴롭기도 하였다. 선생님께서 그 다음을 바쳐 보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죽기보다 더 싫었다. "무시겁으로 연습한 '나', 내가 중심인 가정, 내가 중심인 한의원, 내가 중심인 주변관계, 모든 것의 중심인 나를 몽땅 바치라 하니 절대 그럴수 없다"는 지독한 다음이 올라왔고 며칠이나 괴로움으로 지냈다. 그러다 문득 만나는 모든 이들과 모든 사물들의 존재성이 나의 존재 이유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남과 나를 갈라놓고 넘어서야 나와 남이 똑같다는 것을 이제야 알다니 …

잘되지 않던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요즘의 하루하루는 정말 기쁘다. 금강경독송회의 가르침에 따라 한의원의 출입문 소리가 나면 바로 모든 환자를 부처님으로 대하는 연습도 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100만원씩 드리는 마음 연습도 하고, "누가 뭐래도 되받아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서 바치고, 참고, 해탈시켜라"시는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다.

결제만 있고 해제는 없이 매일매일 정진하고 계시는 금강경독송회 수좌님들을 보고 나의 생활을 또 다시 비추어 보면서, 이 생에 이렇게 밝고 귀한 법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참회하고 복짓고 마음 닦아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길 발원해 본다.

*다음주 필자는 '비경승 즈브= 깊은 생각하는 엄마 모임' 회장을 역임한 그로는 가정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부처님을 키우는 일에 여념이 없다



◇'생활선'을 지향하는 우곡선원은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을 지향한다. 10월29일 저녁, 정진중인 회원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우곡선원의 생활선

'실상관법' 통해 생활속 참선 실천

매주 화·금요일 108참회정진·실참 수행

2001년부터 30개國 200여 외국학생 교육

10월 2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빌딩 4층에 자리잡은 우곡선원. 화요 정기법회30여 재가자들이 삼귀의례에 이어 한글 반야심경 독송, 일상(日常) 발원문 낭독, 입정(入定)이 진행됐다. 이어 우곡(牛谷) 장명화(張明和, 52) 선원장이 설법에 앞서, 실상관법(實像觀法) 중 하나인 일상관(日想觀)을 지도한다.

"일심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쪽을 향해 곧게 앉아 저물어 가는 해를 관觀하십시오. 실상관으로, 고착화된 나의 관념이 충분하게 녹아 들면 내 안에 대우주를 다 퍼 담아도 부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마음은 평정에 이르게 됩니다."

화관이 끝난 후 이어지는 참선강의는 설법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교수, 공무원, 교사 등 식자층 회원들이 대부분이라 이론적인 질문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일상 속의 참선 체험을 통해 겪은 의문점에 대한 문답이 오고간다.

"참선하는 수행자는 백팔배를 하거나 염불, 주력(呪力), 간경(看經) 등을 해서는 안됩니까?" (임반야월 36)

"절하고 염불하고 주력하고 간경하는 일들은 공덕을 쌓고 지혜를 길러주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들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놓고 비우고 버리는 참선(禪)의 미묘한 이치에 근접합니다." (선원장)

이런 자유스런 토론의 분위기는 '참선은 일상(日常)이다', '참선 공부란 삼라만상, 일체법에 걸림없는 부처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라는 우곡선원의 가풍에 기인한다.

성락현(55 · 사업) 우곡선원 회장은 우곡선원을 한마디로 '증생심을 녹이는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회원들은 참선을 통해 불평불만을 말끔히 해소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한다.

선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우곡선원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참선단체와 달리 〈봄설 관무량수경〉을 바탕으로 한 실상관법(實像觀法)을 닦는 점이다. 우곡선원에서는 '존재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을 실상관법이라 하며,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간에 끊어짐 없는 선정(禪定)'을 의미한다.

우곡선원은 실상관법을 중심으로 인성 정립, 수행 실천, 이치 섭렵, 지혜로운 삶 등 크게 4단계로 나는 참선수행과 교육 과정을 통해 불법을 실생활에 접목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여러 경전과 조사어록(금강경, 반야심경, 달마혈맥론, 무심론, 육조단경, 관심론, 돈오입도요문론, 참선곡) 등을 토대로 토론을 기본으로 한 참선교육과 수행을 병행해 왔다. 특히 매주 화 · 금요일 저녁 두번 열리는 참선법회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인 108 참회정진과 좌선실수로 수행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우곡선원은 국제교육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2001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30개국 200여명의 외국인 학생에게 참선교육을 시킨바 있다. 1993년 6월 서울선원, 2000년 9월 부산선원을 개원한 우곡선원(www.wookook.org)에는 300여 회원들이 정진중이다. 서울선원=(02)529-5027, 부산선원=(051)740-6288~9

글=김재경 기자
사진=임민수 기자

생활과 함께 수행하면 건강·밝은지혜 갖게돼

우곡선원 장명화 선원장



"선지식과 인연을 맺어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하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건강한 육신과 더 밝은 지혜를 일깨우며, 최적의 사회성을 갖춘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산증과 세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우곡선원 장명화 선원장은 "수행의 본질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도래할 수 있도록 관념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여 때를 기다리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행법이라든지 수행과정 따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업덩어리를 무겁게 하고 성품의 껍질을 두껍게 하여 자아가 새롭게 발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에서 온 환상일 뿐입니다. 온 몸과 정신이 현실에 몰입된 것이 정도(正道)이며 여여한 모습입니다."

장 원장은 집착을 놓고 번뇌를 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대자유인이 되어 올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들면, 붉은 해를 관하는 일상관(日想觀), 한 방울 물에서 반사되는 영롱한 빛을 관하는 수상관(水想觀), 삶의 토대인 땅 기운을 관하는 지상관(地想觀), '삼라만상(森羅萬象)에 대한 관법' 등 번뇌를 즉시 멸하는 실상관법을 닦아나가면, 불법의 실사구시를 통한 생활 속의 참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행 캘린더

■청화스님 '금강심론' 특별법문=서울 광륜사는 10일 오전 10시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을 초청, '금강심론(金剛心論)' 특별법문을 듣는다. 금강심론은 해탈16지(解脫十六地)를 설파하는 등 동서고금의 진리를 회통(會通)하고 원통불법(圓通佛法)을 주창한 금타(金陀) 대화상의 가르침을 담은 글이다. (02)956-5555

■국청회 천수경 강좌=서울 국청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천수경 강좌'(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정각스님)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교리강좌(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종석 교수)를 연다. (02)730-1249

■보리수선원 동안거=서울 보리수선원(www.borisu.or.kr)은 19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일상생활로서의 위빠싸나'를 주제로 동안거 수행에 들어간다. 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의 지도로 새벽 6시~7시, 오전 11~오후 1시, 저녁 7시30분~9시에 정진한다. (02)517-2841

■보림선원 토요철야정진=서울 보림선원(www.borim.co.kr)은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보림사 주지 묵산 스님의 지도로 토요 철야정진을 갖는다. (02)914-6187

■서울구도회 경전강의=서울구도회(www.kbs.or.kr)는 매주 화요일 7시 한국불교연구원에서 경전강의를 진행한다. 첫째주 육조단경(정병조 동국대교수), 둘째주 아함경(권기종 동국대교수), 셋째주 '선의 이해'(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 넷째주 원효사상(김상현 동국대교수). (02)3411-6167

■불가전통 무예수련=보성 대원사(www.daewonsa.or.kr)는 매월 둘, 넷째 주말 정륜 스님의 지도로 불가전통 양생법인 합장선법(合掌禪法) 수련 및 불교문화 체험 시간을 갖는다. 무예와 참선에 관심 있는 청소년 이상의 불자면 참여 가능. (062)234-8350

■호흡에 맞춰 절하기=소리산참선캠프(cafe.daum.net/sorisan)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에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염불, 독경, 수식관, 화두선, 행선, 와선, 위빠사나, 도인체조 등을 수련한다. 지도 법사는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인 청견스님. (031)771-7745

■국녕사 출가체험=서울 국녕사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참나를 찾아 떠나는 출가 체험' 행사를 갖는다. (018)223-6744

臨濟禪學院 發起 宣言文

釋迦世尊께서 사바세계 應化 하신지 어언 3,000여년, 그리고 世尊의 가르치심이 우리나라에 傳來된지 1,600여년 그간 부처님의 正法眼藏은 西乾四七, 東土 二三, 六祖 慧能을 거쳐 五宗分派되어 燈燈相續하고 代代相承하여 41世 白聖 戒光. 42世 正法眼藏 淨心 定德 大宗師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臨濟正宗 1세 臨濟 義玄 祖師로부터, 七塔法派로 이어진, 중화민국(臺北) 臨濟正宗 광덕사 方丈 淨心 定德 大宗師로부터, 정법안장의 涅槃妙心을 傳授받아, 臨濟禪의 七塔法脈으로 佛祖의 慧命을 光輝하며, 臨濟禪風을 繼繼承承 宣揚하고자, 臨濟正宗 七塔法派의 總本山인 中國 七塔禪寺를 叢林으로 하고, 中華民國 臺北(臺灣)의 臨濟正宗 本山 光德寺를 中興道場으로 하여, 참신하고 활력 넘치는 **한국불교 임제선학원**을 개원하고, 한가지로 參禪과 修行을 통하여 究竟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고, 法界의 중생을 제도하며, 시방의 모든 善知識의 禪旨가 밝게 드날리어, 正法이 널리 流通되고, 일체중생이, 法界의 理致에 契合되어 無上의 理致를 證得하기를 誓願하노라.

끝으로 불보살의 가피와 諸方의 선지식과 강호제현의 격려를 바라며, 靑天에서 벽력치고 평지에서 파도치는 臨濟禪風을 이 땅에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원하노라.

佛紀 2546年 10月 22日 (壬午 陰 9月 17日)

發起人 代表 : 釋迦如來 咐囑法 中國 臨濟正宗 七塔法派 43世
慧度 慧岩　慧泰 竹山
慧啓 保岩　慧透 普光
慧眼 摩定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常任顧問 : 釋 道成 大禪師　釋 牛角 大禪師
釋 東春 大禪師　釋 慧岩 大禪師

釋迦如來 咐囑法 臨濟正宗 43世
宗　丈　釋 竹山
宗務總理　釋 摩定
中央委 議長　釋 慧透　中央 禪院長　釋 保巖

釋迦如來 咐囑法 正法眼藏 臨濟正宗 42世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本山 正覺山 光德寺 方丈 釋 淨心

中華民國 臨濟宗 七塔法派 本山 七塔禪寺 方丈 釋 成峯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國際 法子聯誼會長　釋 心茂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한국 法子聯誼會長　釋 普光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중국 法子聯誼會長　釋 慧通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싱가폴 法子聯誼會長　釋 慧寂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長　釋 慧行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홍콩 法子聯誼會長　釋 慧因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長　釋 慧禪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인도 法子聯誼會長　釋 慧生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자카르타 法子聯誼會長　釋 慧願
臨濟宗 七塔法派 淨公上人 호주 法子聯誼會長　釋 慧該

■ 본원 중앙선원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산 10-1 전화) 031-864-0399 팩스) 031-865-2166 ■ 종무 행정원 :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24-7 전화) 02-444-3918 팩스) 02-447-5291

바라밀현장

파라다이스 호텔 山寺연수

자기성찰의 소중한 기회
최상의 서비스로 회향

범어사 연수기획 김영만대리



"종교에 상관없이 참선, 108배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는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영만(37)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인력개발부 대리. 김 대리는 종교가 없다. 그런 그가 불교 신도가 아닌 많은 직원들로부터 듣게 될 원성을 각오하면서까지 템플스테이를 고집한 이유는 딱 하나. 직원 모두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이은 국제 행사로 지친 직원들의 눈빛에서 여유와 생기가 사라졌다고 느낀 김 대리가 생각해 낸 것이 재충전을 위한 자기성찰. 김 대리의 예상은 적중했다. 대다수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에서 마음의 평온과 활력을 주는 가장 특별한 체험으로 참선을 꼽았기 때문이다.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가르침이 녹아 있는 게 불교의 매력"이라는 김 대리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심성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템플스테이 체험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수련회의 의미를 정리했다.

'일상의 나' 되돌아보는 특별체험

부산직원 500명 범어사서 참선·108배

종교 다름 넘어 '내면의 넉넉함' 회복

"딱! 딱! 딱!" 죽비소리에 이어 숨소리조차 멈출 듯한 고요가 이어졌다. 깊어가는 가을, 범어사 휴휴정사에 가부좌하고 앉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사장 강영국) 직원들은 참나를 찾아 떠나는 짧은 여행길에 올랐다.

10월 28~29일 범어사 사찰수련회에 참석한 58명의 직원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일상의 나'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체험을 가졌다. 굵직한 국제 경기가 잇달아 열렸던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던 직원들이 오랜만에 맛보는 여유다.

그러나 평상복을 벗고 회색 법복을 갈아입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련 프로그램에서는 고요 속에 긴장감이 팽팽했다. 입재식에 이어 쉴새 없이 진행된 프로그램은 온통 낯선 체험들의 연속이다. 합장, 차수, 발우공양, 묵언 등 이름조차 생경한 일정을 하나 둘 체험하면서 조금씩 산사의 고즈넉함과 어울리는 내면의 넉넉함을 찾기 시작했을 때, 어느새 밤 하늘엔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파라다이스 호텔 직원들의 범어사 연수는 자아성찰을 통한 재충전은 물론 불교에 대한 관심 유발의 계기가 되었다. 발우공양중인 모습.

종교에 상관없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호텔측이 직원의 자기성찰을 위해 마련한 것. 전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11월 셋째주까지 9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종교에도 불구하고, 종교의식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태도는 진지하고 적극적이다.

3차 수련회 때 참가한 천주교 신자 고영주(36)씨는 "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인사법, 발우공양 등을 배우니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원성 스님, 적인 스님, 최원석 템플스테이 담당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스님들에게도 계급이 있는지', '모양이 다른 불상이 많은 이유' 등 호기심 어린 문답들이 이어지는 동안 불교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조금씩 깊어갔다.

"언젠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었다"는 박봉상(29 재무팀)씨처럼 이번 수련회는 발심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배운 참선, 108배 참회를 통해 일상을 점검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직접 연잎을 말아 만든 연꽃 컵 등에 촛불을 밝혀 들고 가졌던 탑돌이, 불가에서 전해오는 선무도 배우기, 108배 참회를 통한 자기 반성,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운 발우공양 등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호텔맨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내면의 고요와 행복이 고객들을 향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때, 1박 2일 짧은 정진은 오래 동안 그 의미를 발할 것이다. 특히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지 못했던 직장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心 마음비추기

산란한 마음 다스리는 입시기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치르는 것이 대학 수능 시험이다.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어디 붙잡을 곳이 된다면 검불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 때문에 절이고 교회고 점집이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발길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얼마 전 몇 사람과 함께 가을 성지순례를 남해 보리암으로 갔다. 이 곳 또한 항상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입시가 가까운 탓인지 유독 붐볐다. 이 곳 보리암은 알려진 대로 낙산의 홍련암, 강화의 보문사, 여수의 향일암과 더불어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음 기도 도량이다.

그러고 보니 관음 성지마다 모두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관세음보살의 형상이나 그 분을 모신 법당이 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경전에 관세음보살을 두고 바닷가 홀로 솟은 보타락가산의 도량교주라 했던가. 함께 간 일행들에게 왜 관세음보살은 꼭 바다를 보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거사님 한분이 '마음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했다. 불교 집안에 들어오면 홍수처럼 듣는 말이 마음이다. 알고 하는 대답인지 모르고 하는 대답인지는 몰라도 맞는 말이다.

바다는 불교에서 중생의 고통 받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생의 괴로운 마음은 고해(苦海)가 되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각해(覺海)가 된다.

관세음보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시고 고해 중생을 각해로 인도한다. 그야말로 관자재보살이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고해와 각해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중생의 고통스러운 마음 바다가 곧 부처의 깨달음 바다여서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보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입을 떼지 않고 무언의 설법을 한다.

"그대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입시문제는 내가 그대들의 자녀를 대학에 붙여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 바다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있듯 그대 역시 마음의 바다를 항상 들여켜 관찰해 보라. 그러면 나에게 매달리고 구하는 그 괴로운 마음 바다가 마치 바람이 쉬면 물결이 자듯 안락해질 것이요, 그곳에서 부처의 깨달은 마음 바다가 나타나리라."

입시 기도를 성취해달라고 매달리는 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이 같은 설법을 들었을까 모르지만, 형상에 집착하여 관세음보살께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형의 관세음보살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워서 염불하는 그 음성과 함께 입시를 향해 치닫는 마음을 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함께 참배를 했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깨달음의 첫번째 길

"대웅전 기와 불사에 보시하세요." "삼천 불 조성 불사에 보시하세요." 아마도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 가운데 하나가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인 보시일 것이다.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대웅전에도 '보시함'이란 것이 있고, 연말연시면 '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얼마를 보시했느냐'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 본래 뜻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또한 보시다. 앞의 예에서 보듯, 곡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너무 퍼져 있지 않나 싶다. 물론 그것도 엄연히 보시임에도 틀림없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많다.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차 한잔 나누기 캠페인'을 벌여 보시하는 불자도 있고, 무료 세무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등 자신의 전문 직업을 살린 봉사도 보시이다. 사찰에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 돕는 것도 보시이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경전 한 구절을 읽어주는 것, 심지어 사찰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보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보시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묶여서 하기도 하고, 이름을 써서 '내가 했다'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보시를 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은연중 기대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의미와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보시이든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無住相) 보시'를 최고의 보시라고 권하고 있다. 〈반야경〉에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相)에 집착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까닭이다"고 한 것이나, 〈대품반야경〉에서 "보시할 때에는 자기를 붙잡지 않고, 받은 이를 붙잡지 않고, 베푸는 물건을 붙잡지 않으며 또한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고 설한 것은 바로 보시는 집착 없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보시야말로 불자로서 으뜸가는 실천덕목이다.

'보시바라밀' 깨달음 향한 출발
조건없이 나누는 무주상보시 최고

보살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큰 행원을 닦아 마침내 열반에 도달하는 여섯 가지 방법, 즉 육바라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 등 보시 바라밀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첫 출발이 바로 보시행이라는 의미이다.

권형진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결합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電話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학년도 전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야간) ☎ 2260-3097~8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11. 4(월)~11. 15(금) 10:00~17:00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1. 21(목) 13:0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home.dongguk.ac.kr/~gsbs

◆지도자과정◆
- 수강과목 :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 지원자격 : · 조계종 대덕 법계 동수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방법·원서교부·접수기간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전형일시 : 2002. 11. 22(금) 14:00

문화예술대학원(야간)신입생·편입생 ☎ 2260-3606~7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 공연영상예술학과 공연예술, 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한국음악·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조형예술경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2002. 11. 4(월)~11. 20(수) 10:00~17:00
  원서접수 - 2002. 11. 11(월)~11. 20(수) 10:00~17:00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1. 23(토) 9:3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www.dongguk.edu/sogea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지원자격 :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암 주지급 스님
  · 언론·문화·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 유아학원 원장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방법, 원서교부·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불교문화대학원(경주·야간) ☎ (054)770-2394~5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예술학과 국악, 불교미술
  -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11. 11(월)~11. 21(목) 10:00~17:00
- 전형방법 : 학부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1. 23(토) 14:0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gsbc.dongguk.ac.kr

◆지도자과정◆
- 모집과정 :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장례문화지도자
- 지원자격 : ·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 국악인, 불교미술, 문화예술 및 장례문화관련 종사자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자
  ·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 전형일시·방법, 원서교부·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사회과학대학원(경주·야간) ☎ (054)770-2093~4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행정학과 정책개발, 지방자치
  - 경제·경영학과 경제, 경영, 경영정보, 세무관리
  -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
  - 법학과 법학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11. 25(월)~12. 6(금) 10:00~17:00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2. 7(토) 14:0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gsss.dongguk.ac.kr

◆최고경영자과정◆
- 지원자격 : ·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공무원, 군장교,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사회 지도급 인사,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방법, 원서교부·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www.dongguk.edu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㉚ 수희공덕품 제18



수희의 공덕

수희는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
신앙 대상에 자신 던지는 것이 믿음

이 18장 '수희공덕품'의 내용은 장명(章名)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희(隨喜)'의 공덕을 설한 것이다. '수희'라는 말은 범어 아누모다나(anumodana)의 한역인데 본래 뜻은 '마음에서부터 기꺼이 공감한다', 즉 '기꺼이 자신을 대상에 투입시킨다' '자진해서 귀의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의 16장 '여래수량품'을 듣고 마음 속으로부터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다.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는 〈법화문구〉에서 '수희'의 '수(隨)'를 '이사(理事)에 수순(隨順)한다'라고 했고, 자은 대사 기(基)는 〈법화현찬〉에서 '심신(心身)에 순종(順從)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수'란 범어의 접두사 아누(anu)를 번역한 것으로, 원어인 아누모다나에는 '…에 따라서 [隨]'라고 하는 뜻은 없으므로 '따라 기뻐한다'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전인 범본 〈법화경〉 17장의 장명인 '마음 속에서부터 귀의함으로써 받는 복덕에 관한 해설'을 봐도 '따라 기뻐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희'라는 것은 이 18장에서 처음 설해진 것이 아니라 앞의 17장에서 이미 설하고 있다. 즉 16장 '여래수량품'의 설법을 들은 공덕을 앞의 17장에서는 '4신5품(四信五品)'으로 간추렸는데 그 가운데 '5품'의 첫 번째인 '초수희(初隨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앞의 17장 '분별공덕품'에서는 이 '초수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의 17장에서 설하지 않았던 그 공덕을 이 18장에서 자세히 설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이다. 이 '수희공덕품'에서는 '초수희'의 공덕을 다시 강조하고 자세히 설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설했는가 하면 가르침에 대해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격이, 신앙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근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격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아무리 천만 권의 경전을 읽고, 온갖 교리를 외우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교학에 통달하고 있을 따름이지 부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수희의 마음이 있어야만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듭 설한 것이다. 흔히 신앙을 곱셈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신앙의 대상×신앙하는 마음=신앙의 결과'이다. 이 식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의 대상이 위 없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심이 불타오르지 않고 타오르는 정도가 낮다고 한다면 커다란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임시로 100이라는 수치로 나타내고 하자.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한 신앙의 마음이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100×0.5=50이라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식의 결과가 된다. 즉 100×0=0인 것이다. 반대로 신앙심이 제 아무리 볼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허무한 것었다면 이것 또한 무가치한 것이다. 즉 0×100=0인 것이다. 허무한 것을 제아무리 열심히 신앙한다 할지라도 허무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잘못된 가르침을 신앙하면 그 결과가 해악(害惡)이나 불행으로서 나타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즉 신앙의 대상 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1 정도의 사교(邪敎)라도 그것을 신앙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1×100=-100, 이러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사교를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이것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물론 한없이 큰 것이지만 임시로 그것을 100이라는 수로 나타내기로 하자. 가령 그저 잠깐 동안의 한 생각[一念]이라도 '아! 감사하다'하고 마음 속으로 깊이 믿는다면 그 한 생각을 임시로 1로 나타낼지라도 100×1=100이라고 하는 커다란 결과로 된다. '초수희'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신앙심이 2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됨에 따라 그 결과는 차츰 증대하여 드디어는 무한대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초수희'는 문자 그대로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 5품'의 최초의 단계이므로 그 최초의 것에 대한 공덕의 크기를 설하면 다음의 두 번째 내지 다섯 번째의 공덕의 크기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18장의 첫머리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세존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가르침을 듣고 수희하는 사람의 복덕은 얼마나 됩니까?'하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답해서 설하신 것이 다음의 '50전전(五十展轉) 수희의 공덕'이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㉝

모습 없음이 참 모습

부처님 32상 80종호도 헛소리일 뿐…

어떤 부류의 승려는,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말한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가 구경의 경지라고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부처는 80살에 쿠시나가라 성의 사라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는가?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의 생사는 나의 생사와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또한, "32상 80종호가 부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부처여야 할 것이다. 32상 80종호는 다만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라. 옛 사람은 말하기를, "여래가 나타내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인정에 따르기 위함이니, 사람들이 단견(斷見)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고, 32상이니 80종호니 하는 말을 빌리지만 모두가 헛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고, 모습 없음이 곧 참 모습이다"라 하였다.

부처, 조사, 중생, 구경의 경지, 마음공부, 수행, 공덕, 업장소멸, 도, 마음, 의식, 아상, 에고, 진아, 본성, 견성, 생, 사, 32상, 80종호, 실상, 환상, 세간, 출세간, 여래, 단견, 상견, 방편, 실법, 깨달음, 무명 등 수많은 말들이 마음공부하는 사람을 감싸고 있다. 이 말들은 제각각의 모습을 지니고서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면서 거대한 미로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른바 마음공부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부류들의 다수가 이런 말들의 미로 속을 헤매고 다니며 어떤 때에는 절망하고 어떤 때에는 만족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 말과 생각이라는 허망한 환상을 실재(實在)라고 여겨서 환상 속에서 온갖 경지(境地)와 단계를 차별하고 온갖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환상에 더욱더 견고하게 집착한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노력한 뒤에 어떤 그럴듯한 환상에 곽 집착하고 머물러서는 만족해하며 자신이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참으로 가엽고 안타까운 일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름과 모양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며, '법(法)은 본래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닌데 이름으로만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할 뿐이다'고 하며, '설명할 법이 없다'고 하며, '깨달아 얻을 법이 없다'고 하며,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반야심경〉에서는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많아지거나 적어짐도 없다'고 하며, '얻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분명한 말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이런 저런 망상(妄想)을 내고 있다.

이름과 모양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설명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면 바로 어긋난다. 그것들은 모두 이름과 모양으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며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냥 막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단 말인가?

법은 이러한 온갖 생각과 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온갖 생각이나 말들과 법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 한 순간도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 글의 뜻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언제 법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 매주 수,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1-9520-0054(이 정 화) http://www.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㉑

인생은 긴 것인가, 짧은 것인가

'긴 세월' '짧은 세월' 분별 버리고
'生死문제' 다음으로 미루지 말기를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1962년 처음으로 우주의 X선을 관찰하는데 성공한 미국의 지아코니 박사와 매우 관측하기 어려운 소립자의 하나인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은하계 내부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데이비스 2세와 일본의 고시바 교수에게 돌아갔다. 입자물리학의 연구대상인 소립자들의 경우 대개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파이중간자의 경우 정지해 있을 때 약 10의 -8승초) 따라서 소립자를 좀더 오래 관찰하고자할 때 이를 가속시켜 평균수명을 늘려 그 입자의 특성(본성)을 알아낸다. 이때 이론적 근거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늘림' 현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단지 다른 좌표계에서 관찰함에 따라 본래 똑같은 입자의 수명은 매우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사실 좌표계들 사이의 상대운동에 무관한 입자의 수명의 길고 짧음은 견해의 차이인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음미해볼 화두가 하나 있다. 〈벽암록(碧巖錄)〉 제3칙의 '마대사불안(馬大師不安)'이란 화두이다. 마조스님이 병이 깊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무렵 어떤 절의 원주스님이 문병하러 와서 "스님! 요즈음 병세가 어떠하십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하고 대답했다.

불명경〈佛名經〉에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약 5.7곱하기 10의 10승초)이고 월면불의 수명은 하루(약 8.6곱하기 10의 4승초: 초로 환산하면 하루도 큰 숫자임)라고 쓰여 있다. 얼핏 피상적으로 따져보면 마조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긴 수명을 가진 '일면불'과 짧은 수명을 가진 '월면불' 두 분의 이름을 외쳤는데, 아마 마조스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의 일생은 길다고 하면 긴 것이고 짧다고 하면 짧은 것으로, 또는 길거나 짧거나에 관계없이 일면불은 일면불로써, 월면불은 월면불로써 각각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헤아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상대성이론에 따라 살피면 일면불은 S좌표계에서, 월면불은 S′좌표계에서 관측하는 자로 두 사람 모두 S′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측하고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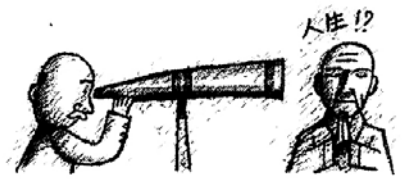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런 견해들은 어디까지나 이해의 차원에 불과한 것이며 마조스님의 외침은 이해와 분별을 뛰어넘어 전 생애를 건 체득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의 칠팔십년 일생은 백오십억년인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지만 하루살이의 일생에 비하면 매우 긴 세월이다. 특히 석가세존은 6년의 수행 끝에 정각을 이루셨으며 역대 조사들 역시 인간의 일생에 비하면 짧은 수행기간을 통해 깨침에 도달했다. 자! 어떻게 하면 긴 세월이라든가 짧은 세월이라든가 하는 상대적 분별(마조스님의 함정)에서 벗어나 일생일대의 가장 시급한 생사대사(生死大事)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겠는가? 거의 영의 확률로 이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 모두 부디 다음 생까지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서강대 물리학과
ypark@ccs.sogang.ac.kr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자치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가 심화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대 상: 가족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관련 종사자
◆일 시: 2002년 10월31일 ~ 11월 1일, 2일, 3일 (4회 20시간=기본과정:5만원)
2002년 11월 4일 ~ 11월 6일, 7일, 11일, 12일 (5회 25시간=심화과정:7만원)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사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인 원: 30명(선착순) 2002년 11월 4일
◆수강료: 12만원 (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 의: 02-738-5586,5568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			
11월 1일 (금)	10:00 ~ 12:00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박애선 교수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이종호 원장
11월 3일 (일)	10:00 ~ 12:00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채규만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의 원인과 배경	김현수 원장
11월 7일 (목)	10:00 ~ 12:00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상담기법	김현수 원장
	13:00 ~ 16:00	부부갈등과 외도	이명진 교수
2. 가정 폭력의 가족 치료적 접근			
11월 6일 (수)	10:00 ~ 12:00	가족치료의 단기해결 중심적 접근	김유숙 교수
	13:00 ~ 14:00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의 배경	김유숙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실제	안동현 교수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			
11월 11일 (월)	10:00 ~ 12:0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4.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			
11월 11일 (월)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의 실제III			
11월 12일 (화)	10:00 ~ 12:00	부부대화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13:00 ~ 14: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김화자 소장
	14:00 ~ 16:00	건강한 가족제도	박혜인 교수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심화과정)는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가해자 부분 12시간)을 면제받음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663-6 사랑빌딩 401호
TEL 서울(02)864-8834 부산(051)637-2333
FAX 서울(02)839-2185 부산(051)637-6868

조각작품으로 안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봉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









최근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간화선이 최상의 수행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한국 불교에서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이 수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빠사나, 간화선과 양립가능"

인경스님,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발표회서 주장



◇보조사상연구원은 10월 26일 '불교수행전통과 간화선 수행'을 주제로 정기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10월 26일 '불교 수행 전통과 간화선 수행'을 주제로 제14차 정기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발표한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은 "위빠사나가 초기불교의 법(法)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간화선은 대승불교의 성(性)이란 개념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기본적인 차이점을 규정했다. 위빠사나가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나 현상, 즉 법을 관찰하고 알아챔을 강조한다면 간화선은 '견성성불'이라는 말에서 보듯 불성이나 여래장에 기초하여 성립된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경 스님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먼저 살핀 것"이라며 "간화선이 위빠사나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견성이라는 말에는 대상과 사물을 따라가면서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런 점에서 위빠사나와 통질성을 가진다"며 "간화선, 위빠사나를 가르는 것보다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수행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고통을 끊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학적 기초, 위빠사나-법, 간화선-성품
우리 것으로 만들어 수행 전통 새롭게

토론은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맞물려 "간화선 수행의 문제는 무엇이냐"는 데까지 이어졌다. 김진무(동국대 강사)씨는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은 눈 밝은 선지식이 없다면 무너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간화선 참구의 실제'를 발표한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씨는 "처음과 끝만 있고 중간이 없는 게 간화선이다. 이럴 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눈 밝은 종사의 역할"이라며 "태고보우도 화두를 타파했더라도 눈 밝은 종사를 찾아 인정받기 전에는 그것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간화선의 성립 배경'을 발표한 김호귀(동국대 강사)씨는 "수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깨달음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깨달음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방룡(전남대 강사)씨는 "결국 수행과 신행의 문제인데, 현재의 수행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학계에서 풀어야 할 고민거리 하나를 던져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원효 주석서 번역작업
해석학적 구조 감안을

버스웰 교수,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발표



원효를 비롯한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통일되고 일관된 경전의 해석을 위해 나름대로의 해석학적인 구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석서를 번역하는 사람은 그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에서 '원효와 한국 불교 문헌의 주석학'을 발표할 로버트 버스웰(사진) 미국 UCLA 교수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분석을 통해 한국 불교 문헌의 주석 구조를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버스웰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원효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석가들은 많은 경전들을 전체적 틀 속에 엮어나가는 해석학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수많은 경전들이 마치 불교라는 하나의 큰 천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과도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주석학자들에게 있어 주석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통찰력을 당대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며, 불교 경전에 계속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었다"고 밝힌 버스웰 교수는 "동일한 맥락에서 번역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원효의 통찰력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원효 통찰력 현대 서구사회 적용돼야

〈원효전서〉 번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전세계 원효 전문가들이 참석할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버스웰 교수 외에도 박성배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가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원효의 신앙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려불화, 西域서 직접 영향

문명대 교수, 중국 거치지 않고 교류



고려불화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징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10월 26일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제8회 전국미술사학대회에서 문명대(사진) 교수(동국대)는 고려불화의 아미타래영도, 수월관음도, 두건지장보살 등에 나타나는 특징이 서역불화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고려불화의 국제성과 대외 교류관계'를 발표한 문 교수는 "〈고려사〉 등의 문헌 자료를 보면 고려와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송이나 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을 비교해 봐도 중국이 아니라 서역불화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불화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건을 쓴 지장보살은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조성되지 않고 우리 나라와 서역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와 서역의 직접적인 교류에 의한 전파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 준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어 고려불화에 나타난 구불구불한 선 역시 물결무늬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유수문(流水紋)'이라 부르고 있지만 서역 일대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생기는 모래무늬, 즉 파상문(波狀紋)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송 원대 불화와 고려 불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두건쓴 지장 보살·파상紋 등이 증거

만 논의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고려불화 역시 송이나 원대의 불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송나라 때도 고려의 화원들이 중국에 계속 진출했고,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런 교류를 통해 중국 그림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중국 그림에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6)

에너지 내뿜는 17세기 불화

조선 오백년 역사의 허리쯤에 우리 민족은 부려 네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문제는 전쟁 뒤의 참혹한 상황이다. 미국과 혹독한 전쟁을 치른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의 선수들은 지난번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데 비행기 삯을 아끼려고 배를 여러 번 갈아타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다. 조선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연이어 전쟁을 겪은 17세기 조선 경제사정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기의 불교계에서는 사찰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기적처럼 일어난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과 대적광전, 화엄사 대웅전과 각황전 등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불전 가운데 거대한 것들은 바로 이 시기에 세워진 것이다. 불전을 크게 세우니 불화와 불상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거대한 괘불이 성행한 시기도 바로 17세기 중엽 이후이다. 이 시기의 불화를 보면 색채가 밝고 명랑하다. 혹독한 전쟁을 치른 시기의 불화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전혀 어두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색구름이 찬란한 밝은 색조가 화면을 지배하고 있다.

역사가들은 18세기를 조선의 르네상스라 부른다. 특히 정조가 통치한 18세기 후반을 조선문화의 절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불교미술의 잣대로 본다면 18세기보다는 오히려 17세기가 불교미술의 르네상스에 해당한다. 17세기 불교미술은 스케일이 크고 역동적인 생동감으로 가득 차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곳곳에 엿보인다. 18세기가 되면 앞세기에 보여준 에너지의 분출은 잦아들고 무언가 풍요로움에 안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17세기 불교미술을 중흥시킨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승병들의 활약상이다. 임진왜란에 휴정과 유정이 전공을 세웠고 병자호란에는 각성과 명조가 큰 역할을 해냈다. 전쟁이 끝난 후 각성(호는 벽암)은 완주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 등 여러 사찰의 재건을 주도하였다. 특히 화엄사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한 전각들은 그와 그의 제자인 성총이 건립하였다. 1623년 각성이 화엄사를 개수하려고 하자 많은 시주자들이 거리를 메워 어느새 총림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각성에 의하여 재건된 화엄사의 대 역사(役事)는 1653년에 조성된 영산회상도 괘불에까지 미쳤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보현보살과 협시보살이 좌우에 앉아 계시고 그 아래 사천왕이 호위하며 십대제자와 나머지 사천왕이 서있다.



◇화엄사괘불(보물 301호). 1653년 벽암 각성에 의하여 조성된 괘불이다. 세로 1,009cm, 가로 731cm.

큰 스케일 사찰·괘불 불보살 강렬한 눈빛
壬亂 등 외침 항거 승병활약이 원동력

이 괘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들의 눈빛을 눈여겨보면 매우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 마치 각성 스님을 비롯한 불교신도들의 강렬한 열망이 영산회상도에 모여든 권속들의 눈빛 속에 활활 타오르는 듯 하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제주 약천사 주지 이·취임식 및 제8회 경로 大잔치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정성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저희 약천사는 그동안 주지로 계시면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제주문화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노력 해오신 주지 성공스님 후임으로 혜인큰스님의 말상좌이시며
재방에서 수행정진 해오시던 **원조스님**께서 새로운 주지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효친의 높은 가르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제8회 경로대잔치**를 마련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 경로잔치 : 주지 이·취임식 이후 경로잔치를 합니다.
◈ 장 소 : 약천사 큰법당
◈ 전 화 : 064)738-5000 / 팩스 064)738-5022
◈ 홈페이지 : www.yakchunsa.org



식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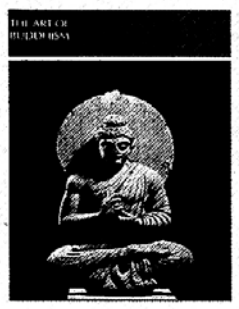
◈ 11:00 약천사 주지 이·취임식
- 삼귀의례
- 찬 불 가
- 반야심경
- 약천사 연혁소개
- 내빈소개
- 헌향 헌화
- 이 임 사
- 취 임 사
- 축 사
- 청 법 가
- 법 어
- 축 가
- 사홍서원

◈ 12:30 제8회 약천사 경로 大잔치
◆ 점심공양
◆ 공연
◆ 동별 노래자랑
◆ 시상식

大韓佛教 曹溪宗 **藥泉寺 會主 慧印** 新任住持 圓照 前任住持 性空 **합장**

불교미술

디트리히 제켈 지음
이주형 옮김
예경, 2만9천원





◇불교미술사 최고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반야바라밀' 불상의 얼굴 부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소장.

역사적 전개과정·전해진 경로 등 조명
기본개념·주제별 유형 표현형식 탐구

한권으로 꿰뚫는 불교미술

종교로서의 불교와 예술로서의 미술은 어떻게 결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가.

〈불교미술〉은 바로 불교와 미술의 오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불교미술의 역사적 전개과정, 불교미술이 전해진 경로, 다양한 지역 사이의 연관관계, 또 주된 중심지로부터 주변으로 확산될 때 중개했던 지역의 역할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교 미술의 기본 개념과 주제별, 도상적 유형과 표현 형식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한권이면 불교미술의 역사를 꿰뚫을 수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유명한 미술사학자 디트리히 제켈(92세)이 1962년 독일에서 기획된 '세계의 미술' 시리즈의 한 권으로 펴 낸 것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이주형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디트리히 제켈은 베를린대학에서 독일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했으며, 나치 독재 때 일본으로 건너가 47년까지 머물면서 일본의 불교미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동양미술을 폭넓게 공부했다. 종전과 함께 귀국한 뒤, 전후 독일에서 동양미술사의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확립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미술에 관한 서양어권 개설서로 이만큼 종합적은 책은 지금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미술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내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범위에 걸쳐 이천년 이상 전개된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기 때문에, 책 한권에 담는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 일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국한된 요즘의 연구자들로서는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이 책은 40년전에 쓰여진 만큼 세부적인 정보 제시의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서양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인문적 교양을 바탕으로 커다란 윤곽을 성공적으로 그려낸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책의 곳곳에서 저자의 섬세한 관찰과 예리한 통찰력, 상상력의 깊이를 느끼게 되며, 불상과 그 밖의 여러 신상들 간의 표현상 계위의 차이나 상과 상징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읽으면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졌는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서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서술이 매우 간단하고, 일본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저자인 디트리히 제켈이 이 책을 집필한 60년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원색 사진 58점을 포함해 총 254점의 사진이 수록돼 있으며, 부록으로 책 뒤편에 지도와 연표를 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출판가 소식

고은 시인 전집 출간



고은 시인(70)의 45년 문학 인생을 담은 〈고은 전집〉(김영사 刊)이 출간됐다.

원고지 12만여매, 2만3천여쪽, 총 38권에 이르는 전집은 국내 작가 전집으로는 최대다. 전집은 시 14권, 산문 7권, 자전 3권, 소설 7권, 기행 1권, 평론과 연구 5권으로 구성됐다. 2년동안 편집 인원 1백명이 동원됐으며, 5백부 한정판으로 가격은 1백90만원이다.

고은 시인은 전집 서문에서 시인답게 '서시'로 간행 인사를 했다.

'어느 날은/손님인가 하였습니다//어느 날은/주인인가 하였습니다//이런 세월/굴뚝들/피워올릴 연기를 꿈꾸었습니다//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시가 누구인지'

고은 시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료 문인들과 민주화 운동가, 종교 경제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집 간행 기념회를 가졌다.

〈바로 이번생애〉등 문광부 추천도서

〈바로 이번 생애〉(우빤디따 지음, 불광출판사)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틱낫한 지음, 김영사)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김용남 지음, 운주사) 등 세권의 불교관련 책이 제35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종교 철학분야)에 선정됐다.

올해의 추천도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발행된 책 가운데 심사의뢰된 총 2,529종 3,575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했다. 추천 도서는 각 분야별 학계 및 전문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32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예비심사, 분야별 심사를 거쳐 전체 본심사 및 최종심사 등 4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해 총 101종을 선정했다.

분야별 선종 종수는 총류·어학(4종), 종교 철학(7종), 문학(16종), 예술(7종), 문화일반 문화재(7종), 아동·청소년 만화(25종), 사회과학(16종), 과학기술(10종), 역사(7종), 번역(2종) 등이다.

옛날 연등회 경비 어떻게…

불교민속놀이
문화재연구소 펴냄
비매품



삼회향·법고놀이 등 6종 조사보고서

요즘도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열리는 연등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대표적 불교 행사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연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을까?

〈고려사〉나 〈동국세시기〉를 보면 옛사람들은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정착시켰다. 바로 '호기 놀이'이다. 연등 행사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장대에 종이를 붙여 깃발을 만들고는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쌀이나 돈을 얻어 비용으로 썼다. 고려 공민왕 때에는 궁궐에서 이를 재연해 공연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에 의해 행해진 연희라는 뜻에서 '호기희' '호기동희'라고도 부른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불교민속놀이〉는 호기 놀이, 삼회향(三廻向) 놀이, 법고(法鼓) 놀이, 탑돌 놀이, 정대불사, 연등 놀이 등 대표적 불교민속놀이 6개에 대한 조사보고서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법회인 장경도량을 계승한 해인사 정대불사나 법주사 탑돌 놀이처럼 불교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연등 놀이나 호기 놀이처럼 하나의 놀이 문화로 발전한 것들도 있다. 법회의 뒤풀이에 해당하는 삼회향 놀이, 법고 놀이는 처음부터 놀이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연등 놀이와 정대불사, 탑돌 놀이를 빼곤 일제의 고유문화 말살 정책과 근대화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권형진 기자



낙산사 가는길
유경환 지음
문학수첩 / 6천5백원

언어로 빚은 산사의 미학

'절간/추녀 끝/달에 끌려간다//눈짓 같은/물빛/풍경소리//바람처럼/추녀 끝/끌려가누나.' (낙산사 가는 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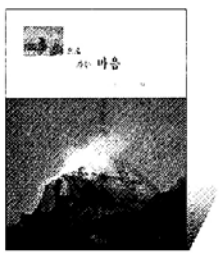
유경환 시인이 최근 시집 〈낙산사 가는 길〉을 펴냈다.

자연이 살아 있음을 추녀 끝을 지나가는 달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이 시는, 달이 추녀를 끌고 간다고 노래한다. 시인은 또한 추녀 끝에 매달려 있는 '물빛/풍경소리'를 통해 청각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방위적 감수성을 펼쳐 보인다. '눈짓'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풍경소리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시인은 달이 추녀 끝을 움직이니 풍경소리가 일어난다는 시적인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집에는 낙산사 가는 길에 쓴 20편의 시와 설악과 정선, 오대산을 노래한 시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유 시인은 곳곳의 풍경 속에 오롯이 담겨있는 자연의 진리와 삶의 이치를 아름다운 시어로 노래한다.

시집2권

산으로 가는 마음
하운청 시, 정우스님 사진
일주문 / 1만2천원



詩心으로 남은 구도의 삶

'세상을 버리고/산으로 가는/까닭이 무어냐고/누가 묻거든 이제는 인간의/숲이 무서워/나무들 사이에/숨어 살려고//세상을 돌아서/산으로 가는/까닭이 그거라고/말해주거라' (산으로 가는 마음)

〈산으로 가는 마음〉은 덕성여대 중문학과 교수였던 고 하운청 교수의 시에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의 인도 성지 사진을 담은 시집이다.

남달리 신심이 깊었던 하 교수는 12년전부터 스님들처럼 사시예불을 올리고, 오후 불식을 하며 채식만을 고집했다. 올해 초 3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일을 정우스님과 의논하며 담담하게 죽음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 교수는 지난 6월 29일 이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의 반야' '두타행' '지관' '산방한담' '번뇌의 무게' 등 그의 시 한편 한편에는 철저한 구도자로 살고자 했던 그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은자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셀러 10

책방 역시 알린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이뭐꼬	성철스님	김영사
2	화(Anger)	틱낫한	명진출판사
3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용옥	통나무
4	평화로움	틱낫한	열림원
5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스님	김영사
6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룡스님	효림
7	마음꽃	경허스님	고요아침
8	숫타니파타	법정스님	이레
9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동	솔바람
10	편지	경봉스님	고요아침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군화천부경
아~ 君군火화唵엄嘛마 오셨네!
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니 누가 그 분을 알아 보겠습니까.
왜? 성인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하고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이파면 죽나니" 그 분을 꼭 만나라고 하셨을 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참으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선(神仙)이 되어집니다. 갑신(甲申)년에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 오셔서 사람들과 합하여 신선의 몸이 되어 지상 낙원을 이룹니다.
하늘의 신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기 위하여 탕탕탕 세 글자의 주문을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하여 연속 외워야 합니다.
탕탕탕은 하늘의 신이 감추어 놓으신 무기이며 신을 찾는 암호입니다.
"君火海印 蕩 蕩 蕩!" (군화해인 탕탕탕!)
쌍미륵 출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전해져오는 쌍미륵불
석가 사후 3000년뒤 쌍둥이 미륵이 오신다 했습니다. (현재 불기 3029년)
군화엄마는.....!
●군화엄마는 사람속에 계시는 부처님의 새 이름입니다.
●미륵을 부르는 옴마니반메훔, 옴, 소울음, 훔치 모두 천지부모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미륵, 정도령 그분 이름은 군화엄마 이십니다.
· 2004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국이 됩니다.
· 2004년에 인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신선세계가 시작됩니다.
군화천부경 시중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전국 마음방 연락처 : 역삼 선릉 011-9469-5443, 011-222-5206, 02)567-9493 방배 016-747-1440, 02)3487-6169
과천 011-9991-0450 군자 011-9797-9905 잠실 011-9797-7123 사당 011-275-8830 대전 042)625-3212 부산 051)503-8795
광주 062)376-9892 대구 053)755-9166 전주 063)232-2254 청주 043)272-4879 덕소 031)521-4933 안양 031)443-1440

고향찾는 나그네
신국판, 224쪽, 값 : 6,800원
보덕현호 시집
푸른 한울이 되어
신국판, 152쪽, 값 : 5,500원
보덕현호 시집
생활속의 명상시
신국판, 184쪽, 값 : 6,500원
법안명상 시집
고향찾는 나그네 푸른 한울이 되어 생활속의 명상시
법혜, 지법, 현수, 정명외 19인 공저
도서출판 정화사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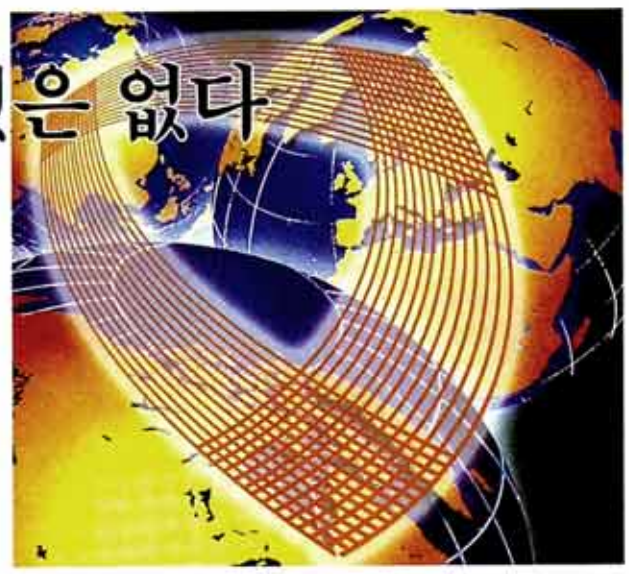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링크'
A·L 바라바시 지음/강병남·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 1만6천원

〈링크〉는 이제 막 봄볕기 시작하는 '네트워크 과학' 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이론을 설명한 책이다. 그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권위자인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가 저술했으며, 이미 미국의 사이언스지를 비롯한 과학 전문지부터 뉴욕타임즈, 더워싱턴포스트 등의 대중매체까지 앞 다투어 리뷰했다.

바라바시는 1967년 생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종신교수로 노트르담대학 물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잇닿아 있다.

세상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엄세계'
네트워크 과학이론…상생의 길 제시

그가 주창한 네트워크 과학은 복잡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요구하고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찰하려는 세계관이자 방법론이다. 이 책은 우리와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기본구조, 곧 네트워크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겨나며 진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유행과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는지, 97년 아이엠에프 사태가 전체 경제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세포안의 네트워크를 연구하여 어떻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네트워크의 연결구조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세상을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쉽게 풀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바라바시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과학이론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화엄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신비한 인드라망으로 그리고 있다. 인드라망은 '인드라' 라는 신이 사는 궁전의 그물장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그 하나 하나의 그물코마다 크고 작은 보석이 달려 여러 형태를 이루고 있다. 빛의 반사로 일체의 보석들은 반사되는 모든 모습을 빠짐없이 담고 서로를 반사해 낸다. 인드라망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편의 보석이 너무 밝아 다른 보석의 빛을 상실시켜 균형감을 잃게 하였을 때 인드라망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엄의 세계다.

바라바시는 "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경제, 세포, 인터넷 등과 같이 매우 상이한 시스템들간의 놀라운 유사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면서 "환원주의라는 상자에서 벗어나서 나가오고 있는 과학혁명-새로운 네트워크의 과학-을 한 링크 한 링크씩 탐색해 가도록 자극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세계는 그렇다면 중중무진한 화엄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라바시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과학 이론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의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아닐까 싶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불우했던 천재화가들의 삶과 죽음



'요절'
조용훈 지음
효형출판 / 1만2천원

"병상일기-영원한 퇴원-죽음. 다가오는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다. 우리가 죽음을 잊는다 해도 죽음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구본웅에 이어 한국의 로트렉으로 불린 곱추 화가 손상기(1949~1998). 그는 짧았지만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며 유서 대신 이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 시쳇말로 요절했다.

요절(夭折). 단어의 뉘앙스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요절'은 말 그대로 '삶의 허리' 쯤에서 맞은 죽음을 이른다.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만으로 운명적인 단어인 요절을 설명한다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열정과 광기, 사랑과 고독으로 불태운 예술혼

요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타인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요절〉을 읽어 보라고 권할 수 밖에 없겠다.

최근에 나온 〈요절〉은 과히 천재적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엽두명 화가들의 불꽃같은 삶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부제가 '왜 죽음은 그들을 유혹했을까' 이니, 책 속의 모든 이야기가 그들의 삶과 사랑, 예술적 지향을 거쳐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책을 읽어 가다보면 범인의 눈과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들은, 예술가들은, 그토록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치유 불가능한 고독에 감금당하고, 스스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광기와 예술혼 때문에,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비굴한 삶을 택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나라 잃은 설움을 울부짖는 듯한 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1916~1956). 그는 동방의 루오로 호평 받던 때에 야마모토 마사코 라는 한 일본 여성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랴, 삶에서 가정법은 없다. 운명은 인간에게 재능을 선사하고 잔인하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상투인 것을." 이 책의 저자인 시인 조용훈(청주교육대 교수)은 요절한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은자 기자

日의 역사왜곡 치밀하게 해부

전문가 서평

'1894년, 경복궁을 정복하라'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박맹수 옮김
푸른역사/1만원



'경복궁 점령사건' 통해 황국사관 비판
정확한 사료 바탕 역사 조작 논증

최근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고발한 번역서가 출간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894년, 왕궁을 점령하라!〉, 도전적인 제목하의 책이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의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된 경복궁 점령사건을 소재로 했다. 저자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는 청일전쟁, 갑오농민전쟁 등에 대한 역작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20여년 전에 발표한 글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한국민의 민족성만이 아닌 인간성 파괴까지 감행하였다"고 경고한 바 있다(〈내재적 발전론과 체국주의 연구〉, 〈새로운 韓國史入門〉, 돌배게, 1983). 평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쿠테타'로 파악하였던 저자는 1994년 봄 후루시마 현립도서관 〈사토(佐藤)문고〉에서 〈일청전사〉 초안을 발견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일청전사〉 초안은 일본 참모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한 〈메이지 이십칠팔년 일청전사〉의 초고이다. 두 책을 비교한 결과 저자는 공간된 〈일청전사〉는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렇다면 〈일청전사〉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왕궁점령 사건의 진상은 어떠한가? 그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894년 봄 갑오농민전쟁의 진압을 위해 파병된 청 일양국 군대는, 농민군과 조선 정부 사이의 전주화약 체결로 주둔 명분이 없어졌다. 이때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임을 강조, 조선에 청군을 구축(驅逐)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조선정부에서 이를 거부하자, 당시 오토리 공사의 뜻에 따라 모토노 이치로 참사관은 7월 20일 오후 1시 제5사단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를 만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7월 23일 왕궁 점령을 단행하였다. 왕궁 점령 과정에서 조선 병사의 저항은 일본군의 무력 앞에 좌절되고 결국 국왕은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이때 고종의 부친 이하응이 궁궐로 입성, 신내각을 조직하고 일본측의 요구대로 청군 구축을 요구하는 조서를 내려보냈다.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일 양국 병사의 우연한 충돌"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일본 공사관의 제안에 근거하여 일본군이 작전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대단히 계획적인 사건"이었다. 일본측 주장이 갖는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전투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던 경복궁 점령사건의 진상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저자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궁점령사건'을 통해 일본내 '황국사관(皇國史觀)'의 허구성을 고발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 사건을 전후해 언론 통제를 가했으며, 심지어는 '꾸며진 이야기', '조작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는 일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청일전쟁을 비롯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천황의 위광(威光)과 결부되어 한층 높아져 교육의 장에서 강요되었다. 학교 교육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허구를 바탕으로 '조작된 이야기'만이 '국민적 상식'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은 이어 한민족의 자주성을 간과하는 데로 이어졌다. 저자가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고개 위의 구름〉(우리말로는 〈언덕위의 구름〉으로 번역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코지마 노보루의 〈오야마 이오로〉 등을 비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일본군에게 진압되더라도 조선의 항일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멈추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 점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아예 관심 밖의 일로 돌렸다. 결국 그것은 "야무지지 못한 조선민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역사의 조작이었다.

일본에서 역사가 조작되고 왜곡되는 허구성을 고발한 이 책은 이처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일본의 역사 왜곡이 비단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청일전쟁 이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사소한 문제지만 대중서인 점을 감안,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왕궁점령사건의 일자를 양력을 채용해 1894년 7월 23일로 서술하고 있으나, 당시 우리의 경우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해 6월 21일로 이해하고 있다. 학술서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대중서인 점을 감안해 주(註)라도 달았더라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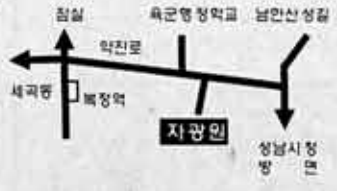
배이근호/ 국민대 강사, 한국사 전공

〈1894,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청일전쟁(1894~1895) 개전에 즈음하여 일어난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 사건이 뚜렷한 목적과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일본의 기록을 통해 실증한 책이다. 그리고 그 같은 역사 위조가 결코 일시적 발상에서가 아니라 근대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논증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혈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얼게 경제가 됩니다.
즉, 안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경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분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면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 (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삼보(三寶)의 출현

부처님께서는 전법을 결심하고 나자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 교화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있는 바라나시로 향했다. 대략 걸어서 18일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다. 바라나시는 예부터 카시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코살라와 마가다라는 두 강대국이 이곳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는 바람에 매우 피폐한 도시로 전락해 있었지만 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불전에는 단지 다섯 비구를 교화하기 위해 이곳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곳에 집결해 있는 수많은 수행자와 사상가 내지 문호들이 부처님의 관심을 이끌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부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을 설득하여 설법하게 된다. 〈전법륜경〉에서는 이때의 설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출가한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애욕에 탐닉하는 것은 범부가 하는 짓이다. 고행을 일삼는 것도 다만 괴로울 뿐이며 성스런 일이 아니다"라 설파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인 도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덟 가지의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덟 가지의 길이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어 구족계를 받고 최초의 제자가 되었으니 바로 콘단냐이다. 한역 불경에서는 아야교진여로 알려진 인물이다. 부처님은 나머지 네 명의 수행자를 위해 다시 중도법 이외에 보시, 지계, 생천(生天)법을 설했다고 한다. 아야교진여 이외의 수행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데는 며칠에 걸친 시간이 필요했으며, 일찍 깨달은 수행자들은 설법하는 부처님과 아직 깨닫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탁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까지 병행하여 당신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이전의 수행 동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으며, 그들은 기꺼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존경과 사랑으로 따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사슴동산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는 데는 중도법, 8정도, 보시, 지계, 생천론이 설파되었다. 중도법이란 인생에는 절도와 절제를 필요로 한다는 가르침이다. 보시는 사회적 덕목으로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점을 자각케 하는 가르침이다. 지계는 개인의 생활을 규율해 주는 덕목이며, 인도 전래의 수행자들이 공통의 규범으로 삼고 있었던 살생, 간음, 거짓말, 도둑질, 소유 등에 대한 금지였다고 생각된다. 생천사상은 사회윤리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선의 앙양과 악의 방지이다. 이것은 종교적 규범이나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제는 하늘[天]의 정확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범어 deva(데와)를 번역한 용어이며,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6도 중에서도 착한 공덕을 가장 많이 쌓은 중생들이 간다고 하는 삶의 범주이다.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heaven]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인도인들은 깨닫지 않는 한 영겁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세계가 바로 데와[天]의 세계였던 것이다.

초천법륜이 불교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시작했다는 점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불교도들이 귀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삼보가 비로소 갖추어졌다는 점이다. 삼보 중에서 부처님과 법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시에 등장하지만 삼보는 초전법륜을 통해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 그들이 부처님의 성실한 제자로 거듭 태어남과 동시에 탄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승가는 완전한 승가는 아니었다. 이들을 교화한 이후 부처님께서는 방황하는 젊은이 야사를 교화한다. 또한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을 돌려달라는 야사의 부모님마저 교화하게 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격한 야사의 부모님은 최초의 재가신도가 되는 것이다. 야사의 부모가 최초의 재가 신도가 되자 3부중의 승가가 되며, 부처님의 양어머니인 마하파제파티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자 4부중의 완전한 상가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4부중의 출현은 시간이 흐른 다음의 일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삼보가 이 인류의 장구한 종교사에 그 빛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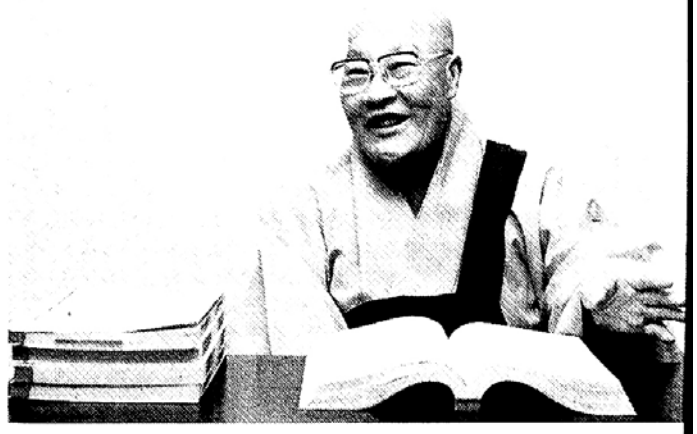
'초전법륜 불제자 교화' 동시 탄생

장구한 인류종교사에 '장엄한 빛'

가까이서 뵌 큰스님

남천 스님 (포항 약사원 조실)

매일 참회하면 날마다 새



◇나의 마음이 청정하면 이세상이 청정해지니 늘 마음닦기를 게을리 말라고 강조하는 남천스님.



◇남천스님(가운데)이 상좌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약사원(藥師院)은 화주산(華周山) 계곡 사이에 살풋 안겨있는 아담한 절이다. 대웅전의 오른쪽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큰 바위산이 눈길을 끈다. 그 바위 면에 마애부처님을 한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남천(南天)스님은 자주 산으로 포행을 가신다고 한다. 10월 22일 약사원을 방문한 날 점심에 스님이 포행갔다 주워오셨다는 도토리로 만든 고소하고 쌉싸름한 묵을 맛있게 먹었다.

남천스님은 절이란 어떤 곳인가 정의를 하시는 것으로 말머리를 꺼내셨다. "절이란 대중이 공동으로 마음에 묻은 업장을 세척할 수 있는 성지(聖地)이고 번뇌에 찌들린 마음을 정화하면서 인격을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생사윤회와 육도사생의 업고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절인데 요즘 불자들은 '복을 받는 곳' 이란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이 보시기에, 절에오는 신도들 중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어서 아들 낳게 해 주고, 남편 승진시켜 주고, 아들 합격시켜 주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복을 주었다, 어느 절에 갔더니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부처님처럼 노력하고 정진해야겠다, 부처같은 마음으로 일하겠다 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해요." 스님은 출가수행자조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스님들을 보면 듣기 싫다 해서 물리친다고 하신다.

"요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습득하는 정보도 엄청나, 이것 저것 아는 것도 많은데 현대인들은 지혜하고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을 수록 마음비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만이 청정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경전에서도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다 청정해 진다고 했잖아요. 밖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어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숨가쁘게 격변하는 사회에 살수록 자기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아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란 명과 상을 떠났으되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고, 시방과 삼세를 초월하였으되 그 광명이 법계에 창일하여 단 일초라도 그 은혜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삼라만상 처처에 법신이 상주하지만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은 동정(動靜)을 같이 하는 부처를 부처로 볼 줄 모르지요."

청정법신 속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의 진체를 보기는 커녕 인간세계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만 알고 이기심이 충만해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 고통속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옥에 사는 것"이라고 일갈하신다.

그렇다면 불자의 삶은 일반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항상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잘 살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고치려는 마음이 '참회'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별로 참회할 것이 없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수없이 악업을 지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매일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예요. 그렇기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요. 고요하지 않고 풍랑만난 배처럼 흔들리지요. 사람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후하고 너그럽기 쉽지만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오계(五戒)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된 점을 살피고 꾸준히 보완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천스님은 불보종찰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을 은법사로 모셨다. 남천스님은 효(孝)상좌로 소문이 나 있다. 오랜시간 시봉했으며, 수시로 은사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신다. 월하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계실 때도 약사원에 한동안 주석하실 정도로 스님을 가깝게 생각하신다고 한다. 상좌인 대광스님(약사원 주지)은 "우리 스님을 뵈면 '현진불' 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한다. 제자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신도들의 불교에 대한 질문이나 인생상담도 잘 받아주신다.

스님은 예전에 고아원에 가서 부모없는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원하는 이는 출가도 시켰다. 나이 어린 꼬마를 무릎에 앉히고 자상하게 공부를 가르쳐주었다고 상좌 스님들이 예전 일을 회상했다.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사찰이 무척 어려웠어요. 또 비구 대처 싸움이 심할 때라 경황도 없었고, 공부하고 싶어도 강원을 개설한 곳이나 책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너무 풍족하다 보니 예전보다 치열함이나 정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천스님이 젊은 시절을 회고하셨다.

월하스님의 가르침 '不經一事 不長一智' 知足可樂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문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 주 금 한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열순환 마사지 "열기왕청"
케이블 육아 TV,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

남천스님은? ——— "자신도 모르면서…" 청담스님의 일갈 화두로

최근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로써 다시 그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있는 청담스님(1902~1971)은 남천스님의 출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지식이다. 남천스님이 18세 고등학생때의 일이다. 충남 당진이 고향인 스님은 친구들과 수덕사 뒤 덕숭산에 놀러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다 청담스님을 만났다. 집안이 가톨릭이었던 남천스님은 당시까지만 해도 스님들 하면 무위도식자, 즉 얻어먹고 노는 사람들이란 고정관념이 있었다.

청담스님은 고등학생들에게 "이놈들 어디 가냐?" 물었다. "산에 놀러간다"고 하자 청담스님은 곧장 "네 자신도 모르면서 어디를 찾아당기노?" 쏘아부쳤다. 이어 남천스님을 보며 "예 종교가 뭐냐?" 물었다. 천주교라고 대답하자, "저 자신도 모르는 놈이 무슨 남을 믿고 다녀" 했다. 청담스님의 이 일갈은 18세 고등학생에게 화두 아닌 화두가 되었다. 남천스님은 청담스님을 찾다가(당시는 서울에 산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예산 탈해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통도사 월하스님을 은법사로 모셨다.

스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며 정진과 가람 수호에 주력해 오다 95년부터 포항시 연일읍 자명2동, 화주산(華周山) 약사원(藥師院)에 주석하며 대중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로운 날

스님은 수십년동안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신도들에게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해 포항시 연일읍의 소년가장들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진정한 대승불교가 돼야 합니다. 대비구세(大悲救世)의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불교의 본모습입니다."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인과가 엄연하다는 것만 제대로 체득해도 불교계 뿐 아니라 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는 원인과 결과 라고 하는 인과율에 의해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하며 인이 되고 과가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예쁘다거나 밉다거나 분별할 것이 없으며 애착해 가지려 하거나 싫어서 멀리 할 것이 없어요.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모든 것이 결과지어진다' 이 이치를 깊이 체득해야 하는데 말로만 알기에 항상 분별망상을 갖고 무명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불자들이 유의해야 할일

허명좇아 몰려다니지 말라
가르침 정확히 알고 실천을
자신 돌아보는 시간 꼭 갖도록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부질없는 행위를 그치고 오로지 좋은 인연을 쌓아 육도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불자들은 다행히 불교와 인연이 되어 수승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대부분 제대로 배우려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저냥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이신다. "부처님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들도 지금 당장 업보를 받지 않는다고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롭게 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경전에도 '선에는 선보가 있고 악에는 악보가 있으니 지금 그 보가 없다 하지 말라. 단지 그때가 안 되었을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업의 과보는 정확하다는 것을 명심해 스스로 닦고 경계하며 주변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며, 사는 동안 무수한 괴로움을 겪는다. 생로병사, 이 근본적인 괴로움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대신 자식의 병을 앓아줄 수 없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의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한다. 남천스님은 바로 부처님께서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코자 출가하고 그 의문을 해결한 스승이기에 우리는 부처님 가신 길대로만 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신다.

남천스님은 상좌들의 공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어느 제자는 강사로 있고, 봉선사 월운 노스님밑에서 계속 공부하는 제자도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실 정도로 게으름 없이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상좌인 시광스님(부산 보련사 주지)은 "우리 스님은 외곬수적 수행자"라면서 "그동안 꽤 많은 절의 불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는 바로 다른 이에게 주지 자리를 넘기고 훌훌 털고 나오신 적이 여러번"이라고 귀띔했다.

스님께 불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다. 세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몰려다니지 마세요. 어느 스님이 유명하다, 법문을 잘 한다 해 이름만 찾아 다니는 불자보다는 자기를 찾는 공부 해야 진짜 불자예요. 찾아다니려면 진실로 선지식을 찾아 하나라도 자기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불교가 무엇을 지향하는 종교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불교를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수라 봅니다. 복을 받으려고만 말고 내가 노력해 짓는다는 정신으로 이타행을 많이 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에 보시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해요. 저 스님이 이 보시를 다른 일에 쓰는 것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믿음 갖고 수행해야 진전이 있고 성취가 있는 법입니다.

셋째, 바쁘게 살아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 풍성히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았나 참회하고 다시 불자로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발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불자들은 사홍서원을 늘 부르잖아요. 나에게 본래 불성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 마음을 깨쳐 성불하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우고 염심히 정진하세요"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貪則憂'도 소개해 주셨다.
항상 만족해하고 하심을 한다면 어디서나 극락이란 욕심이 생겨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그곳이 로 지옥이라는 것이다. 예전엔 스님들이 옷 한 벌 어입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뭐든지 풍하니 도리어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시주물의 고마을 알고 하심하라는 것이다. "요즘은 다들 복이 많요. 천지가 책이고 강원도 많으니 공부하려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책도 있고 배울 곳도 있잖아. 우 젊을때는 책 하나 얻으려면 어른 스님들에게 여 번 이야기 해 간신히 얻어 책장이 떨어지도록 보 또 봤는데…"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보리스님

덕숭산 수덕사는 근대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만공스님의 법맥이 이어지는 도량이다. 그런 까닭에 산세가 작고 가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삼보사찰에 이어 조계종 덕숭총림으로 지정되어 그 위상과 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경허스님의 어록을 보면 늘 '호서로 돌아가는 승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허스님이 늘 돌아가고자 했던 그 '호서'는 바로 수덕사를 중심으로 서산의 천장사, 개심사, 부석사이다. 이 곳 절들은 경허스님의 보림처이며 선불교 중흥의 기틀을 다지고 후학지도의 인연이 익어진 곳이다. 경허스님은 무애자재의 행으로 일세를 풍미한 무애도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사의 걸림 없는 무애행은 출가 스님들뿐 아니라 세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경허스님의 활달한 선풍은 만공스님과 그 법손을 통해 덕숭산의 가풍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보리스님은 이런 덕숭산의 가풍을 잇고 있는 스님중 하나이다. 아직 스님은 젊다. 이제 삼십 중반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수덕사 생활



은 30년이 다 되어간다. 흔히 말하는 동진으로 절에서 자랐고 일찍 계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덕숭산의 가풍운운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다. 그렇지만 덕숭총림 정혜사 선원을 한철이라도 난 스님은 보리스님이 덕숭산 가풍을 잇고 있음을 다들 기꺼이 인정한다.

보리스님은 늘 맨발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옷은 다 낡아 떨어지고 군데군데 불구멍이 송송 나있다. 어깨는 장정처럼 떡 벌어져 있고 사람을 만나면 씩~ 웃는 웃음이 순박한 마을 총각을 연상케 한다. 생활이 일이고 일이 생활이라, 보리스님은 빗자루와 물양동이가 손에서 떠날 새가 없으니 양말은 신으나 마나고, 아궁이 앞에 앉아 공양주를 마다않으니 옷에 불구멍 가실 날이 없다. 보리스님은 선농일치(禪農一致), 선수행과 농사일을 한결같은 본분사로 삼으셨던 덕숭총림 2대 방장, 벽초 노스님을 꼭 빼 닮았다. 실제로 벽초 노스님의 무릎에서 자랐다는 보리스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노스님의 생전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노스님께서는 방장으로 계시면서도 "큰스님"하고 부르면 "노스님이라고 불러"하시고 절을 올릴 때면 "한번만 해, 한번만"하시며 삼배받기를 사양하셨다. 법상에 오르지 않으니 큰스님이란 호칭도 법사에 대한 삼배례도 당신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혹 신도가 인사를 한다고 하면 보리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큰스님 옆에서 자라면서 신도의 절 받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잘 아는 까닭이다.

계를 받기 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부터 수덕사에서 정혜사까지 1080계단을 쌀 지게를 져서 나르고, 공양주를 살면서 수좌스님과 신도들을 시봉하더니, 계를 받고 나서는, 하는 일은 똑 같이 하면서 칠철이 선방에 앉아 정진에 들어가더니 십여년 세월동안 한철도 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양주가 복짓는 일이라고 혹 다른 스님이 공양주 살기를 원하면 두말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누구든 소임보기 싫어하는 일을 맡기에 꺼림이 없다. 십년, 십 오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랫자리가 많아지고 점점 윗자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눈치다. 맘껏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게 갈수록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대중이 움직이는 일을 즐겨하진 않지만 절대 빠지지도 않는다. 분명 얼굴을 보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할 말이 있으면 보았을 때 하거나 약속을 해야지 일없이 오가는 법이 없다.

덕숭산 가풍이은 동진출가자
겸손함으로 자신의 흔적 감춰

보리스님은 무학이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잠깐 학교의 인연을 만들기는 했으나 학교의 인연이 절의 인연과 병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타고난 총기로 필요한 공부는 절에서 스스로 마쳤다. 그래서 보리스님의 수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단다. 제도적으로 계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라 이미 뼛속까지 스님 사상이 배었는데 수계를 인정할 수 없다니 난감한 일이었다. 하지만 곧 스님의 지나온 이야기가 전해지고 덕숭산 가풍의 현대의 계승자로 인정돼 버렸다. 아직도 이런 옴골은 동진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오래전부터 수덕사에는 동자들을 키워왔다. 절에서 키우는 동자들은 더러 가출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절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지만, 보리스님과 함께 자란 정혜사 동자들은 든든한 맏형 보리스님 덕에 다들 잘 자라 대학도 가고, 출가하여 계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부끄럼이 없고 스님들도 떳떳한 일이 되었다.

적지 않은 동자들이 절과 인연을 맺고, 자라서 계를 받기도 하지만 보리스님 같은 동진출가는 참 귀하고 귀한 일이다. 옛 스님의 발자국을 밟아가며 오직 실천행으로 수행의 기본을 삼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안으로만 자신을 찾아갈 뿐이다. ▣ 서산 부석사 주지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新禧!!!

☎ : 033-562-1535
H·P : 011-369-2732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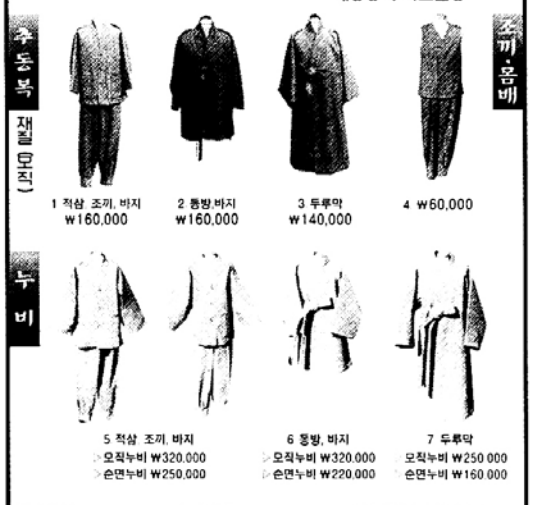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종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차라리 발견되지나 말지…." 강원도 양양 선림원터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동종(804년)은 '비운의 종'으로 통한다. 1948년 우연히 발견된 이 종은 상원사종과 성덕대왕신종(이상 8세기)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세번째로 오래 된 범종. 국보로 지정된 후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졌지만 한국전쟁 중 월정사가 불탈 때 녹아 버려 현재 3분의 1만 남아 있다.



◇52년만에 공개된 강원 양양 선림원터 통일신라 동종의 파편.



◇한송사터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

춘천박물관 10월30일 개관
6전시실·5,400여점 소장

소장유물 65%가 불교문화재

선림원터 동종파편 52년만에 공개
최신 전시기법 도입·영상정보검색

선림원터 동종의 파편이 52년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10월 30일 문을 연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응천)에서는 이 종의 파편과 함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당시 주조 방식인 밀랍주조기법으로 제작한 복제 종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1만400여 평 대지에 자리잡은 춘천박물관은 강원도에 처음 들어선 국립박물관이다. 94년 착공돼 8년만에 개관한 춘천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강원도에서 출토된 유물 5천4백여 점을 갖췄다. 661평의 전시실은 '선사' '고대(삼국~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 등 4개의 상설 전시실과 2개의 기획 전시실로 나눠져 있다.

춘천박물관 소장 유물의 65%가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강원도는 불교문화의 숨겨진 메카이다. 우리 나라 선종이 시작된 진전사터를 비롯해 선림원터, 흥천 물걸리 절터, 법천사터, 최근 5백 나한상이 출토된 영월 창령사터 등 고려·조선시대까지도 곳곳에 대규모 사찰이 융성했다. 선림원터에 출토된 귀면 기와와 흥천 물걸리 절터에서 나온 금동불상 4점(이상 7~8세기) 등에선 수도인 경주 못지 않게 화려한 불교문화가 꽃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통일신라 유물을 전시한 '고대실' 뿐만이 아니다. 일본에 유출됐다가 1960년대 반환된 고려초 '한송사터 석조보살좌상(국보 124호)', 금강산 그림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금강산에서 담무갈 보살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검은 철을 한 나무판에 금가루로 그린 '담무갈보살현신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 금강산 월출봉에서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글귀를 적은 '이성계 발원 사리구'(이상 고려실), 표면에 범어가 새겨진 유점사 청동범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상여인 '청풍부원군 상여'(강원도 민속자료 120호, 이상 조선~근·현대실)도 발길을 붙잡는다. 낙산사 담장을 복원해 놓은 야외 전시장도 볼거리.

전시 기법도 돋보여 선림원터 동종은 사람이 다가가면 종소리가 울리고, 담무갈보살현신도는 회전을 하며 앞면뿐 아니라 뒷면도 보여준다.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문화재 설명이나 영상실, 영상정보검색 시스템도 선보였다.

한편 춘천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 대가들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이는 '우리 땅, 우리의 진경' 특별전을 기획 전시실에서 한 달간 연다. 30일까지 무료입장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1일부터 세계불교미술전
혜안스님, 화서각등 10점 출품

태국왕실에서 주최하고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에서 주관한 '국제불교미술전'이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 플라자 아데니 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3백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혜안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반야심경 가리개와 화서각 가리개, 화서각 등 10점을 출품한다. 또 불화가 박경귀씨도 지장보살탱화 1점을 내놓는다.

혜안 스님은 "세계 불교미술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만큼 일본에서는 불교미술가들이 1백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수익금 일부는 국제 템플스테이학교와 청소년 불교미술학교 건립을 위해 사용되는 등 세계불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혜안스님 서각화 '해를지고 가는 아이들'

김주일 기자



◇KBS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는 LMB싱어즈단원들.

LMB싱어즈 창단 4주년
찬불가-대중가요·팝송 등 다양
8일 건국대 새천년관서 기념공연

젊은 불자성악인들로 구성된 찬불가 중창단 LMB싱어즈(대표 황영선)가 8일 오후 7시30분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4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갖는다. '찬탄의 노래, 가을의 향연'을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길을 갑니다', '부처님은 이르시네', '님께로 가오니' 등 6곡의 찬불가로 서막을 장식한다. 이어 2부 '사색의 향연'에서는 교성곡 '대각국사 의천'의 주제부분과 오페라타 아미타불중 '육바라밀'이 공연된다. 또 젊은 관객들을 위해서 3부에서는 '마법의 성'을 비롯해 '퍼햅스 러브', '투 나잇' 등 대중가요와 팝송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찬불대중가수 김무한씨와 클래식 연주가 황희정씨가 우정 출연할 예정이다.

황영선 대표는"기존 찬불가는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는 남녀혼성의 4부 편성이 많지 않아 찬불가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남녀혼성 4부 중창단인 LMB싱어즈는 찬불가 악보를 4부 편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찬불가의 대중화와 교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Lovers of Music, Beacons of light'의 약자로 '음악을 사랑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란 뜻의 LMB 싱어즈는 99년 3월 창단이후 오페라타 '아미타불'을 비롯해 'KBS 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산사음악회', '군법당 위문법회' 등 1백여회 이상의 무대에서 활발한 음성공양을 펼쳐왔다. 02523-3677



◇귀일스님의 연꽃 보상화 소품.

봉정사 요사채 서까래 등
버려진 나무에 연꽃그림
귀일스님, 내년 보상화 소품전 계획

하얀 도화지는 너무 깨끗해 그림 그리기가 부담스러운 것일까. 옛 기와에 그림 그리는 귀일 스님(안동 봉정사 지조암)이 이번엔 목재로서 구실이 다한 나무에 그림을 그려 화제다. 스님이 화재(畵材)로 선택한 나무는 안동 봉정사 요사채의 서까래와 안동지역 고가(古家)에 사용된 목재들. 주로 소나무로 직경 약 25㎝미만의 원형으로 잘라 고운 사포로 20여분간 문지른 후 행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당채를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 귀일 스님이 주로 그리는 것은 차탁과 장식용 소품. 연꽃이 주된 소재지만 종류는 연잎, 연씨, 여러겹의 연꽃 등을 형이상학적으로 디자인 한 보상화가 1백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모양과 채색이 다양하다.

2년전부터 나무에 그리기 시작했다는 귀일 스님은 "사찰 불사에 사용된 재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신도들의 시주로 이루어진 소중한 정재"라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낡은 나무 서까래들이 개보수시 방치되다 불태워져 한줌의 재로 남겨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 스님은 "특히 서까래로 사용된 대부분의 소나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갈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감과 향이 뛰어나 소품 재료로 쓰기에 안성마춤"이라고 설명한다.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포이동 능인선원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귀일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5백여점을 선보일 '보상화 소품전'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일기자

윤회 등 4가지 주제 꽃꽂이展
보림회, 코사지 만들기체험 기회도

꽃꽂이의 표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쯤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라면 보림 꽃예술중앙회(회장 지연스님)가 9일부터 3일간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 마련하는 꽃꽂이 전시회에 들러보자.

'산사의 사계', '윤회', '전통등과 함께하는 꽃', '불교의식 장엄화'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 가면 60여점의 창작 꽃꽂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9일과 10일 오후 3시에는 '코사지 만들기'(포켓에 꽃을 수 있는 꽃)'와 '꽃 한송이 포장하는 법'을 주제로 한 꽃꽂이 체험 프로그램도 열려 꽃의 미학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02)918-0034

김주일 기자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승 복 법 복 안 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 삼 (모직)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듣고·만지고·냄새맡는 장난감 같은…

다양한 기능성 유아용 책들

듣고 만지고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다양한 유아용 책들이 선보이고 있다. 책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책읽는 습관을 들여 줄 수 있는 점은 과외의 소득. 이런 책들의 진짜 목적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물에 대한 이해와 감각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기능성 유아 책을 살펴보자.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수있는 시계그림책. 자동차 그림책 등으로 구성된 '울퉁불퉁 모양 그림책'.(사진제공=아가월드)

소리가 나요

계림닷컴이 내놓은 '소리 나는 책' 시리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이어폰북'은 책에 붙은 스피커를 통해 구연동화가 흘러나온다. 이어폰을 연결해 들려주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책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나 CD를 제공하는 책도 있다.

손으로 만져요

복슬복슬한 곰인형, 폭폭 들어가는 목욕 스펀지, 까칠까칠한 지푸라기 …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사물의 느낌을 익히게 도와주는 책들도 있다.

예림당의 '촉각그림책'은 단추나 모래 등 동화에 나오는 물건들을 만지고 눌러보며 질감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 꾸며졌다.

'두드려보아요'는 책을 읽는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도록 꾸며진 책이다. 한 페이지 전체를 문으로 꾸며 진짜 문을 여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향기가 나요

꽃이나 과일 향기가 나는 책도 있다. 한국셀로비가 만든 '향기 나는 과일'은 사과, 포도, 딸기 등의 과일 향이 나는 스티커를 붙여 놓아 손끝으로 만지면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림이 튀어나와요

동화의 배경이 되는 성이나 집이 펼쳐지는 입체 그림책은 아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해 준다. 신발을 벗겨보거나 냉장고를 열어볼 수도 있고 칫솔 같은 생활용품들을 따로 떼어내어 만져볼 수 있게 꾸며진 책도 있다.

물 속에서 책 읽어요

최근에는 물에 젖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 목욕할 때나 수영장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책도 나오고 있다. 삼성출판사는 물에 젖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 물 속에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목욕용 책을 펴냈다. 무독성 비닐과 잉크를 사용해 입에 넣어도 안전하다.

고를 때 유의 사항

건강유해여부 · 안정성문제 따져봐야

연령고려…어렵고 복잡하면 흥미 잃어

화장실 벽에 붙여놓고 매일 한 장씩 읽는 책도 있다. 흔히 '배변책'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은 귀여운 삽화나 갖가지 '똥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아이들의 '화장실 공포'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된다.

장난감으로도 써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나 인형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과 장난감을 함께 묶은 것이다. 동화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역할과 여러 가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책 고를때 유의할점

유아용 책을 고를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안정성. 아이들이 입으로 물거나 빨더라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

아이의 연령과 학습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법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면 아이가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교재나 완구에 적정 연령이 표시돼 있지만 아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

가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유아용 책은 출판사와 내용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고 같은 제품이라도 파는 곳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인터넷으로 가격대를 알아보고 사는 것이 좋다.

쑥쑥몰(http://suksuk.co.kr)이나 베베마트(http://bebehouse.co.kr/mart)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수경 기자

오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불교여성개발원, 자기점검표 만들어

불교 계율의 근본이 되는 오계. 그러나 계를 받을 때의 마음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살기가 쉽다. 오계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오계 수지 자기 점검표'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전통적인 오계를 현대사회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 · 적용한 것이다. (잘함-5점, 보통-3점, 잘 못함-1점)

1. 불살생: 마음으로 죽이거나 해하지 않는다.

1) 나만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래서 안돼"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

2) 경쟁 상대가 잘 못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

3) "(혈연, 지연, 학연 등) 00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00하다"라는 편견을 갖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

2. 불투도: 모두의 복덕을 바라는 '마음의 부자'가 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2) 나의 노력의 결과 외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3) 모두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3. 불사음: 자기중심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

1) 인간관계에서 정직과 신뢰, 진실을 지킨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2)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공동의 행복을 도모한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3)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 성불하기를 바라며 돕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4. 불망어: 항상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말한다.

1)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모두를 살리는 선의의 거짓말만 제외)

잘함( ) 보통( ) 잘 못함( )

2) 비난과 부정보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

3) 상대의 근본은 부처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말씨를 사용한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5. 불음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중용의 소비생활을 도모한다.

1) 소득은 더불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2) 불필요한 낭비와 지나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3) 부처님의 자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한다.

잘함( ) 보통( ) 잘 못함 ( )

자료제공=불교여성개발원

×15-30점 초발심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31-45점 좀 더 노력하는 불자가 됩시다
×46-60점 보통 깜을 가고 있습니다
×61-75점 당신은 모범적인 불자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감자탕



감자 4개, 표고버섯 8장, 다시마(10cm) 1장, 집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약간씩

1. 감자는 껍질을 벗겨 크게 4등분해 집간장에 절인다. 그래야 감자탕을 끓였을 때 잘 부스러지지 않는다.

2.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큰 것은 손으로 쪽쪽 찢는다. 표고버섯 밑동을 따로 모아 찌개에 넣거나 조림으로 만들 수 있다. 다시마는 물에 한 번 씻는다.

3.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감자, 표고버섯을 넣고 볶다 다시마, 감자 절였던 집간장, 고춧가루를 넣고 더 볶는다.

4. 감자에 간이 배면 물을 자작하게 부어 뚜껑을 닫고 끓이다 끓으면 뚜껑을 열고 불을 줄여 푹 끓인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전통문양 응용…취업 등 소원 담아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불자용 행운 넥타이

남성의 옷차림을 마무리 하며 화려함을 더해주는 넥타이. '불자용 행운 넥타이'는 전통문양을 응용해 디자인한 것으로 건강과 재물, 취업, 사고방지, 인연, 합격 등의 소원을 빌어준다. 고급 실크를 사용해 멋을 더해주며 소원과 색상에 따라 7가지 종류가 있다. 값 3만8천원.

건강단신

만성 신부전증 특별강좌

서울대학교병원이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1회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특강-투석과 이식'을 실시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병동 임상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강의는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와 장기이식연구소가 주관한 것으로 만성신부전증의 원인 및 치료방향, 어린이 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의 합병증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02)760-1672, 2496

비만체중감량교실 열어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요리법'을 주제로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9일 안산조리학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비만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무료 교육이다.(031)481-3468

혈압 등 환절기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가 환절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혈압과 비만도, 스트레스 검사는 무료이며 소변검사와 간 심장 기능검사 등이 포함된 전체 검사비용은 5만9,460원. (02)2601-7161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Ⅱ.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과정	연구과정
불교학과	불 교 학	00명	00명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명상심리학		
	요가치료학		

Ⅱ. 지 원 자 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 없음)

Ⅲ. 전 형 일 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02. 10. 21(월) ~ 11. 9(토)
장 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2. 11. 16(토) 9:0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Ⅳ.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Ⅴ. 전 형 료 50,000원

Ⅳ. 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02. 11. 22(금) 10:00
2) 장 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 02)808-3321, 6582

Ⅶ. 특 전 1) 성적우수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 지급
2) 취득가능 자격증 ▷ 불교학과 : 전법사, 명상치료사, 불교상담사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명상치료사, 요가치료사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808-3321,6582 Fax 02)808-6581 주소 : 우)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교 수 초 빙

Ⅰ. 초 빙 분 야

전 공	초빙인원	임용예정일	비 고
상담심리학	0명	2003. 3. 1	계약제 임용
명상학 또는 명상심리치료학	0명	2003. 3. 1	〃
요가심리학	0명	2003. 3. 1	〃
미술치료학	0명	2003. 9. 1	〃

Ⅱ. 지 원 자 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Ⅲ. 제 출 서 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격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라. 연구실적물('98. 11.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석 · 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Ⅳ. 제 출 기 한 2002. 11. 25(월) ~ 2002. 11. 29(금) 17:00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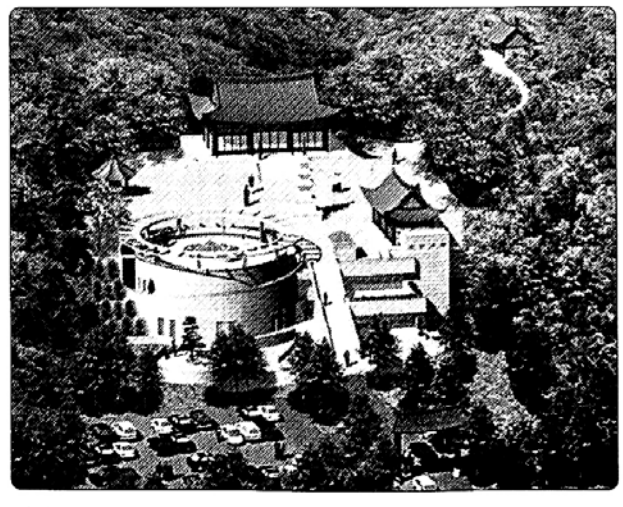
Ⅴ. 제 출 처 우)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1층 행정실)

Ⅶ. 기 타 사 항
가. 우편접수는 2002. 11. 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작겨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 02)808-3321,6582 Fax 02)808-6581

서 울 불 교 대 학 원 대 학 교

회원 모집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장례에서 납골 · 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자체주차장과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2-3493 www.bojangsa.co.kr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발간안내

혁신판을 「수정보완」하여 활인차원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오행가는 오행가대로, 오행을 모르는 분은 모르는대로 온 시간, 전화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만 보면 이렇게 자세히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시간에 몇명이 오든 각기 다르게 판단되도록 새로 제작한 설명비디오와 새로 고쳐쓴 부록에 자세히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값이 비싼것 같으나 이책 하나만 장만하면

활인천역자로서의 능력이 단번에 높아지고 그 효과에 의해 살림이 편안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지난 2년간 검증된 사실입니다. 기존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절차에 의해 교환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더이상 교환해드리지 않습니다.

월장 亥 월건 寅 · 점시(占時)가 월장을 충(沖)하면 재앙(災殃)을 방비해야 할 사람이다.

丙 寅 日 각 시간별 래정(來情) 공망 戌 亥

기력(氣力) 해당지지

旺(기왕)	相(진세)	休(손퇴)	囚(무모)
寅卯辰	巳午未	亥子丑	申酉戌

■ 본 월장 사용기간은 우수 日이 되는 時·分부터 (본책 권수 사용시기) 춘분 日이 되는 時·分 전(前)까지로 한다.

기궁 巳 : 점시(占時)가 기궁 및 기궁상신(干上)과 충(沖)되면 신변동요와 이별사가 있는 사람이다.

■ 오늘은 갑자 旬中 셋 째 날이므로 귀인 역행(-) 일때는 8 일후 재정단하여 온 시간이 귀행순행(+)될 때 택일하여 수법을 행하라.

시모공망표시	십이운성신살	정단시간	점시장재불안	귀시에 의한 래정(來情) (우손 일로 왔는가)	국수 局數	貴人順逆法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전 동정 動靜	초 사 (점자에게 던질 첫말)	支上 길흉숙지 오안사 可·否	점자가 저지른일 남으로부터 당한 일 여 부	구사 (불후)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앞으로 일어 날 일여부	점자의 이 해실로 능 득 치 가 여 부	삼전 (三傳) 일의 시작과 그 결과 판단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 부 (어 떤 신 인 가)	산소탈 음 덕 묘지상태 (누구 산소인가)	빌 미 부정여부 점자의 (띠 별)	귀신침해 산소탈 부정빌미 해 소 지 침	家相 貴賤 자식 吉凶 이사 可否	이사 吉方 및 택일	옹 기 일이 되는 일, 월	선 인 ○ 보통인 △ 악 인 ×	피해를 가해온 남녀 방위	사 과 삼 전 요 결(了訣) (이 맡은 점자의 처세 판단이므로 세부적 成否는 뒷면 해당 국수에 준하라)
七殺	胎 재살	十子 ①卯	將 貴 부인 병 업무 예 관련됨	온(전화)목적은, 관직·직업, 또는 남편의 일에 관련된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이다.	제 ② 국	+	지일課 : 이 사람은 지금, 동료에 의해 일이 벌어져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그쪽이 넘치니 의문과 의심이 있다 두가지 중은 언뜻 보기에 좋은듯 선택하라 이 중요로 수법을 쓰라 천지반화극살 질투건이 있다 천지반상극하 협의를 받고 있다 지반하상극 처 · 자 · 소송 불안 시기 있다 천반상하극 친구로 중심을 받고 불리하다	子 丸 관살 남 편 근 심	이미 끝난 일이 재발하게 생겼네? 두가지 일로 기로에 섰군요? 남의 호언장담을 믿지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처성을 잘 드리세요 돈만 나가는 일이 되니 새로운 일은 중지하는 것이 좋겠어! ⊕水귀, 음귀가 동시에 발동이야! ⊖도로귀 · 신의 부정이구나!	丑 朱 손해실망	辰 朱 문서사 오 정관	타 발동사 육전사 내사가 출외됨	반 복 사	올 일	손해사 병 오래감 (신부정)	子 × 이외사 도 인간	亥 × 이른사 도 관리	戌 × 여인사 도 상인	밤 신불제사 도로 시 鬼	외조모 子 낙태 외조모 夫	밤 寅·申 巳·亥 丑·未 시 띠	오행 寅 구氣 6 색상 青 방위 卯 재료 주사 일수 6 日	빈빈빈권 구설 凶 이사	午·酉 日 위 유합 日	寅·卯 午 日, 月이다	×	寅 남 女 여 사	이 국수자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서로 친밀하라 겸손하고 관대하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힘조해 올 것이니 충복을 얻을 것이다 단,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 **遙遇巨測**
雀 재살	養 천살	一丑 申⑧	將 貴 상 인 면 기 령 예 관련됨	온(전화)목적은, 박관·심직사, 또는 불명예사가 있다. 남편, 또는 자손사에 관련된다.	제 ③ 국	+	중심課 : 이 사람은 지금, 이래에서 위를 범하는 역조의 심이다 모양사는 신흉후길하게 된다 먼저 나서지 말고 되는 일에 순응해야 유리해 진다 노인에게는 불청하다 귀인이 역행하면 재난을 안던져게 된다 이점을 명하고 수법을 쓰라	丑 朱 상관 권 사 구 설	가정이 예의가 없고 편안치 못하네? 갈라지는 상이야!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지체되네? 마음이 서로 다르니 사기를 조심해야 되겠어!(청년이 卯이면 해가 중하다) ⊕변사 · 자살귀이야! ⊖신 부정이 들었어! 도로귀도 보이네?	子 蛇 매해들가	巳 白 괴이사 오 인간	타 발동사	구 사	일어난 일	피해사 병 질 치 (신부정)	丑 × 문서사 도 인간	亥 × 이른사 도 관리	酉 ○ 음식사 도 상인	밤 신불제사 도로 시 鬼	외조부 사위 외조모 子 낙태	밤 子·午 卯·酉 寅·申 시 띠	오행 寅 구氣 6 색상 黄 방위 辰 재료 주사 일수 6 日	빈빈병부 질의주동 괴이 凶 이사	未 日 위 유합 日	寅·卯 辰 日, 月이다	○	이 국수자는, 큰 혜택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곧 영광이 온다 유순하게 언행하고 포용력을 수지하라 **人化暗遭害害**
比 지살	殺 지살	十寅 ③巳	將 貴 공 무 문 장 예 관련됨	온(전화)목적은, 매사가 막히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의 손해, 여인사에 관련된다.	제 ④ 국	+	호시課 : 이 사람은 지금, 시작은 크나 결과는 작다 주인은 유리하고 상대가 불리하다 주인은 유리하고 대사는 불리하다 선수는 불리하고 후공이 유리하다 미래 노선에 걸맞은 위치에 있으나 결국 하가 없으므로 호황이기 아닌 고정이인 생이다 걱정은 서남북이고 기분은 서북쪽이다 이 점으로 수법을 쓰라	亥 貴 관산 직 위 여 부	불륜이네? 삼각관계에 빠졌어! 한 여자에 두 남자가 붙어 있네? 그런데 마음이 거꾸로네? ⊕변사귀가 들었어! ⊖신의 부정이 탔어!	亥 貴 무력본성	申 貴 어른사 오 인간	타 발동사	신 사	올 일	무력人 신 병 치 료 구 병 불 치 (신부정)	亥 × 이른사 도 인간	申 × 분장사 도 인간	巳 ○ 고위사 도 인간	밤 신불제사 시 鬼	부의 형제 처 부의 형제 子 낙태	밤 辰·戌 丑·未 卯·酉 시 띠	오행 卯 구氣 9 색상 赤 방위 午 재료 주사 일수 9 日	빈빈빈빈 질의주동 공망 凶 금전	申·子 日 위 유합 日	辰·巳 午 日, 月이다	△	이 국수자는, 겁먹지 말라 지금 보라는 것은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 일 뿐이니 해져 볼 일이 없다 직게 이루어 지는 일에 만족하라 손님을 채우지 말라 **口舌信息 又疾病**
害 지살	浴 년살	一卯 戊④	將 貴 貴 朱 관 문서 사 동산 예 관련됨	온(전화)목적은, 남녀 불문하고 색정사에 관련된다 수상 · 존장사, 또는 후원사 · 사업사이다 내외 화합사가 있다.	제 ⑤ 국	+ 수법효과여부 (○)	+ 수법효과여부 (○)	중심課 : 이 사람은 지금, 이래에서 위를 범하는 역조의 상이다 모양사는 신흉후길하게 된다 먼저 나서지 말고 되는 일에 운을해야 유리해 진다 노인에게는 질병이다 귀인이 역행하면 재난을 안던져게 된다 이점을 명하고 수법을 쓰라	子 蛇 관 사 부인 질병	일을 다시 일으켜 세워볼 계획이신데, 당장은 고생만 많고 이루지는 못하겠어! 男 남의 여자를 유혹해서 내것처럼 쓰고 있네?	戌 辰 巳 午 未 申 무력본성	午 ○ 여인사 오 인간	寅 ○ 시비 남녀 음식 사 오 인간	타 발동사	구 사	올 일	무력人 신 병 치 료 구 병 불 치	戌 × 음식사 도 인간	午 ○ 여인사 오 인간	寅 ○ 음식사 오 인간	밤 시 鬼 낮 시 鬼	봉우·형제·자매 봉우 형제 자매	밤 寅·申·巳 戌 亥·辰·酉 시 띠 낮 寅 申 亥 巳 시 띠	오행 寅 구氣 8 색상 青 방위 卯 재료 일수	빈빈빈빈 질의주동 부정 凶 금전	酉·丑 子 日 위 유합 日	辰·巳 午 日, 月이다	×	申 남 밤 申 女 낮 남자 밤 남자	이 국수자는, 큰 혜택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곧 영광이 온다 유순하게 언행하고 포용력을 수지하라 **夢寐妖邪**
冠 월살	冠 월살	一辰 ⑤未	將 朱 문 서 착 오 불상사 예 관련됨	온(전화)목적은, 자손 · 박관 · 출모 · 분실, 또는 실직사이다.	제 ⑥ 국	+	지일課 : 이 사람은 지금, 동료에 의해 일이 벌어져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의혹이 넘치니 의문과 의심이 있다 두가지 중은 언뜻 보기에 좋은듯 선택하라 이 중요로 수법을 쓰라 천지반화극살 질투건이 있다 천지반상극하 협의를 받고 있다 지반하상극 처 · 자 · 소송 불안 시기 있다 천반상하극 친구의 중심을 받고 불리하다	子 后 인수 부 인 심 근 심	옛 인연들이 끊어지네? 선택의 기로에 섰어! 골육간에 배신하게 생겼군! ⊕물에서 자살한 귀신이 물었네? ⊖도로 귀신이 장난을 치네?	酉 貴 노력가능	未 貴 존장사 오 인간	아 발동사	반 복 사	올 일	이익人 병 치 료 (자살귀)	子 × 기숙사 오 인간	未 × 음식사 오 인간	寅 ○ 고위사 오 인간	낮 도로 시 鬼	男 女	낮 子·午 卯·酉 시 띠	오행 寅 구氣 8 색상 黄 방위 未 재료 주사 일수 8 日	빈빈부빈 질의주동 안정 귀자	丑·寅 日 위 유합 日	巳·午 未 日, 月이다	○	이 국수자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서로 친밀하라 겸손하고 관대하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힘조해 올 것이니 충복을 얻을 것이다 단,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 **夫婦不和**
月將神	絶 망신	一巳 午⑥	將 天 문 서 목 적 달성 예 관련됨	온(전화)목적은, 직 · 녹을 구하는 일이거나, 입신상의 일이다. 상을 받는 일이 있거나, 명예사가 있다 재앙을 방비해야 한다.	제 ⑦ 국	+	반음課 : 이 사람은 지금, 배반시를 겪고 있다 심신이 두가지로 동요하여 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 간 사은 오리하고 온 사은 기려한다 무슨일도 오래기지 않는다 지금 시장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도모해야 효과가 있다 귀인 순역을 보아 이점으로 수법을 쓰라	寅 靑 인수 사 업 금 전	부부 모두 딴 마음이네? 일이 두 가지라서 딱 정해지지 못하고 있겠군!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예의를 지켜야만 좋게 될꺼야!	申 后 노력가능	寅 ○ 여인사 오 인간	타 발동사 육전사 내사가 출외됨	반 복 사	일어난 일	이익人 병 치 료	寅 ○ 고위사 오 인간	申 ○ 여인사 오 인간	寅 ○ 고위사 오 인간	낮 시 鬼	男 帥 女 帥	낮 辰·戌 丑·未 시 띠	오행 寅 구氣 8 색상 방위 재료 일수	빈빈부빈 질의주동 안정 귀녀	寅·卯 日 위 유합 日	午·未 申 日, 月이다	△	이 국수자는, 기세가 충동하니 시위하는 격이다 시기나 경쟁지가 나타난다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것이 있다 소송은 일성되나 재물과 신분창상은 소리에 비해 실속이 없을 것이다 **離逢退**

• 卯시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이고, 酉시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이므로, 이 두 시간은 계절에 따라 각각 양시각(陽時刻)을 갖는다
• 차히 寅 · 가을에 초이하라 구분이 힘들때는 양陽(陽도)을 보라
• 공함 외에 진 술 · 축 · 미시에 해당되는 인(人)은 기도상황을 봐야할 영고신양인(人)임을 참고하라
• 공망이 일간(日干)을 극하면 아신(我神)이 많고, 일지(日支)를 극하면 가정에 압슨(壓損)이 있다
• 록당 국수 초전의 용변사상을 함께 래정에 투합(付合)하라
• 초전이 점시를 극하면 심동무경(心動無驚)이 있다
• 초전이 일간을 극하면 점자(占者)의 몸이 상한다
• 역마공망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얻다
• 상대 사전 회상사등 모든 「길흉숙지법」 정단의 되고 안되고, 할고 나쁘고 하고 말고 이주사 은하시옵 이로서 판단하라 아울러 학사(學)에는 오른쪽 「인외 시작 중간 결과」 란의 ○, ×표시 및 사상을 말하고 빠르게, 또는 늦게 합합을 교시하라
• 일간과 초전 · 중전 · 말전의 생 · 비 · 재 · 극 · 설 공합 (초 · 극 · 생 · 비 · 재 · 설 · 극)관계를 보라
• 일지 상신(日支上神)이 나한 경우 초전 · 중전 · 말전에서의 일지상신 제극(制剋) 여부를 보라 이로서 동택 · 주이 · 결과적 결론을 내라
• 별이부정의 남녀를 구별하는 데는 뒷면 국수의 천반 노 이 지반지지가 양지(+)이면 남자, 음지(-)이면 여자에서 온 것으로 보라
• 오행은 귀신이거 오행상호자주이다
• 宇數는 귀신이거 오행상호자주이다
• 색상은 부적종이 색깔이다
• 방위는 초료 · 천적, 또는 기도 방위이다
• 재료는 초료, 비석, 흙, 나무등이다
• 일수는 기도 일수이다
• 위 「음기」는 정단 계절이 마라 최고, 안정수 있으므로 반드시 천사(天使) 지라(地羅) 질(疾) 인화(인화 · 카톡) · 변우(변호사 · 무 · 경 · 단) 가입에 의한 음기 기 · 미를 참검하라
• 말상(末相) 등으로 나타나는 휴우사(休囚死)는 낮거나, 황상(旺相) 하지는 힘이이에 된다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이 크기는 실물 크기로서 8절지 앞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子~巳시까지, 뒷면 午~亥시까지

♠위 책 본문 각 칸에 대한 보기설명 (번호순 ①~㉛)

①월장 : 공간과 시간이 부딛치기 때문입니다.(상단)
②기궁 : 내몸의 본신이 공격을 받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상단)
③사용시기 : 이 책 권수의 사용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상단)
④공망시보 : 전문가는 이곳만 봐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⑤십이운성 : 육임은 그날의 일간이 정단요청자가 되는데 이 시간이 일간에서 보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부록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⑥정단시간 : 찾아온 시간, 전화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을 표시한 것이고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온 사람은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시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번호는, 한꺼번에 여러사람이 왔을 때 번호를 고르게 하여 고른 번호가 써진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명을 볼 수 있습니다.
⑦점시천장 : 정단 시간마다 어떤 특별한 마음상태를 갖고있는가를 밝힌 것입니다.
⑧래정 : 무슨 일로 왔는가? 전화했는가를 써 놓은 것입니다.
⑨국수 : 온시간에 의해 우주의 천기가 응집되어 정체성을 갖게 되는바 뒷면에 그것을 밝히고 묻게될 22가지 항목에 길흉성부를 따져 놓았습니다.
⑩◎수법가부 : 모든 수법(천도제·구병시식·굿·부적등)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아는 곳입니다.◎
⑪과체 : 온 사람의 총체적 정황을 써 놓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 수법을 행하는데 불안없는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⑫초전동정 : 육임에서는 초전이 용신(用神)이고 사건의 발단을 아는 곳입니다. 여기에 써진 내용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⑬초사 : 문 열고 들어서는 사람, 시선이 부딛친 사람, 전화온 사람, 가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내쏘는 말입니다. 틀림 없습니다. 귀신역시 정확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너무신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⑭支上 : 모든 일의 되고 안되고의 결정과 무엇 때문에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⑮아타사 : 온사람이 스스로 저지른 일인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가를 써 놨습니다.
⑯신구사 : 온사람의 일이 오래된 일인가? 근래에 일어난 일인가? 반복되는 일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⑰미기사 :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⑱이해득실 : 이세상은 관계사회로서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때 정단자의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써 놓았고 무슨일로 그런결과가 되어 질 것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⑲◎또 병자가 온 경우 기도·수법으로 치료시킬 것인지 못고칠 질병인지 무슨 귀신이 침범해서 생긴 병인지를 밝혀 놨습니다.◎
⑳삼전 : 어떤 것을 묻든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좋고 나쁘고를 밝히고 무슨 일 때문에 좋고 나쁘게 된다는 것을 교시해 줄수 있습니다.
㉑귀신침범 :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써놓았습니다.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 집안에 반드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㉒산소탈 : 누구산소에서 지금 탈을 부리고 있는지도 밝혀집니다. 부록에는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자세히 밝혀 놓았습니다.
㉓빌미부정 : 온사람의 가장이나 가택이나 식구에게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띠별로 밝혔습니다. 부록에는 자세히 이 부분을 써 놓았습니다.
㉔귀신침해 해소지침 : 여기에 명기된 대로 수법을 쓰면 기사이적이 일어납니다. 부록에 방법이 따로 써 있습니다.
㉕◎산 소 탈 : 어떻게 산소탈을 제거해 줄 것인가? 이를 밝힌 것입니다.
◎해소지침 : 부록에 참으로 묘하게 자세히 그 방법을 밝혀놓았습니다.
㉖가상빈부 : 온 사람이 우선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집안에 지금 무슨일이 벌어져 있는가를 써 놓았습니다.
㉗이사길방택일 : 가택이 나쁘면 어디로 이사시켜야 좋아질 것인가? 그 방위를 육임법칙에 의해 밝혀 놓았습니다. 이 방위로 이사하면 반드시 개운됩니다. 이사택일은 이사가는 방위와 육합이 되는 날을 쓰라는 것입니다.
㉘응기 : 묻는 일이 언제 될것인가 몇일 몇월에 될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될것입니다.
㉙선인악인 : 온사람 또는 정단자의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 보통인인지를 써 놓아 중요사에 응용되게 해놨습니다.
㉚가해자 : 어떤 흉사가 있을 때 어떤 곳에 사는 누가 해악을 끼쳐을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㉛윤세 : 당면 운세에 대해 처신해야할 교시를 주는 법문이 될 것입니다. 아래줄의 한문은 간단명료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뒷면에는 별도로 찾아온(전화)사람이 묻게되는 전반적 사항에 대해 즉시 말해줄 수 있도록 아래 내용 모두에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모망사 공명사 구재사 구직사 시험사 결혼사 임신사 가정사 이사사 소송사 질병사 매매사 여행사 도난사 가출사 대인사 상면사 채용사 투자사 승부사 가격사 경작사 묘지사 기후사

주문안내
값 2,500,000(이백오십만)원 각종 신용카드 24개월 구입가능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주문전화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육신은 정신세계의 심부름꾼

내가 공했는데 병이 어디 있고 또 병이 붙을 곳도 없잖아요

마음공부의 길

문 스님, 속가에서 불법을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왠지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마음공부의 길을 언제까지나 끝없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래서 옛날에 길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써 붙이기를, 하나는 길이 험 돌 사닥다리 골짜기로써 험하다고 써 놓고, 한 군데는 아주 대로(大路)로 좋은 길이라고 써놓고, 또 한 군데는 가다보면 그냥 춤도 추고 술을 마시는 주막도 있고 쉴 자리도 많고 좋은 길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길을 가만히 보면은 공부에 뜻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대로가 좋다고 갈 거고, 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내가 대로를 찾으려고 왔느냐? 험하더라도 내가 갈 길은 꼭 가야만 하지.' 하고 험하지만 바른 길을 택해서 갈테고, 또 그냥 논다니처럼 그런 사람은 '뭐, 젊음이 십일홍 넘어가면 다 없어질 텐데 아니 놀고 어떻게 가랴.' 그러고선 험한 길을 되돌아서 가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세 길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행자가 택한 길은 아주 험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은 해골도 그냥 널비하게 있고, 불쌍하게 죽은 축생들의 해골도 널비하게 늘어져 있고, 귀신도 많은 그런 길이에요, 아주 소로(小路).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가면서 모조리 집어먹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둘이 아니다 하면 집어먹는 거니까. 둘이면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조리 집어먹고 가다보면은 길은 빨라지고 정말 나를 수도 있는 길, 그냥 떠서 가는 길이 생기지요.

그렇듯이 만약에 지금 우리 앞길에 별의별 것이 다 쌓여있다고 한다면, 축생이나 아귀, 축생, 아수라 차원이 낮은 것들이 죽어서 쭉 있으면은 이걸 치우고 길을 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정말 참 선의 길은 아주 좁고 천야만야하고 좁은 골짜기고, 길이 험해도 가는데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이리저리 구르고 그러는 데가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가는 길이죠.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 자기가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말 하면도 하지 않는 법,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은 법,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걷지 않는 법, 이 네 가지를 다 한데 합쳐서 놓는 법이며 바로 이것이 삼매에 드는 법이며, 참선이며, 참 행이며, 도행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를 깨우쳐서 광대무변한 무쌍한 법을 들이고 내는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고, 여여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꿈에 뭐가 보이든, 낮에 서로 상대가 생기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굴하지 말고, 어떠한 걸 보더라도 속지 마시고, '아! 저것도 모를 때 내 모습이겠지.' 하고 이해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꿈을 잘못 꾸었다 해도, '화해서 모습을 보이는 게지, 저것도 내 모습이겠지.' 이렇게 자꾸 하나로 돌린다면 우주도 바로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지구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맷돌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모든 기계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축을 빼놓고는 안됩니다. 그 축으로 인해서 비행기 프로펠라가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도리를 배워서 생활이나 일체만법을 운용하고 나가면서, 영구적이고도 영원하면서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여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용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도입니다.



그림 · 최주현

병과 둘이 아닌 이유

문 스님의 자유인이 되는 길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의문나는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병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 둘이 아니라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병은 내가 반드시 물리쳐야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죽어야 병과 둘이 아니라고 어느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리송하고 스님의 감로수 같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죽어야 병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현재 의식의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바람결처럼 덧없이 가는 거라고 하지만, 바람결같이 가는 것은 물질적인 모습이지 참자기는 일체 만법을 다 이롭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자기 정신계의 시자일 뿐이죠, 심부름꾼 말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니깐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공심으로서 살며 둘로 보지말고 모두가 공체로 살고 공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런 나무나 돌, 풀 모두가 공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간의 모습 속에 수천 가지의 생명이 살고 있는데 그 생명들도 모두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둘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일체를 둘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랫말도 지어 놨어요. '삼세가 둘 아닌 도리' 라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육신의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고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몸을 볼 때 둘로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했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내가 공했는데 병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공했다면 병이 하나도 붙을 데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깐 병이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으로서 오는 놈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우리 빗속을 좀 보세요. 세끈 모든 거 이 놈들이 전자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태초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그놈들이 한데 한마음으로 뭉쳐서 사람으로 하나를 형성시켜 가지고 진화하게 만들고 자꾸자꾸 마음으로 차원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또 진화되는 거고, 진화가 됐으면 거기서 하나가 둘, 셋이 되고 자꾸 불어나가는 거고, 또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싹 없애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어디 꼭지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돼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또는 인간의 영화 게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마음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비교한다면 혹성같은 데도 어느 동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을 닫아걸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이건 비교해서 참작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건다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둘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애당초 생길 때에 개구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뱀의 모습을 쓰고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인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두 있는 거고, 전자에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의 모습들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 모두를 내 생명과 같이 아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것도 살리는 거고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생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오면 병이나 고친다 이러지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병뿐이 아닙니다. 병도 나타나고 가난을 면하는 것도 나타나고, 우환이 없어지는 것도 나타나고 그러지마는 인과응보라든가 우전성이 끊어지는 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절에 가면 병이나 고친다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화창하듯이 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마음속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회전시켜준다는 게 전체 보배를 찾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병뿐이겠습니까? 세세생생에 영원한 보배를 자기가 지니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 육체도 이끌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자유인으로서 길을 인도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천년 만년 살 줄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어 태어나고 또 바뀌어 태어나고,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살면 짐승의 모습을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알려면은 내면의 주인공 자체를 진짜로 믿어야 해요. 자꾸이자 자기의 주장자이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주인공에다 놓고, 아픈 것도 병을 물리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둘 아니게 살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 자꾸 관하면서 마음을 안정해야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말하면서도 하지 않는 법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법
걸어다니면서도 걷지 않는 법
삼매에 드는 법

모두 해탈을 한다면…

문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해탈을 얻고자 하면 수 없는 고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인연 따라 구도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업과 인연따라 정해진 것인지요?

답 우리가 만약에 정신계를 추구해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반반씩 100%가 돼서 움죽거리게 된다면 여긴 상세계가 됩니다. 중세계가 아니라 상세계요. 불국토가 된다 이 소리죠. 그건 왜냐하면 다른 혹성에다가 또 중세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어도 살 수 있고, 저런 게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상세계의 차원이 된다면 없어니라 세계가 다 지구를 집을 삼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망가진다면 그 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생명들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집을 내가 지키자. 또 몸뚱이 내 집을 내가 지키자. 내가 사는 사회를 내가 지키자.' 하는 겁니다.

이 선법(禪法)에는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따지는데, 무(無)의 세상에 공법의 도리로서 가고 옴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 한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도 방편이죠. 이 탁자 위에 놓여진 컵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이죠.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약해서 못 한다는 게 많고, 나는 모른다는 게 많고, 업이 많다고 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얽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튐박질을 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튐박질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붙지 않죠. 마음으로 튐박질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한 찰나라고 합니다. 빛보다 더 빠르죠, 아주. 빛은 오히려 가다가 탈이 생기지만 마음의 빛은 보이는 빛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 오존층이라고 하나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구멍이 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물질적인, 즉 말하자면 남극 북극의 얼음이 점차적으로 녹게 돼 있죠. 그러면 불난리 불난리에 계속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걸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을 가만히 앉혀 놓고,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거길 간다 합시다. 가도 몸뚱이는 여기 있는 거지 몸으로 거기 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결단을 내리면 스스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지요. 아주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발산을 하지 않게끔 다 조치를 취해 놓으면 흠집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우리 집이 지구라고 한다면, 집이 작은데 식구가 많다면, 얼른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잘 데도 없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왜 배추씨나 무씨를 밭에 뿌려 놓으면 한데 그냥 붙어서 모두 나죠? 그럼 그걸 솎아 줘야지 솎아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오죠,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솎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단 얘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솎는 일이 생긴다는 건. 솎는 일은 생기되 같이 붙어 있는 건. 고추나무도 큰 것이 서로 한데 붙어 있으면 하나는 뽑아 내야 한 놈이 살죠. 그렇죠? 그렇게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붙어 있는 놈들은 다 솎아 내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뽑아 내는 일이 점차적으로 생긴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필연적으로 해서 이 중세계를 벗어나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의심없는 믿음 가지려면…

문 내 삶을 잡고 갈 동아줄을 주셨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하지 않는 믿음으로 놓고 관하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지 바뀌지 않는 생각이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마음이라 인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고 놓으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믿음으로 놓아도 안되는 것은 믿음의 정도문제인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 하는 것인지,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자체도 놓고 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틀 밖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일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물론 일임해서 놔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내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마는 인간의 씨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움죽거리게 되고, 삼합이 구성돼서 공존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증명해 보는 대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분별이 없으면 목석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없다면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이니까 삼위일체가 공존한다는 거를 전부들 알아야 돼요.

그럼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의 형상과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 앞에 갔을 때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이 이날까지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내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몰록 놔버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해 버렸으니 그 공한 자리에 다 너도 놔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놔버리는 자는 누구고 놔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놔버려라' 하는 자도 공이요 '놔버린다' 하는 자도 공이기 때문에 말을 했으면서 말을 한 사이가 없다는 이 소리만 났을 뿐이지 말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말한 것은 컴퓨터처럼 오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린 거지만… 자기가 이날까지 지내온 거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아는 게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 실상이 아는 거고,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어라 이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자기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을 역력히 알고 있을까? 그 아는 놈이 누굴까? 그 아는 놈은 자기의 생명수와 같기도 하고 자동적인 컴퓨터 같기도 하고 자기의 영원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는 건 이름도 없으면서 바로 그 에너지로 충당돼서 컴퓨터처럼 책정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화창하듯
마음속에 참 사랑의 길이 열려

☞ 26면으로 계속

누가 말을 하게 하고

누가 가고 오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자기의 근본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림 · 최주현

☞ 25면에서 계속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깐 놔버리라는 건 어디다 놔버리라고 하는 거냐하면 알고 있는 자기가 바로 공했다 이거죠. 체도 없고 빛깔도 없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건 부정 못할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놔버려라 이거야.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언짢은 일 좋은 일을 보는 거고, 그 좋은 일 언짢은 일 다 한데 합쳐서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고달프다 고달프지 않다, 좋다 즐겁다, 나는 못살겠다 나는 괴롭다, 주먹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도 잘 알아요. 자기가 한해, 24시간 걸어오는 거를 자기가 너무도 잘 알죠, 남은 몰라도.

자기가 알고있는 그 생명수와 같은 자기 에너지가 전체의, 나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 있으니 만큼 그 에너지는 차이점이 나질 않죠. 그래서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용' 이라고 하죠. 자기가 진짜로 자기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걸 책정해서 아는 그놈이, 그놈이 컴퓨터 전체 모든 걸 하고 있거든. 오관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바로 탐지기도 텔레파시도 통신도 무전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고놈이. 내가 나쁜 거 좋은 거, 일한 거 말한 거 하루 24시간 걸어온 거를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하는 고놈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고놈, 한놈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벌써 그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거죠. 알고 있는 고놈이 바로 주인공이자,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겁니다. 부착돼 있으니까, 내 몸에 부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근본처 그 주처가 바로 누구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주처에서 24시간 여러 가지 하고 왔지 않느냐? 주처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왔지 않느냐? 행을 하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억겁 전서부터 나를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계를 올릴 수 있는 바로 내 조상이자 바로 자아 부처, 원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주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심주라고 해도 좋고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뜻만 알면. 그래서 벌레가 나방이 될 때도 벌레가 생각을 고렇게 했기 때문에 끌고 간거죠, 나방으로… 그렇듯이 사람도 이날까지 억겁을 거쳐오면서 화해서 낳고 질척질척한 데서 낳고, 태로 낳고 알로 낳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고등동물로서 화하게 된 거죠.

부모님과 부딪치는 일이…

문 저는 무남독녀 외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성주이 급하고 저에게 많은 걱정을 끼칩니다. 여지껏 저는 어머니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폐를 끼쳐드린 적이 없는 모범적인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외딸이라서 혜택받는 일이 있지만 자기감정을 삭이고 해야될 말 안 해야될 말을 구별해서 하고 이 말을 하면 딸이 걱정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른다운 모습이 없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 말에 동감을 하지 않거나 서운한 말을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도 너두나 불편합니다.

다른 집은 자식이 부모 속을 애태우는데 우리 집은 부모가 자식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자식한테 반찬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마음을 힘들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욕심이지요?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저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았으면 하는 나쁜 마음까지 듭니다. 너무도 저를 배려 안하고 언제까지나 다 받아 줄 줄 아는 부모님이 야속합니다. 스님 어떻게 저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제가 전생에 부모님께 마음의 빚을 많이 지어서입니까?

답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부모 자식기간이나 형제간의 인연에 대해서, 끈이 달려서 맺어 있는 게 아니라 탯줄이 붙어 있듯 인연 줄이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고 속을 썩여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거를 번연히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한 게 없단 얘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든 잘못했든 자식이기 때문에 그다.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면서 판단을 자꾸 한다면, 밉다 곱다 판단을 한다면, 남편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아내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부모도 못한 잘한다 판단을 한다면 잘못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내 갈 길이 지금 바쁘고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를 지금 놓고 맡기고 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해요, 또. 남의 참견까지 할 때가 아니에요. 남이 말하는 거 듣고 온통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 그거야 네가 죽인다고 하는 거지만

상대가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잘못 나간다는 내 생각을 돌려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비

한가지가 남는다 거죠. 그 남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의 근본이나 부모의 근본이나 또 모든 여러분의 근본이 다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고, 자식이 보기에 아무리 부모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이니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니까요.

그래서 그 공한 뜻과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고, 공용으로 공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생활 속에서 공심으로 해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자식이 싫다는 거를 강요하거나, 자식이 반대하는 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잘 돌려서, 어떤 경우라도 잘 돌려서 잘 살게끔 해 주는 것이 부처님 원력이고 부처님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옳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모가 나는 거죠. 그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아니야, 그래서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잘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고 주인공에다 맡겨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면서 판단을 자꾸 한다면, 밉다 곱다 판단을 한다면, 남편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아내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부모도 못한 잘한다 판단을 한다면 잘못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내 갈 길이 지금 바쁘고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를 지금 놓고 맡기고 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해요, 또. 남의 참견까지 할 때가 아니에요. 남이 말하는 거 듣고 온통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 그거야 네가 죽인다고 하는 거지만 뭐가 원통해서 못합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고, 승천을 허지 말래도 승천을 하게 돼 있어요. 벌써 죽기 사흘 전에 턱 하니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겠어. 미움도 고움도 없었지? 그렇지만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했더라면 인생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를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 곱게 편하게 자란 사람보다 더 한층 공부를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새끼 벼랑에다가 내리 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꽃이라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부모야! 부모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뼈를 주셨어. 당신의 영혼이 거기에 부합이 되니 삼합이 합쳐서 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인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서 무조건, 이제부터라도 모든 거를 다 그 자리에 맡겨봐. 모든 거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새로운 쇠로서 생산이 돼서 밝게 빛이 날거야.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보면, 진실하게 마음을 가진다면 얼굴도 환하게 필 테니까.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이 내 마음의 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건강하시고 꼭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겁니다." 하지는 않고 자기만 힘이 든다는 생각이 어딨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걸 보면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 십 곱절 아팠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런데 그런 환경을 누가 가져왔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오는 거지, 바로 과거에 자기 산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어. 알았죠? 낳아준 은혜, 길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머니가 밉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그런 어머니를 위해 관해 드린다면 어머니도 변하시지만 본인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고맙다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내 말을 믿고 꼭 그렇게 해 보세요.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연 인-
어느새
가을입니다
한가로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밟으며
행복한 미소로
멀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아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住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288-2944

3일 안에 깨닫는다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칠십(돈오)에 깨치는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도 비약든 테크닉(방편)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생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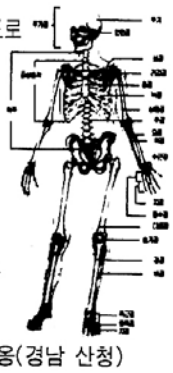
춤바윰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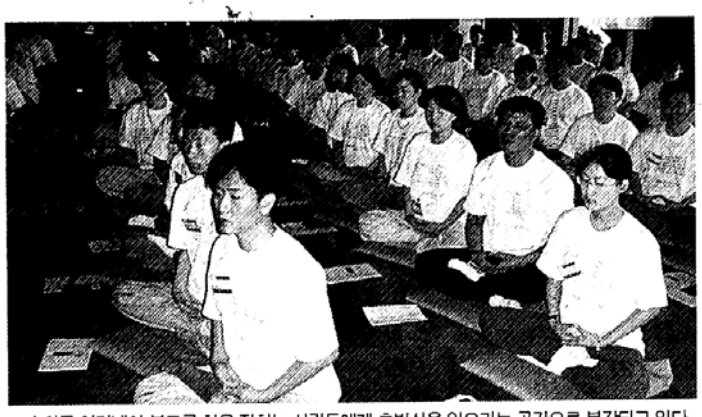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인터넷 인연 불자됐어요"

PC통신 유니텔 회원인 서현숙(36)씨는 평소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어디서, 누구에게 배워야하는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불교동호회인 '부처님나라'를 알게되어 그곳의 참선방 게시판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었고 지금은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참선방 도반들과 함께 참선을 배우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초발심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PC통신 유니텔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접한 서현숙씨(두번째열 첫번째)가 송광사 하계 수련회 때 참선하는 모습.

교리, 수행법 등 배우다 오프라인 신행 활동
숙제 위해 사이트 뒤지다 佛家 입문 하기도
초발심자 위해 계층·수준별 콘텐츠 개발 시급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이재영(26)씨는 최근 고양과목 리포트를 쓰기 위해 불교관련 사이트를 서핑하다 불교에 대해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불교기초교리 강좌사이트에서 불교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불교를 배우고자하는 네티즌들이 검색엔진이나 불교관련 사이트에서 기초교리, 경전 등을 배워 초발심을 내고 참다운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전통문화, 문화재 등과 관련된 과제를 불교관련사이트를 통해 해결,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된다.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와 달리 익명성과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 수 있고 사이버 불교신행단체나 사찰의 일주문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 새로운 초발심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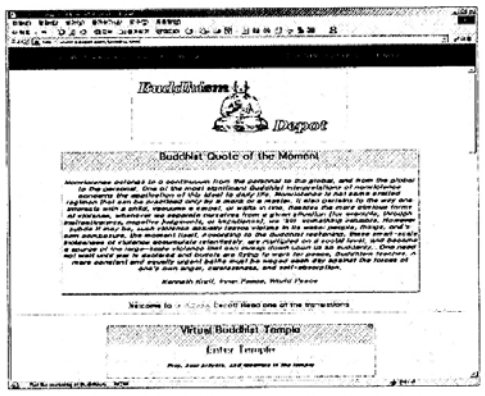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에서 불교를 처음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평소 가졌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를 교리 등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다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법회, 수련회 등 오프라인 모임으로 신행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이트나 회원이 적은 커뮤니의 경우는 교리 뿐만아니라 신행활동의 경험이 다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기본예절 등 불교기초소양이 부족해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 신행활동을 시작한 네트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선임연구원은 "98년 천리안 불교동호회 대표시삽으로 활동할 당시 전체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입동기를 조사해본 결과, 50%이상이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고 싶어서 가입했다는 초발심자였다"며 "인터넷을 매개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계층별, 수준별 불교콘텐츠 개발이 시급하고 종단차원에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부디즘 디포우



◇매일 업데이트 되는 법구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부디즘 디포우.

불교정보 창고 부디즘 디포우(http://www.adepot.com/buddha.html)는 팔리어 경전 〈법구경〉을 영역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첫 화면에서 불교 인용문이 매일 업데이트 되어 불음을 전파하는 이 사이트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

부디즘 디포우는 불교매거진, 사이버 법당, 불교 토론포럼 및 처팅, 불교에 대한 소개, 불경, 불교도, 만화와 유머를 소개한 불교도 유머, 오디오 도서관, 불교예술 갤러리, 온라인 서점, 불서 안내, 불교 용어집, 불교자료실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명상하는 불교도의 집도 있다.

법구경영역 온라인 서비스

특히 온라인 법구경은 팔리어 경전인 법구경을 영어로 번역,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오디오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친퀸 스님, 요셉 골드스테인, 스티븐 스미스, 잭 콘필드 등의 음성법문 다르마 이야기 역시 인기코너이다.

강지연 기자

IT단신

정보보호 문화운동 재개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정보보호 선도국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정보보호실천협의회와 함께 대대적인 정보보호 문화운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보보호 문화운동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내 컴퓨터 내가 지키기 를 캐치프레이즈로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은 올해 말 확정된다.

장애인·고령층 정보 격차

정보통신부는 지난 6, 7월 두달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50세 이상 고령층의 컴퓨터 이용률이 각각 24.1%, 11.4%를 기록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각각 13.1%, 1.2% 높아진 것이다. 인터넷 이용률은 장애인의 경우 22.4%, 고령층은 9.1%로 조사돼 2000년에 비해 각각 15.5%,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엿보기

⊙ 법우님들! 무리하지 않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3000배를 마치고 새벽공기의 상쾌함을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솟구치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서요.

현등해, 여행과불교를 사랑하는사람들

⊙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아야 한다. 부처는 곧 이 마음인데 마음을 어찌 먼데서 찾으랴. 육신은 헛것이거서 생과 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허공, 연꽃향기마을

⊙ 정여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하루하루 생활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국정토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매진하도록 합시다.

목탁소리, 여여선원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원경사

경기도 이천 원경사(주지 일봉)는 불사중이다. 일주문을 새롭게 단장하고 납골탑과 비각 등도 꾸미고 있다. 이뿐 아니라 납골당을 비롯해 무료양로원, 불교유치원, 불자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과 대중처소를 지어 불자교육과 복지도량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장기 불사를 하고 있다.

원경사의 불사는 건축불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에도 눈을 돌려 사찰 전산화 작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터넷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경사에서 처음 종무관리를 컴퓨터로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 전. 대부분의 사찰이 전산관리를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을 때 원경사는 자체적으로 종무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신도관리를 시작했다. 컴퓨터 쪽으로 빨리 눈을 돌린 까닭에 종무관리가 전산화 되면서 관련 인력 소모가 줄었다.

신도들에게 염서 한장 발송하려 해도 몇 사람이 2, 3일간 꼬박 하던 작업을 전산화 덕분에 한두시간만에 끝내게 된 것. 탄탄한 전산관리 시스템은 원경사의 자랑이다. 다른 절에서도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져 종무관리에 드는 인력을 포교 및 수행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일봉스님의 생각이다.

인터넷에 원경사 홈페이지(http://www.wonkyungsa.com)를 개설한 것은 2년여 전. 원경사 홈페이지는 사찰 유래에서부터 원경사 소개, 주변 명소, 납골탑 안내, 사진으로 가보는 원경사, 게시판 등 불자들의 관심을 끌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터넷을 통해 원경사를 알고 찾아오는 이들 뿐 아니라 홈의 오자 수정까지 해줄 정도로 애정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다.

사찰 전산화·홈페이지 등 인터넷 불사 중
사이버 법당·불교 교양대학 등 개설 계획

일봉스님의 사이버 불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법당과 인터넷 불교교양대학 등을 개설하는 계획도 꼼꼼히 세우고 있다. 인터넷을 무한포교 자원으로 보는 스님의 생각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포교일선에서 앞서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강지연 기자 ygang@buddhapia.com



납골탑 인터넷 신청 증가
사찰 홍보·포교 중요 수단

주지 일봉스님

"사이버 법당 운영에 관심이 큽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차차 준비해나가려고 합니다."

10년전부터 사찰종무 전산화에 눈을 돌렸던 일봉스님은 사이버 법당 외에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포교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7월 납골탑을 시작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이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은 절에서도 포교와 홍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일주일만에
나-노 파동명상 요법을 알면 당신도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명상전생 특강 내용

(1) 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薦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魂)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명상
제 3자가 명상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명상 파동요법
사랑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정을 맞추어 영가(靈魂)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개강 일시
◆ 개강 : 2002년 11월 10일(일요일) 일주일 과정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장소 :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 과정 ※ 전 문 반 - 150만원
※ 평생연구반 - 300만원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뱀을 손에 쥐고있는 황금빛의 가루다(garuda)소상(小像)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는 '왓 프라케오(에메랄드 사원)'.

목요일 떠나 태국성지순례 월요일 출근

항공료 싼 11월 적기…3박5일 일정 점검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신심을 가진 불교국가로 전체 6천만 국민의 95% 이상이 불자다. 인천공항에서 방콕까지 3659km, 5시간 30분정도 걸리는 제법 먼 거리지만 금요일 하루정도만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직장인들도 주말을 이용해 성지순례를 하고 월요일에는 정상 출근을 할 수 있다. 신도회나 불교단체도 연수를 겸한 성지순례를 한다면 좋을 듯 싶다. 특히 항공권이 비교적 싼 11월은 떠나기에 더욱 안성마춤이다. 3박5일의 순례일정을 짜서 허외 심을 꼼꼼히 점검해 봤다.

◑첫째날(목요일)

저녁 8시 비행기를 타자 현지시각 새벽 1시30분(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다) 방콕 돈무앙 공항에 도착.

코끝에 밀려드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이국땅에 왔음을 실감케 한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둘째날(금요일)

방콕에서 북쪽으로 80km(버스로 약 1시간 30분 소요), 사방이 차오프라야강과 그 지류에 둘러싸인 곳에 1350년부터 1767년까지 다섯 왕조와 35명의 왕에 걸쳐 417년 동안이나 이어진 아유타야 왕국의 도읍 아유타야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경주와 흡사한 도시인 아유타야는 한때 번성하던 무역항이었으나 1767년 미얀마에 함락돼 불교유적이 많이 부서졌다. 하지만 왕궁의 부속사원이며 세 왕의 유골이 보관된 3기의 체디(종모양의 불탑)가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왓 프라시 산펫 사원'과 태국 최대의 불상이 봉안된 '비한 프라 몽콘보핏 사원', 각양각색의 불상이 가득 모셔진 '왓 야이차이몽콘 사원' 등을 참배하면 아유타야의 화려한 영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부처가 유유히 누워있는 '왓 로카야 수타 사원'을 참배하고 2시간 거리의 파타야로 이동.

◑셋째날(토요일)

동해안에 있는 파타야는 복서풍이란 뜻의 세계적인 휴양도시. 왕사를 비롯해 수많은 엘리트 승려를 배출하고 등신불까지 모셔져 있는 '왓청름 사원',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자 국왕이 직접 큰스님들의 사리를 모셔와 지은 '왓 얀 사원', 국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1백m 높이의 야산을 절반 깎아 황금으로 불상을 조각한 세계최대 암벽좌불상인 '왓카우지잔'을 둘러봤다.





◇일출과 낙조가 장관인 '새벽사원'

◑넷째날(일요일)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이동(3시간 소요), 왕실사원중의 하나로 사찰안에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설립해 지역의 불우 소년들을 교육시키는 '왓마하 풋타락 사원'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에머럴드 불상과 화려한 벽화로 유명한 '왓 프라케오(에머럴드 왕궁사원)'과 왕궁을 답사했다. 또 본부리 왕조의 탁신왕이 최고의 왕실사원으로 정해 에메랄드 부처를 모셨던 사원인 '왓아룬(새벽의 사원)'도 놓칠 수 없다.

◑다섯째날(월요일)

새벽 2시 비행기에 오르자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늘 보던 것들이 왠지 새롭다. 여행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

태국=김주일 기자

★협찬=대전관광, 태국 KTS투어



킷 티부또
파타야
왕립 불교대학원장

스님은 최고의 존경대상
절은 모든국민 생활공간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이다. 초등학교는 모두 절안에 있으며 남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동안(최소 3일~3개월) 승려로 생활해야 한다. 태국에는 전국에 약 32,000여개의 불교사원이 있다. 이곳은 승려들의 수도원이면서 주민들이 봉공을 드리러 오는 법당 역할을 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투표소가 되기도 하며 마을 주민이 죽었을 때에는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절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학교이면서 정보 교환의 장소이며 병원이고 놀이터이다. 태국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불교다. 국왕이 정치, 경제, 역사에 관한 것을 13명의 왕사 스님들에게 의논한다. 또 승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 어느 공공장소에서나 앞자리 좋은 자리는 승려들의 좌석으로 지정돼 있다.

태국 파타야 스님들의 탁발

병자·노약자 빼곤 모두 참석
탁발공양 후 행복·건강 축원

삼륜(三輪)택시인 '뚝뚝이'가 이따금 거리를 스치는 새벽 5시30분. 태국 동해안의 휴양지 파타야 사원 곳곳에서는 주홍색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사원 입구에서 탁발 공양의식을 봉행한다. 이어 6시부터는 중앙 시장을 비롯해 거리 곳곳에서 탁발이 펼쳐진다. 왕실 사원중의 하나인 '왓청름' 사원 스님들의 탁발 대열은 5~6명씩 5개조로 나뉘어 사원 근처의 3~4블록을 맡아 한바퀴 도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탁발은 병자와 노약자를 제외하곤 주지 스님에서부터 동자승까지 거의 전원 참여한다. 인도변에 정성껏 장만한 밥과 음식이 담긴 온 그릇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은 채 단정히 두 손을 모은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탁발 행렬을 미리 기다리고 있다. 양말은 물론이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의 스님들에게 어깨에 맨 절구모양의 발우에 금방 지어 김이 모락모락나는 따뜻한 찹쌀밥을 3~4주걱 퍼담아 준다. 탁발공양이 끝나 무릎을 꿇고 앉자 스님들은 "찻타로 담마와 단티, 아유아노 숙항 발-링(행복과 건강이 각 가정마다 증진되길 바랍니다)"라며 축원해 준다.

탁발행렬이 이번에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하나 둘 가게문을 열기 시작하는 상가골목에 접어들자 남녀 상인 3~4명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스님들에게 건넨다. 곁눈질해 살짝 내용물을 살펴보니 요구르트, 오렌지 쥬스, 빵이다. 1시간 30분동안 탁발행렬을 쫓아다녀보니 음식이외에 돈을 시주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탁발행렬에서 만난 츄키아트 퓨핀파(58)씨는 "아내가 내 밥은 차려주지 않아도 아침마다 스님들의 밥은 꼬박꼬박 챙긴다"며 "바쁠 때에는 과일이나 음료수, 빵, 돈 등을 시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침 7시부터 탁발한 음식으로 아침 공양을 마친 스님들은 오전 8시부터 명상 수행을 한다. 오전 11시 30분 점심공양을 끝으로 오후 불식(不食)이 엄격히 이어진다.



◇파타야 중앙시장에서 탁발하고 있는 스님들.

태국불교예절…알고가자

⊙ 사찰방문시 지켜야할 예절

더운 나라라고 해서 반바지 차림이나 소매없는 티셔츠를 입고 사원에 가서는 안된다. 또 끈없는 슬리퍼(샌들류)도 곤란하다. 일부 허용되는 사찰도 있지만 참배객으로서 올바른 예의는 아니다. 특히 방콕의 에머럴드 사원과 같은 왕실사원에서는 입구에서 관광경찰이 참배객들의 복장을 일일이 체크한다. 만일 현지 사정이 어두워 반바지 차림으로 사원을 방문했다면 안내소에서 5천원 정도에 긴바지를 빌릴 수 있다. 양호한 복장(?)으로 사원을 통과했다면 주의할 점이 하나더 있다. 태국의 사원은 대웅전 입구 앞 바닥에 깔려 있는 대리석 부분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찰처럼 문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발을 벗으니 주의하자.

⊙ 합장하는 법

태국불자들은 합장 인사를 할때 양손을 코 윗부분까지 올린다. 또 새벽녘 스님들께 탁발 공양을 할때는 공양물을 눈썹 위까지 올린다.



보워터한라의 생활 속 좋은 종이①

착한 종이

이 종이에서 그들은
파란 바다 위 하얀 범선을 봅니다.
꿋꿋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봅니다.
앞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는 착한 종이-
보워터한라가 만들고 싶은 좋은 종이입니다

좋은 종이는 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고 기쁨을 담고 생활을 바꿉니다.

보워터漢拏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LTD.

•본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694-1 TEL:(061)460-611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휴우빌딩 TEL:(02)567-1576